

선래 스님(부산 법륜사 회주)
"온 중생 마음자리에
불성 있으니 모두가 부처"
8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4월 25일) · 주간

제1048호 2015년 6월 11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아함경〉
부정하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고
법대로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
법대로 살다 죽는 것이 낫다.

불교가 종교갈등 유발? 교과서 내 불교 왜곡심각

불광연구원 · 불교사회연구소, 연구 결과 공개

'최악, 최장의 종교갈등을 유발한 종교는?' 국내 채택율 2위의 사회교과서에 실린 내용에 따르면 그 답은 불교다. 사회교과서 내 불교 기술 왜곡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탈레반에 의한 바미얀석불 파괴 원인이 불교라는 기술부터 우상숭배의 종교로 비하하는 등 그 내용도 다양했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과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6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여는 '초 · 중 · 고 사회교과서의 불교서술제재와 내용' 에는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된다.

초등학교 "불교관련 내용 드물어"

먼저 윤용민 동대여중 교사는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의 불교서술 체재와 내용' 발제문을 통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내에는 극히 일부에만 불교관련 내용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는 3학년 1학기부터 6학년 2학기까지 총 8권으로 이 중 역사영역에 해당하는 2권(5학년 2학기, 6학년 1학기)을 제외한 6권 중에서 종교관련 내용은 지리 · 일반사회 영역 뿐이다.

특히 종교에 대한 관념이 자리잡는 초등학교 고학년 과정에서 종교관련된 내용이 소략된 것이 문제로 분석됐으며, 이 같은 내용도 대부분 종교분쟁과 갈등으로 기술돼 자칫 종교가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불교를 비롯한 세계 주요 종교가 발생했다는 대목을 다루는 대목도 문제로 꼽혔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종교가 민족과 종교간 분쟁의 주요요인으로 기술된 점이 문제로 지적받았다. 이에 반해 유럽에서의 기독교는 현대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됐다.

중학교 "체험활동에 불교 내용 없어"

손은주 건국중 교사는 '중학교 도덕교과서의 불교서술 체재와 내용' 발표문에서 15종의 중학교 사회교과서 중 채택 비중이 높은 6종의 사회교과서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반달리즘 피해 바미얀 석굴
'종교갈등 요인' 으로 비하
"불교계 적극 시정 나서자"

손은주 교사는 현재 교육환경에서는 체험중심활동이 강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불교내용의 핵심적인 가치가 사회교과서 안에도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의 자살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이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참선과 마음수양을 중요시하는 불교의 방법 및 가치가 사회 교과서 안에 수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등학교 "불교 왜곡 심각해"

김현수 동대부고 교사는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의 불교서술체재와 내용' 에서 고등학교 교과서 내 불교에 대한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교사는 "불교와 관련한 내용은 '민족, 종교,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이라는 소단원에서 다루는데, 기술 방향이 민족분쟁이나 종교갈등과 관련하여 서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채택율 2위인 천재교육에서 발행한 교과서에 실린 불교 왜곡 내용을 예로 들었다. 김 교사는 "천재교육 교과서 내에는 기독교의 예수상이나 십자가 등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불교는 불상 등을 모시는 우상숭배의 종교처럼 기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천재교육 교과서 내 '읽기자료: 종교가 만들고 종교가 파괴한 세계 문화유산' 항목에서는 탈레반에 의한 바미얀 석불 파괴가 불교와 이슬람의 종교갈등으로 기술한 점도 지적됐다.

또 김 교사는 스리랑카 내전을 다룬 부분도 왜곡됐다고 밝혔다. 스리랑카 내전의 경우 종족갈등이 더 큰 원인인데도 마치 힌두교도와 불교도간의 갈등처럼 부각하여 기술됐다. 김 교사는 표현에서도 '최장, 최악' 등의 어휘를 사용하여 마치 불교가 심각한 종교 갈등을 유발하는 것처럼 기술된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불교계와 교학계가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종헌 개정안 논의 위한 중앙종회 열린다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 6월 22~26일 개최

조계종 종헌 개정안을 재검토 · 논의하기 위한 중앙종회가 열린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는 오는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0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개회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제202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4월 제48차 원로회의에서 인준 보류된 종헌 개정안이 재논의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은 6월 4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원로회를 원로회의로 존치, 종헌 9조3항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제한을 할 수 있다' 는 문구와 94조4항 '사설사암의 창건주의 권리는 종법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 는 문구를 각각 '권리를 제한한다' 와 '사자상승함을 인정한다' 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원로회의의 제안을 수용해 개정안을 성안하기로 결의했다.

종헌에 소의율을 반영하는 내용과 멸빈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대중의 공의를 모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종회 사무처는 제202회 임시회에서 논의할 의안을 오는 6월 15일까지, 종책질의는 17일까지 접수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6월 4일 조계사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마스크를 한채 참배를 하고 있다. 메르스 확산에 따라 불교계 행사와 법회도 연기 · 취소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메르스 확산에 불교계 행사도 차질

감염 확산 우려… 한일 불교대회 등 법회 취소 · 연기 잇달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확산으로 불교계 행사들이 대거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6월 8~10일 화성 용주사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36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를 연기하기로 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는 6월 4일 회장 자승 스님과 이사장 도산 스님, 사무총장 법등 정사와 실무진이 회의를 열고 연기를 결정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일본 측과 일정을 재논의키로 했으며 재개최 시점은 가을경으로 예상된다.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연맹장 송묵)은 6월 6~7일 양주 육지장사에서 개최예정이었던 '어린이청소년 캠프' 를 무기한 연기했으며,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도 6월 13~14일 육지장사에서 열 예정이었던 장애인전법단 템플스테이와 14일 부산 불교어린이 청소년연합 체육대회를 취소했다.

포교원 측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면역력이 약해 많은 인원이 모이는 대회가 자칫 감염 경로가 될 수 있어 행사를 취소하고 차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선의 사찰들도 행사를 잇따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서울 태고종 열린선원(선원장 법현)은 6월 6일 개원 10주년 기념법회를 9월 5일로 연기했다. 또 법주사(주지 현조)도 관공서의 요청에 따라 6월 13일 봉행키로 한 '금동미륵대불 회향식' 을 연기했다.

이밖에 보림선원 서울 선원과 안성 법등정사 등도 메르스 확산에 따라 정기법회와 염불정진법회 등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 · 사진=노덕현 기자

동행, 네팔 지진 구호 성금 10억원 돌파

전국 사찰 · 단체서 자비 나눔 성과

모금 한달여 만에 이룬 결과
불교 기부 문화 활성화 '눈길'
"학교 등 기반 시설 재건 초점"

네팔 지진 참사에 대한 불교계의 자비 나눔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사장 자승)에는 6월 2일자로 관련 모금액이 총 10억 원을 넘어섰다.

부처님오신날 직후부터 각 사찰과 단체들의 성금 답지는 계속됐다. 6월 2일에만 군종특별교구가 3900여만원을, 봉녕사가 1400여 만원을, 장경사가 1000만원을, 국제선센터가 1000만원을, 도선사가 3000만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다.

4월 28일부터 시작된 모금에는 현재까지 사찰 200여 곳과 20여 불교 관련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 같이 10억 원이상의 대규모 모금이 이뤄진 것은 2010년 아이티 지진 참사 이후 5년여 만이다. 아이티 지진 참사의 경우 총 11억여 원의 성금이 답지됐다. 하지만 3달 동안 이뤄진 모금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네팔 지진 참사에 대한 자비 나눔은 1달여 만에 이뤄진 성과이다.

아름다운 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전 불교계가 종단을 넘어 성금을 모연해준 것은 부처님의 탄생지인 네팔에 대한 한국 불자들의 애정을 보여준다"면서 "또한 조계종과 동행이 정책적으로 추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도 역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향후 조계종은 모금된 성금을 주요 단체와 논의해 네팔 지진에 대한 2차 구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질 구호는 단순 지원보다는 학교, 병원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재건 · 복구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6월 2일 전달식에서 "100만 달러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업 안을 만들어서 주요 사찰과 단체와 협의해 7월 중 결정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중복되는 지원보다는 최대 피해 지역 한 곳을 지정해 복구 · 재건을 할 방침"이라며 "학교 · 병원 등 기반 시설을 재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새연재 |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15면

보련기획

✓ 사찰 직거래 특가 판매 ✓ 다량 주문시 할인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불교용품 전문회사

| 연등 자동 승강 장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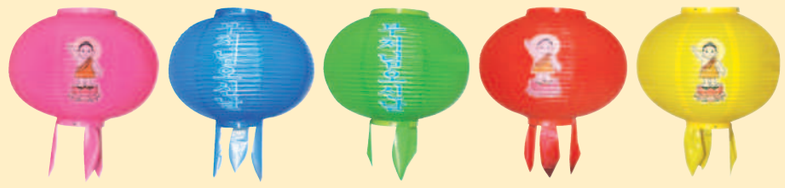
| 인등시공 |







만 월 등



극락왕생등



공 단 등



황 금 등



영 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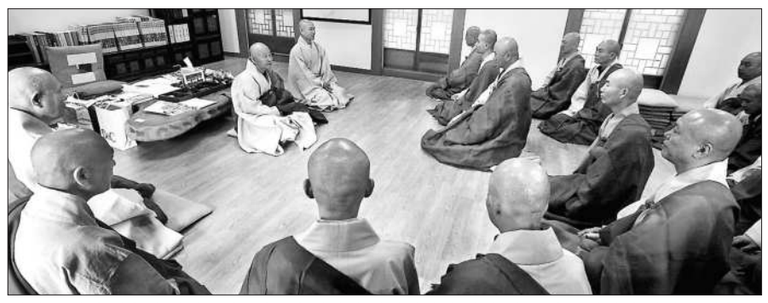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H·P 010-9446-1862
TEL 031) 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성파 스님과 서운암 상좌들이 6월 1일 하안거 결제법회에 앞서 새 주지로 임명된 영배 스님을 찾아 인사하고 덕담을 나눴다.

통도사, '화합'의 하안거 결제 법회

법회 전 결제 · 서운암 대중 영배 스님과 덕담 나눠

영배 스님 "화합이 제1덕목"

주지 선출을 관련해 내홍을 겪었던 영축총림 통도사가 6월 1일 하안거 결제 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는 3개월 간의 안거 기간 동안 용맹정진을 다짐하는 법석이면서 내부 화합과 결속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임명된 신임 주지 영배 스님 체재가 별 내홍없이 안착될 것으로 보여진다.

화합 무드는 법요식 전부터 확인됐다. 법회 전 하안거 결제에 참여하는 대중들은 차례로 통도사 주지실을 찾아가 영배 스님에게 축하 인사를 했으며 영배 스님은 정진 할 것을 당부하며 격려 했다. 또한 노천문도회장 성파 스님(서운암 회주)과 서운암 상좌들이 방문해 축하하고 덕담을 나누며 인사하는 시간도 가졌다.

통도사 하안거 결제 법회는 삼귀의로 시작해 방장 원명 스님의 결제 법어, 주지 스님의 인사말씀, 사홍선원, 기념 촬영 등으로 마무리 됐다.

방장 원명 스님은 결제 법어를 통해 "과거의 우리 선지식들이 참 봄소식에 이르지 않고서는 멈추지 않으리라는 의지로 두려움과 맞섰다"며 "오늘 이 자리의 대중들도 그러해야 할 것이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일을 위해 나섰으면 끝까지 밀어 붙여야 한다"고 방부 대중들의 정진을 당부했다.

법회 이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영배 스님은 화합을 제1덕목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영배 스님은 "통도사는 거슬러 올라가면 단일 문중으로 하나"라면서 "통도사 대중들은 양보하고 배려하며 서로를 하늘처럼 떠받드는 모습으로 화합을 일궈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갑작스런 주지 임명과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사전 의논이나 약속 같은 것은 없었다"고 강조하며 "결제일에 인수인계를 할 수 없다. 통도사의 안정을 위해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사안들이였다"고 설명했다.

구상하고 있는 일이 많아 고민이 많다는 영배 스님은 "근간에 통도사가 갖는 사격에 비해 여러 활동에 아쉬움이 있다. 역량을 극대화 해 부처님 전법을 실현하는 과정을 여법히 진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양산 통도사= 하성미 기자

'떴다방' 유사 포교당 상행위 주의보

조계종 호법부, 6월 2일 관련 당부문 발표

단기간 임차 포교당 운영하며
노인 대상 생필품 제공 등 영업
수의, 천도재 비용 청구 · 분납도

최근 '떴다방' 식 영업 행위로 천도재를 유도하고 위패장사를 하는 유사 포교당이 늘어나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종단을 사칭해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불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조계종 호법부(부장 세영)은 6월 2일 발표한 당부문을 통해 "유사 포교당 상행위로 인한 피해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호법부가 밝힌 유사 포교당 사례로는 △노인을 위주로 방문을 유도하며 생필품 등의 선물을 무료로 배포 △단기간(수개월)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되는 포교당 △법회, 예불 등의 기본적인 의식 없이 노래, 만담 등의 유흥 위주로 운영 △법문 시 지나치게 영가천도의 필요성만을 강조 △스님 없이 운영되거나 재가자가 점장, 부장 등의 직함을 사용 △과도한 천도재 및 위패, 수의 비용을 요구하거나 할부 등 분납을 강조 △천도재나 위패, 수의에 대하여 가족과 상의를 하지 못하는 곳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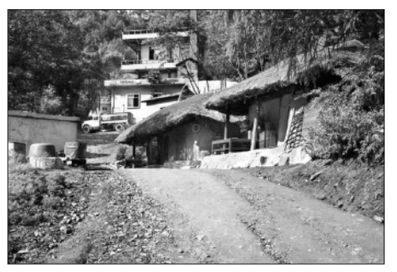
호법부는 "정상적인 포교당(포교원)은 천도재 및 위패 등을 상품처럼 판매하지 않는다"면서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종단의 명칭을 무단으로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 종단 소속 승려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포교당의 경우 종단의 조사나 행정지도가 불가한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창종 정신 되새기며 새 70년 방향 모색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창건 70주년 행사 다채

12일 사진전… 70년 역사 한눈에
19일 세미나, 한중일 천태종 조망
20일 창건 및 평화기원 법회 개최





창건 당시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전경〈사진 왼쪽〉과 현재의 구인사.〈사진 오른쪽〉 그간의 발전 모습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천태종 총본산인 단양 구인사가 창건 7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펼친다. 행사는 우선 6월 12일 불교천태중앙박물관 주관으로 열리는 '구인사 개산 70주년 기념 역사사진전'으로부터 문을 연다. 구인사의 70년 역사를 사진이라는 시각자료를 통해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조망토록 하고자 기획된 이번 행사에서는 약 300점의 사진과 함께 기념물을 관람할 수 있다.

메인 행사는 19일에 주로 열린다. 학술대회와 음악회가 그것이다. '한 · 중 · 일 3국 천태종 총본산의 개산과 수행종풍'을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는 천태불교문화연구원의 주관으로 구인사 광명전서 오전 10시부터 약 5시간에 걸쳐 개최된다.

주제 발표자로는 중국 국청사 천태종불학원의 쉬스치 교수(천태산 국청사와 천태지자대사), 중국인민대학 불교와종교학이론연구소 장펑레이 교수(고려 의통과 송초 천태종의 중흥), 일본 예산학원 구와다니 유겐 학감(히에이잔 엔랴쿠지와 사이초대사), 일본 연력사 말사 구법사의 주지 다케 가쿠초 스님(엔랴쿠지의 수행과 문화), 동국대 권기종 명예교수(소백산 구인사와 상월원각대조사), 인천 황룡사 주지 세운스님(구인사의 수행종풍과 문화) 등이 나선다.

또한 같은 장소인 광명전서 오후 6시 30분부터 펼쳐지는 70주년 기념 음악회는 관문사 구강사 광수사 광법사 삼태사 황덕사 정광사 황룡사 삼천사 등 10개 사찰로부터 300여명의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연꽃향기' '묘법연화의 노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등 10여 곡을 음성공양 한다. 이외에도 테너 정우진 한정일 정무시 등을 비롯해 바리톤 김재일 조승완, 소프라노 황혜진 정지영 등이 출연하며 박윤규씨가 지휘봉을 잡는다.

이외에도 20일(음력 5월 5일)에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광복 70년 세계평화 국민화합 기원 및 구인사 개산 70주년 기념 대법회'가 광명전서 열린다.

한편 중국서 수행한 뒤 귀국한 대한불교 천태종 종조인 상월원각 대조사는 광복되던 해인 1945년 2월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에 현재 법당이 있는 곳에 정지(整地)하고 5월 단오일에 신도 8명과 함께 구인사를 개창했다. 그래서 매년 단오일을 구인사는 개창기념일로 정하고 있다. 창건 당시 초가삼간 규모이던 구인사는 50여 동의 크고 작은 법당으로 이뤄진 대가람으로 발전했다. 그것은 비단 외형적 불사만의 성장은 아니었다. 8명으로 출발한 천태종의 신도는 70년이 지난 지금 250만 명으로 늘었고, 사찰 250여 개, 스님도 약 500여명 정도가 소속돼 있다. 또한 상월원각대조사의 가르침인 '애국불교' '대중불교' '생활불교'를 3대 실천 지표로 정해 정신을 면면히 계승하고 있다.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된지 7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임과 동시에 천태종도 상월대조사의 원력에 의해 창종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상월대조사께서 중생구제를 위해 창종하신 바로 그 정신으로 돌아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70년을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를 모색하자는 취지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해외 유출 조선 칠성도 범어사 '還地本處'

1950~60년대 혼란기에 유출
국외재단 모니터링 중 발견
"19세기 대표 불화" 평가
원소재처 범어사 경매 낙찰
불교계 · 국가기관 협력사례



범어사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협력으로 경매에서 낙찰받아 환수한 조선 칠성도 불화. 왼쪽부터 '치성광여래 일광보살 월광보살도', '제5광달지변여래 염정성군도', '제6법해유희여래 무곡성군도'.

6 · 25전쟁 등 한국사회의 혼란기인 1950~60년대 초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후기 불화 3점이 문화재청 산하 재단과 원래 봉안되었던 사찰의 노력으로 국내에 환수됐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수불)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안휘준, 이하 국외재단)은 6월 3일 오전 11시(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진행된 한 옥션에서 부산 범어사 극락암(極樂庵)에 봉안됐다가 사라진 '칠성도' 3점을 7만8500스위스프랑(한화 9400여만 원)에 낙찰받았다.

국외재단은 해외 경매시장에 출품된 한국문화재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취리히 소재 콜러 옥션(Koller Auktionen)에 출품된 '칠성도'를 발견했으며, 곧바로 전문가에게 불화의 진위와 가치에 대한 평가했다.

특히 '칠성도' 하단에 적힌 그림의 조성 경위를 적은 화기(畵記)를 통해, 이 불화 3점이 1861년 밀양 표충사에서 제작된 뒤 범어사 극락암으로 옮겨 봉안된 '칠성도' 11점 가운데 3점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칠성도'의 중심인 '치성광삼존도'가 남아있는 점 등으로 볼 때 19세기 후반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매를 앞두고 스위스 현지에서 '칠성도' 3점을 조사한 불교회화 전문가인 이용윤 불교문화재연구소 불교미술연구실장도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11점 구성의 칠성도로 국내 입수 후 범어사로 봉안 시, 본래의 종교적 기능 또한 회복할 수 있어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불화 3점의 원래 봉안처를 확인한 국외재단은 범어사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범어사는 불화를 확인한 즉시 환수에 적극 나섰다.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환수된 '칠성도'는 본래 봉안처인 극락암을 재조성해 안치하고, 나머지 '칠성도'도 되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승가 청규 방향 논한다

조계종 교육원 25일 세미나 개최

현대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승가청규와 그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 교육위원회(위원장 종호)와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위원장 심우)는 6월 2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현대사회 출가승려와 청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교육원은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승가청규 정립 성과를 점검하고 실현 가능한 내용과 방향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강 스님(해남 미황사 주지)이 '현대사회 승가청규는 어떤 내용으로 제정되어야 하는가?', 주경 스님(중앙종회의원)이 '새로운 승가청규, 어떻게 종단에 정착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제에 이어 덕문 스님(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장)과 자현 스님(조계종 교육아사리, 월정사 교무국장), 만당 스님(중앙종회 법제분과위원장, 전남 영광 불갑사)과 조성택 교수(고려대 철학과)가 지정토론에 나선다.

신성민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1.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2. 학교소개
▶ 세계최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5년 7월 15일까지 수시전형

5.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범종교·시민사회 "황 총리 후보 지명 철회를"

'연석회의' 2일 출범… 대불청·우리신학硏 등 28개 단체 참여

임명 항의서한 청와대 전달
"헌법보다 교회법 우위라는 총리 후보 국가적 불행 자초"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 저지 범종교인 연석회의는 6월 2일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임명반대성명을 발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 저지 범종교인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6월 2일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임명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황 후보는 헌법체계를 부정할 정도의 지나친 종교적 신념으로 정교분리원칙과 공직자 종교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황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황 후보가 공무원 신분으로 신정일치 사회를 지향하는 홀리클럽과 성시화운동에 적극 참여했다는 점,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라는 핵심요직서 기독교민영교도소 재단법인 아카페 이사를 맡아 법무부 복음화를 주장했다는 점 등을 들며 극심한 종교편향 문제를 꼬집었다.

특히 연석회의는 "황 총리는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수임료 기부약속을 십일조 수준의 교회헌금으로 대신했다"며 "헌법수호 및 국민 봉사는커녕 자신의 출세와 안위만을 위하는 사람을 국무총리 후보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우리는 국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고, 분열된 사회를 봉합할 수 있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길 바란다. 국익과 사회통합보다 사익과 사견을 우선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라며 "박 대통령은 역사적 편견과 이념·종교적 편향이 도를 넘은 황 후보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성명 낭독 후에는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지미자 원불교인권위원회 사무처장, 곽성근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상임대표가 대표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황 후보자가 국민통합과 소통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데도 한 목소리를 냈다. 전준호 회장은 "공직자의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이라며 "개인의 종교적 신앙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피해 받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밖에 지미자 원불교인권위원회 사무처장은 "극단적 종교 성향의 황 후보는 통합과 소통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며 "종교계 갈등을 심화시켜 하나 된 사회를 이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석회의에는 대한불교청년회, 바른불교재가모임, 참여불교재가연대, 우리신학연구소,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해방신학연구소 등 총 28개 단체서 참여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지난 5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임명저지범종교인연석회의 1차 모임을 갖고 6월 1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7개 종단에 동참을 제안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원폭2세 기본권 보장 지원 체계 마련해야"

원폭특별법추진위, 1일 토론회

1945년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70년을 맞아 당시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특별법을 촉구하는 자리가 열렸다.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이하 원폭특별법추진위)는 6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해 원폭피해자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 등 일반시민 3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번도 자국민 원폭피해자 규모를 조사한 바 없다"며 "원폭2세환우 문제는 사회적으로 잊혀졌다. 한 집단 내서 이 많은 사람이 고통을 호소하는데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원폭피해자 1세는 물론 2세환우 지원 대책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원폭피해자 자녀는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아름 기자


독도에 울려퍼진 부처님 법음

민족 수호 성지 독도에 부처님 법음이 울려퍼졌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이자 대표적인 불교문화예술로 꼽히는 영산재가 처음으로 독도에서 봉행됐다. 태고종 봉원사 영산재보존회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29일 우리나라 동쪽 끝에 위치한 독도에서 영산재를 봉행하고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기원했다. 지난 2007년 독도 영산재가 계획됐으나 기상 악화로 울릉도 입도가 불가능해 취소된지 8년만에 성사됐다. 신성민 기자

"수명연장 시도 월성1호기 폐쇄하라"

조계종 환경위, 원전 재가동 관련 성명 발표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 이하 환경위)는 6월 4일 월성 원전 1호기 재가동 관련 성명서를 공개했다. 환경위는 사전검증과 안전대책 없이 수명연장을 시도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환경위의 요구사항은 △월성1호기 즉각 폐쇄 △고리1호기 및 2호기 폐쇄 △30년 이상 노후원전 운영 금지법 제정 △신규원전설치 중단 및 원전개발 축소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5개 항목이다.

환경위는 후쿠시마 핵사고를 예로 들며 "30년 넘은 노후 원전으로 인한 핵사고는 인류가 핵 발전을 지속하는 한 반복될 것"이라며 "유럽은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닫고 25년간 약 50개의 원전을 폐쇄한 반면 우리나라는 원전 개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중차대한 사고 위험성을 지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아름 기자

재가연대 '내홍'… 결국 돈이 문제

3일 임시총회서 前 사무총장 횡령 놓고 갈등
법인 돈이 개인 통장서 오가
목적 기금도 인준 없이 사용
"7기가 6기 공격해" 설전도
결국 위원회 구성해 확인키로

정윤선 前 사무총장의 횡령 의혹을 놓고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허태곤, 이하 재가연대)가 내홍에 휩싸였다. 올해 역점사업으로 불교계의 재정 투명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내세운 재가연대의 내부 횡령 의혹과 갈등은 스스로에게 뼈아픈 실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가연대는 6월 3일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임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 개정 △임원 선출 △2015년 사업계획 △기타 안건 등을 논의했다. 갈등이 폭발한 것은 그간 논란이 돼 온 정 前 사무총장의 부당회계 처리였다.

인수인계를 진행한 7기 집행부에 따르면 정 前 사무총장은 재임 시절 7400여 만원의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수위원장으로 활동한 이주현 前 불교아카데미 이사는 보고를 통해 "재가연대 통장(4개)에서 정 前 사무총장 개인 통장(3개)으로 7천여만 원이 90여 회에 걸쳐 출금됐다. 활동비와 급여 명목으로 지급됐다고 하는데 지출 결의가 있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서 "종자연 출연기금·청소년 출소자 지원금·자정센터 기금 등 목적기금도 남아있지 않다. 인준없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 집행부는 7400만원을 변제받아야 하고, 소명 자료를 근거로 확인되면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규 교단자정센터 원장도 "2014년 결산보고에서 자정센터 기금 2300만 원이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통장 잔고를 확인해보니 2만 원밖에 없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총회에 참석한 정 前 사무총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인수위의 주장이 '악의적 모함'이라고 못 박은 정 前 사무총장은 "재가연대에서 나온 돈은 모두 재가연대로 돌아갔다. 이체 내역도 전부 설명했다. 목적기금 사용도 상임대표에게 보고하고 이뤄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회원 간의 설전도 이어졌다. 김동건 前 상임대표(4기)는 "이 사안은 전임 집행부 전체의 잘못임에도 사무총장 한 명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7기가 6기를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前 사무총장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재가연대를 고발하면 결국 누워서 침 뱉는 형국이 된다"고 주장하며 자제를 요청했다.

이에 김형남 공동대표는 "법인 통장의 돈이 개인 통장으로 오갔다. 이에 대한 증빙이 없다. 본인은 급여와 활동비 명목이라고 말하지만 어디까지나 임의처리"라면서 "잘잘못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허태곤 상임대표 역시 "돈이 없다고 회원들과 논의한 적도 없었다. 이런 이유로 주먹구구식으로 단체를 운영해서도 안된다. 6, 7기의 갈등은 아니다"면서 "잘못을 짚고 넘어가야 재가연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우희종 공동대표는 사퇴를 예고하기도 했다. 우 공동대표는 "문제가 진영 논리로 이어진다면 이 모임을 지속해야할 이유가 없다"면서 "덮고 가자는 식이면 이 자리를 빌어 공동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가 장시간 이어지자 일부 회원들은 위원회를 구성해 문제 해결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고 전우희 총회의장은 전·현직 감사 및 대표 등으로 꾸려진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의결했다. 조사위원회는 6월 중 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발표하게 된다.

한편 총회 후에는 '사찰재정 투명화 모니터단 출범식'이 이어졌다. 사찰재정 투명화 모니터단(단장 전우희)은 종단이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예산 30억 이상의 사찰 재정을 공개하는 사찰재정투명화와 관련, '투명화' 검증 및 감시를 위한 모니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성민·박아름 기자

'아생여당' 템플스테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나요

문화사업단, 3일 애니 유튜브 공개
8~14일 1주년 퀴즈 이벤트도 진행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는 6월 3일 정기 브리핑에서 "템플스테이 패밀리 브랜드 '아생여당'의 런칭 1주년을 맞아 아아, 생생, 여여, 당당 캐릭터가 애니메이션으로 탄생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생여당 템플스테이 애니메이션 영상은 3일 템플스테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초 공개됐다.

애니메이션 공개와 함께 '아생여당' 런칭 1주년 기념 이벤트도 진행된다. 6월 8일부터 14일까지, 템플스테이 공식 온라인 계정을 통해 템플스테이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재미있는 퀴즈가 공개된다. 당첨자는 6월 17일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6월 3일 공개한 아생여당 템플스테이 애니메이션 영상.

"마음속 피는 꽃이 당신의 부처님입니다"

댓잎의 속삭임, 차 한 잔의 기쁨, 5분의 명상… 송광사 승가대학장 덕조 스님이 불일암에서 띄운 작고도 섬광 같은 깨달음의 순간들

김영사

TEL:031-955-3200 www.gimmyoung.com 책은 사점에 있습니다.



마음꽃을 줍다 화제의 신간

덕조 스님 글·사진
232쪽 | 12,900원

생각이 단순하면 마음이 깊어진다고, 기도한 만큼 성숙해진다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다고 스님 특유의 따뜻하고 겸허한 향기로 풀어내는 기도의 단상들은 종교에 관계없이 누가 읽어도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서 좋습니다. 이해인 수녀 | 《마음꽃을 줍다》가 불일암에서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 많은 독자가 자신의 인생에 더 깊이 감사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밝혀주리라 믿습니다. 현각 스님

덕조 스님 | 법정 스님의 맏상좌로, 법정 스님께서 머무시던 불일암에 살며 수행하고 있다. 1983년 송광사로 출가하여 송광사 강원을 졸업했으며, 대만에서 계율학을 공부했다. 전 서울 길상사 주지,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이사, 현 순천 송광사 승가대학장으로 후학을 지도하며 정진하고 있다.



좋은 사람으로 사는 법

"누군가 미워하고 있나요? 그 마음이 괴롭진 않나요?"
나에게서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의 기적

당신은 이미 좋은 사람! 본래 모습 그대로 반짝이며 살라

Good Citizen

틱낫한 | 유향란 옮김 | 288쪽 | 값 12,000원



일 주 문



제1회 내포문화숲길 걷기 축제

지운 내포문화숲길 이사장 스님은 5월 30일 '내포가 하나로!' 슬로건을 내세운 제1회 내포 문화숲길 걷기 축제를 열었다.



유엔베삭절 기념식 참석

진월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 스님은 5월 28~30일 한국대표로 태국 아유타야대학교에서 열린 유엔베삭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찾아가는 에너지 절약교육

혜만 불교레크리에이션 협회장은 6월~10월 월3회 서울시 소재 15개 사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에너지 절약 교육' 을 실시한다. (02)738-7860



호국영령 위한 영산재 시연

선암 태고종 영산재보존회 회장 및 봉원사 주지 스님은 6월 6일 신촌 봉원사에서 '호국영령을 위한 제27회 영산재' 를 시연했다.



각원사 제13기 불교대학 졸업식

대원 천안 각원사 주지 스님은 5월31일 제13기 불교대학 졸업식 및 2014년도 경해학당 수료식을 각원사 대웅보전에서 봉행했다.



108암자구도회 순례

현진 청주 마야사 주지 스님(108암자구도회 지도법사)은 6월 14일 고창 선운사 도솔암과 참당암, 동운암으로 제3차 암자순례를 떠난다.



토요 다라니 철야정진

무심 대구 무심사 무심선원장 스님은 6월부터 매주 토요일 다라니 철야정진 기도 법회를 봉행한다. (053)616-8080



복지재단에 사랑의쌀 전달

덕일 서울 달마사 주지 스님은 6월 2일 동작복지재단(이사장 임성수)에 '사랑의 쌀' 10kg 25포를 전달했다.



보리수아래 템플스테이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는 6월 13일 경기도 양주 육지장사에서 장애불자들을 대상으로 2015보리수아래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인사〉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 신용환 △운영지원과 이재원 △활용정책과 문영철 박동석 △국제협력과 남상범 〈전보〉△덕수궁관리소장 김정남 △조선왕릉관리소장 남효대

◇동국대 의료원 △일산행정처장서리 김재선

"인류 문명 해답, 불교예술서 찾아야"

(사)한국불교문화예술인협회 대표 동성 스님



상업화 되는 불교미술의 현실 안타까워
협회 구성, 신인발굴·세미나 등 계획

"지금 우리는 물질만능적인 가치관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말미암아 탐욕과 투쟁, 반목과 혼돈의 모순이 팽배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불교는 인류화합과 세계평화를 위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양식을 벗어나 인류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새로운 가치관 형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불교의 문화와 예술에서 찾고자 합니다."

선화가 동성 스님은 (사)한국불교문화예술인협회를 결성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지난해 결성된 (사)한국불교문화예술인협회는 그 첫 행사로 선종미술의 일맥인 선묵과 선화의 근현대 역사를 조명하는 '한국의 선묵화 근현대 흐름전' 을 개최했다.

5월 28일~6월 3일 서울 인사동 백악미술관 2층에서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는 경봉 스님, 석주 스님, 서옹 스님, 성륜 스님 동성 스님 등 20여 스님 작품에 오제봉, 이명우, 석도륜 작가 등이 참여 총35점의 작품이 선보였다.

스님은 이번 전시를 통해 대중들이 한국의 선묵, 선화에 대한 근현대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저는 지난 37년 동안 다양한 주제의 선화를 통해 선의 정신을 알려왔습니다. 총 23회의 전시를 하며 대중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했죠. 하지만 요즘 홈쇼핑에서도 달마도를 판매하는 등 선화의 본래 정신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사)한국불교문화예술인협회를 결성하고 불교예술의 정신을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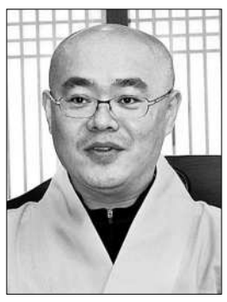
이에 (사)한국불교문화예술인협회는 각종 연구사업, 학술발표, 세미나, 창작활동, 작품발표, 전시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님은 "앞으로 신인공모전을 통한 신인발굴, 학술대회 등을 통해 불교미술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계획을 전했다.

한편, 동성 스님은 통도사에서 고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4년 금강사에서 일붕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1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통도사, 범어사 불교전문강원, 조계종 중앙교육원, 동국대 승가학과, 동 대학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에서 교학과 선리를 참구했다. 1984부터 창원 봉국사 주지로서 가람수호와 계층별 도심포교에 주력하고, 35년간 선화를 통해 문화포교를 주관했다.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제3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네팔 합동지원팀, 구호 완성도 높여"

더프라미스 상임이사 묘장 스님



"각 단체의 장단점을 취합 · 보완해 단계적 구호사업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구호활동에 불교계 안팎의 단체가 연합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프라미스(대표 법등)는 지난 4월 25일 발생한 네팔 지진 피해 구호활동을 위해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국제보건의료NGO 메디피스와 함께 합동 구호 작업을 펼쳤다. 합동지원팀은 지진발생 이틀 후인 4월 28일 1진 파견 후 현재까지 약 7천 8백 가구, 4만 5천여 명을 구호했다.

더프라미스 상임이사 묘장 스님〈사진〉은 "더프라미스의 인력, 메디피스의 의료지원, 어린이재단의 재정능력이 삼박자를 이뤄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었다"면서 "현지 NGO 2곳 EPF-Nepal와 HASTI과도 지역네트워크를 이룬 덕분에 빠른 초기대응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합동플랫폼을 통해 한 달 이상 긴급구호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공동구호작업에 관심을 보이는 단체들이 많다. 향후에는 인명구조에 특화된 NGO 휴먼인러브와 함께 구조 작업에도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스님은 합동지원팀이 네팔 다딩 지역에 지원을 집중한 이유를 설명했다. 스님은 "카트만두는 구호 포화상태인 반면 다딩 지역은 진원지와 매우 가깝지만 행정구역상 다르다는 이유로 구호활동에서 소외돼 있었다"며 "건물 대부분 흙으로 지어지고 노화돼 피해규모가 훨씬 컸다"고 안타까워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저자거리 포교 원력 이어나갈 것"

열린선원 10주년 맞은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



"시장통에서 포교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불심은 생활 속에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역촌중앙시장은 재래시장 중에서도 오래된 형태를 띄고 있다. 그 시장 건물 2층에 절이 하나 있으니 바로 태고종 열린선원이다.

2005년 저자거리 포교를 시작한지 10년을 맞아 열린선원 선원장 법현 스님은 전법활동의 포부를 다시금 밝혔다. "굳이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시장 사람들 중 일찍 돌아가신 분들을 위무하는 천도재도 함께 지냅니다."

스님은 불교가 한문투성이여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글법요집을 내기도 했다. 신라 충담 스님의 '미륵세존께 차 올리기' 가 차례의 효시라며 명절에 차를 올리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례 없이 꽃을 올리는 불교식 화혼 보급에도 열심이다. 열린선원 안에 4개월 과정의 명상문화아카데미를 열어 불교사상 · 의례의 기초와 부처님의 생애 등을 가르치는 것도 대중들이 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했다. 가족법회 등을 통해 가족신행공동체 형성에도 앞장섰다.

스님은 앞으로 10년을 내다본 새로운 전법활동을 다짐했다. 한글법요집을 다시 펴내는 한편 다양한 사회활동과 종교평화운동에서 앞장설 예정이다.

"결국 불교는 쉬워야 합니다. 쉽게 찾아오는 절, 쉽게 배우는 불교 교리, 생활 곳곳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수행이 바로 불교의 참모습이 아닐까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스마트폰 교육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노년기의 생활의 기능문제 해소하기 위한 총 10회의 '스마트폰 활용교육' 을 6월 2일 성료했다. SK텔레콤과 연계해 매주 1회씩 진행된 이 교육은 어르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휴대폰 활용교육으로 '세대 공감! 행복한 모바일 세상!' 을 주제로 진행됐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스마트기기 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정혜숙 기자

91세 할머니의 끊임없는 장학기부



박필순 할머니는 5월 29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실에서 이계영 총장에게 5000만원을 전했다. 경주캠퍼스는 박 할머니의 법명을 따 박여련화장학회를 설립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할 계획이다.

올해로 아흔한 살인 박 할머니는 "평생 못 배운 한을 갖고 살면서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었다"며 "이제야 소원을 이루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대구 보성선원, 자비나눔 봉축법회



재단법인 선학원 대구 보성선원(주지 한북)은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인 지난 5월 25일 봉축법회를 열고 제7회 장학금 지급과 자비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이날 장학금은 지역 기초생활수급자와 보성선원 어린이 · 청소년 법회 학생들에게 지급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초등학생은 대남 · 대서 두 초등학교에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로 나누어 520만 원과 80만 원, 총 600만 원이 지불됐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 미륵종 종도스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난 1월 27일 본 종단에서 제적되었던 영빈스님(정병복)이 대표로 신청하였던 본 종단 총무원장권한대행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창원지방법원으로 부터 2015년 5월 26일자로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우려의 마음으로 지켜보아 온 종도스님들께서는 더 이상 일부 스님들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종도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미륵종단의 올바른 수행종풍 확립에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5년 6월 1일

한국불교 미륵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묘각 합장

【결정문 요약】

사 건 2015 카합 10018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권자 정병복(영빈스님)
채무자 권형순(묘각스님)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1) 사단법인 미륵종은 당시 총무원장이던 덕운스님이 2014.11.27. 사의를 표하자, 2014.12.8. 채권자 등 16명의 간부가 출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새 총무원장 선임문제는 앞으로 법인이사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2) 사단법인 미륵종은 2014.12.15. 총무원장 선임 건을 심의하기 위해 법인이사회를 개최한 결과, 그 법인이사회에서 재적이사 6명 중 5명의 이사가 참석하여 그 중 4명의 찬성으로 채무자를 전 총무원장 잔여임기인 1년간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3) 종정은 2014.12.22.자로 총무원장 덕운스님의 사표를 수리하고, 전 총무원장 잔여임기 동안 채무자를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임명한다고 공고하였다.

4) 총무원장의 임면과 그 직무대행에 관한 종헌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10 장 총무원
제 44조 (선출 및 임면)
① 총무원장은 법인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법인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종정이 임면한다.
제 45조 (임기)
② 전임자의 보궐로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6조 (권한)
① 총15무부장은 총무원장을 보좌하며, 총무원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채무자를 총무원장 권한대행자로 선임한 것의 효력 유무

기록 및 위 기초사실을 토대로 살펴본다.

1) 총무원장이 사임하여 유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종헌에 의해 총무부장이 그 유고기간 동안에 총무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권한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사단법인 미륵종에서 채무자를 총무원장 권한대행자로 임명하면서 종헌에 따라 총무원장 선임절차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를 취하였다면, 그 임명이 종헌에 위배되거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채무자는 법인이사회에서 총무원장 권한대행자로 선출되어 종정이 임명하였는바, 종헌 제44조에 규정된 총무원장 임명절차를 준수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총무원장을 임명함에 있어 종회의 선출동의가 필요하므로 그 동의를 받지 않고 채무자를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우선 종헌상 총무원장 임명에 있어 종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종헌 제38조 제3항에 종회의 권한으로 '중앙부서장의 선출 인준 동의 및 불신임 청원권' 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종헌 제31조 제1, 2항, 제50조 제1항, 제55조에 원로원장, 감사원 정부부장, 중앙교육부 정부장의 경우 종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 총무원장, 국제불교문화부 정부부장, 교구원로원 정부부장 및 종무원 정부부장의 경우에는 그 선임절차를 규정한 종헌 제44조 제1항, 제60조, 제69조에 종회의 인준 또는 동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종헌 제38조 제3항 규정 내용만을 가지고는 사단법인 미륵종에서 종회 동의 없이 채무자를 총무원장 권한대행자로 선임한 것이 종헌에 위배되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설령 총무원장 선임에 종회의 선출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종교단체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총무원장 선임문제를 심의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총무원장 선임을 법인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결의한 것은 총무원장을 법인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종헌규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당시 종회가 종회의원들의 사임으로 사실상 해산되어 종회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③채권자도 종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며, 채무자를 총무원장 권한대행자로 임명한 데에 종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두고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거나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그 임명을 무효라고 까지 할 수는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채무자가 총무원장 권한대행자로 선임된 것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주위적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결론 :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위 결정문은 지면 사정 상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요약하였습니다.

“200번의 만남, 부처님 미소 닮아가요”



인도 참가자들은 가족단위로 댄스를 선보였다. 본행사에서는 인도 · 일본 · 중국 · 티벳 · 베트남 등 9개국 외국인 불자들의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져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한나래문화재단, ‘Musical Spring 200!’ 홍법사 현장

문화교류 통한 외국인 포교 한마당
9개국 300여 외국인 동참해 높은 열기
인도 락쉬타 카가라즈, 대상 수상

‘동남 · 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 동녀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하늘, 용, 아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사람이 아닌 몸으로 제도 할 때는 모두 그 몸을 나타내어 제도하리라.’

수만가지 형상으로 중생을 제도해 해탈케 하는 관음보살의 모습처럼 다양한 포교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사)한나래문화재단(이사장 심산)이다. 1999년 8월 설립된 이후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외국인포교와 국제구호 등을 진행하는 한나래문화재단이 5월 31일 부산 홍법사에서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다.

매월 셋째주 일요일 홍법사에서 진행해 온 외국인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 ‘Window to Korean Culture’ 의 200회 기념을 맞아 열린 행사에서는 이사장 심산 스님, 이건웅 상임이사를 비롯해 로이 부산외대 교수 등 9개국 외국인 참가자와 300여 대중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Window to Korean Culture’ 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함께 그 안에 숨어 있는 불교적 메시지를 전달해오고 있으며 현재 누적 참여 외국인 수가 1000여 명이 넘었다.

먼저 식전 행사를 통해 청계 안정환(부산시 무형문화재 24호) 씨의 서예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이날 퍼포먼스는 전통미로 참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청계 안정환 씨의 ‘용구수학(龍龜壽鶴)’ 글자가 하나 하나 쓰여질 때마다 관중들은 탄성을 내 뱉었다.

안 씨는 “거북이와 학은 장수의 상징이며 용은 기상을 의미한다”며 “외국인 포교를 위해 진행하는 이 행사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티벳전통음악가 ‘나그왕’ (Nagwang)의 고요하며 깊이있는 연주와 신나는 풍물패의 무대가 이어졌다.

김건웅 상임이사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진행 된 이날 행사에서 이사장 심산 스님은 축하 인사로 준비한 모든 임원과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참가한 모든 내빈은 200회를 기념하는 축하 떡을 자르며 기쁨을 함께 나눴다. 또한 축하무대로 부산외국어대학교 힙합 공연팀 참크루의 댄스가 뜨거운 열기로 무대를 채웠다.

세계 각국의 전통무용과 노래 선보여

본 행사에서는 인도, 일본, 중국, 티벳,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9개국의 나라에서 온 외국인 참가자들의 신명나는 무대가 마련됐다. 이들은 각국의 전통무용, 자국의 언어로 부르는 한국 노래 자랑, 신나는 댄스 등을 선보였다. 특히 아름다운 전통무용복식은 또 하나의 볼거리로 관중의 박수를 이끌어냈다.

행사에 참석한 한 불자는 “전통무용이 담고 있는 나라별 축제와 종교적 색채를 보며 각국의 문화를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경연 대회 대상은 인도에서 온 락쉬타 카가라즈가 차지했다. 그는 힌두신 덜가를 숭배하기 위해 열리는 인도 최대 축제 나바라트리의 전통춤을 선보였다. 영남대에서 근무하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방학을 이용해 한국을 방문한 락쉬타는 정식으로 춤을 배우지 않았지만 열정의 무대를 선보여 환호를 받았다.

이와 함께 유머로 많은 대중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이도 있었다. 다니엘 빠나죠 부산대 교수는 한국의 김밥나라를 좋아한다며 ‘김밥나라’ 라는 곡을 직접 작곡 작사해 노래를 불렀다. 다니엘 교수는 또 직접 제작한 김밥나라 티셔츠를 입고 나와 웃음을 자아냈다.

태권도 · 아리랑 능숙히 펼쳐내

2부에서는 한국전통문화를 알리는 무대가 선보였다. 먼저 아리랑과 가정의 안정과 번영을 기원하는 성주풀이가 진행됐다. 또 한국의 대표운동 태권도가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시연됐다. 태권도의 격파 기술은 모든 대중을 집중하게 만들어 큰 환호를 받았다.

경주 동국대에서 응원 차 찾아온 중국인 우종웬(21)씨는 “태권도 시연을 한류 아이돌 가수의 유명곡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신기하고 보는 내내 흥겨웠다”며 “격파 할 때는 아이들의 실수도 귀여워 더 박수를 치게 됐다. 한국 문화가 참 다양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 대상은 인도에서 온 락쉬타 카가라즈에게 돌아갔으며 모든 출연자 14팀 모두 은상, 동상, 인기상 및 상금을 수여 받았다.

대상을 받은 락쉬타는 “연습 없이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가 긴장이 많이 됐지만 인도의 전통무를 티비를 통해 보면서 많이 연습 했던게 도움이 된거 같다”며 “한나래문화재단에서 운영한 축제를 통해 평소 좋아했던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거 같아 기쁘다”며 소감을 말했다.

끝으로 한나래문화재단은 참여한 모든 관중들에게 경품을 나누며 기쁨을 나눴다. 행사 한편에서는 네팔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기부도 진행돼 자비 나눔을 함께 실천하는 뜻 깊은 시간임을 알렸다.

부산 홍법사=하성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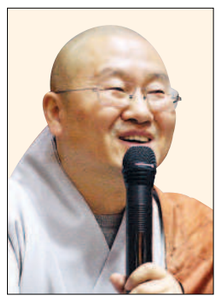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국적의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0회를 기념하는 축하 케익 절단식.

“국제 포교 창구 역할 담당할 것”

한나래문화재단 이사장 심산 스님



“불교 전법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홍법사와 불교를 전면으로 내세우기에는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회 속에 조용히 불교정신을 실현함으로 궁극적으로는 불교를 전하는 것, 이것이 한나래문화재단의 나아갈 길 입니다.”

몽골 기부 사업 및 인재양성, 전통문화를 통한 국내 외국인 포교, 인도문화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한나래문화재단 이사장 심산 스님은 ‘Musical Spring 200!’ 을 개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스님은 “홍법사 사찰 이름으로 세계로 나아가려니 종교적 단체로 한정됐다”며 “그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 포교를 진행하기 위해 설립해 문화와 기부활동을 통해 불교를 전파하는 창구가 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스님은 이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포교를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국제포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1996년 몽골 간단사 사찰을 방문한 심산 스님은 몽골의 경제적 어려움을 마주하고 국제 포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 1997년 몽골 IOC, 국립몽골대학교 불교문화센터와 친선교류를 시작으로 1997년 12월 ‘국제포교부’ 를 정식으로 발족, 1998년 1월 ‘제 1회 Window to Korean Culture’ 진행하며 국내 외국인 포교활동도 펼쳤다. 한나래문화재단은 스님이 이 같은 원력 하에 1999년 8월 설립했다.

향후 한나래문화재단은 몽골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가오는 7월 몽골 중학생을 대상으로 도전 골든벨을 개최하고 우승한 학생에게는 한국 견학의 기회 및 장학 혜택을 줄 예정이다. 아울러 몽골지역사회 기부 및 경주 동국대 외국인 학생 후원, 다문화 가정 지속지원 등도 진행된다.

하성미 기자

三月堂
圓學書展
원학스님 서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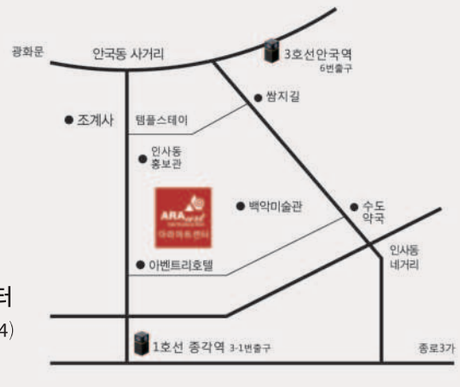
40여년 남종화의 맥을 이은 문인화로 수행의 방편을 삼아온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의 일곱 번째 개인전이 열립니다.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어 그림을 통한 심성을 닦고자 노력하여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향한 화두로 삼아왔다.”고 말하는 원학 스님이 수 년 전부터 작업중에 모아둔 소품들을 봉은사 다래헌에서 겨우내 붓을 들고 정성을 쏟아부어 완성한 작품들이 선보입니다.

개 막 식 : 2015년 6월 17일(수) 오후 5시 30분
전시기간 : 2015년 6월 17일(수) ~ 6월 23일(화)



오시는 길
Asian Renaissance Action ARAart 아라아트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9길 26 (견지동 85-24)
Tel : 02.733.1981





BBS 스마트폰 웹페이지 최신버전 선보여

서옹, 혜암, 숭산 스님들의 법문 다시 듣기도 가능

BBS불교방송(사장 이채원)은 창사 25주년을 맞아 불자들이 불교방송 TV와 라디오 프로그램 다시 보기와 듣기를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들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 웹페이지(m.bbsi.co.kr)를 6월 1일 리뉴얼 오픈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스마트폰 웹페이지는 불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불교 소식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직관적인 메인화면으로 구성됐다. 또한 한눈에 들어오는 이미지 중심 메뉴와 연령대가 높은 불자들의 이용을 위해서 글자 크기도 최대화했다.

또한 불교방송은 25년간 불교방송을 사랑하고 아껴주신 불자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로 '옛날라디오 다시 듣기' 이벤트를 준비했다. △1996년 당시 'BBS 초대석' 에서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조계종 제5대 종정 서옹 스님 10편 △제 10대 종정 혜암 스님 18편 △한국 불교를 세계에 널리 알린 숭산 스님 15편 등 총 43편의 사자후를 스마트폰에서 생생하게 다시 만날 수 있다.

새로운 스마트폰 웹페이지 접속 방법은 기존 아이콘을 삭제하고 '안드로이드 폰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불교방송' 검색, 아이폰은 사파리 주소창에 m.bbsi.co.kr를 입력하면 된다. 정혜숙 기자



BBS불교방송이 창사 25주년을 맞아 TV · 라디오 프로그램 다시 보기와 듣기를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들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 웹페이지(m.bbsi.co.kr)를 6월 1일 리뉴얼 오픈했다.

제주불교, 제1회 신행수기 공모

20일까지 접수… 상금 200만원

제주불교신문이 기도와 수행으로 아픔을 치유한 불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다린다.

제주불교신문(대표 성효)은 근대 제주불교 중흥조 봉려관 스님 탄신 150주년 기념,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하고 바람직한 신행문화 정착을 위해 '제1회 신행수기공모전' 을 진행한다. 주제는 자유주제로, 제주불교신문은 "삶의 애환과 시련을 극복한 불자들의 이야기는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제주불교문인협회는 "신행의 진정성이 짙고 참 자아를 찾아가는 모습이 드러나 감동을 주는 작품을 기다린다"며 "신행 중 깨달음을 얻고 희망찬 삶을 개척한 내용을 담아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행수기 공모는 전국 모든 불자를 대상으로 한다.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20매 안팎으로 글씨크기 12포인트, A4용지 4장 기준이다. 접수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전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7월 13일 시상식을 진행한다.

총 상금은 500만원으로 △대상(1명) 200만원 △최우수상(2명) 각 100만원 △가작(5명) 20만원 상당 상품권이 각각 수여된다. 특히 대상 수상자에게는 제주불교문인협회 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한편 이번 신행수기공모는 제주불교신문과 함께 봉려관선양회가 공동주최, 제주불교문인협회가 주관하며 제주불교연합회가 후원한다. 우편 또는 이메일(jejubulgyo@hanmail.net)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우편접수 690-829 제주도 제주시 중앙로 11길 1, 3층. 문의 (064)755-2203. 박아름 기자

조계종 전법중심도량 모집
포교원 6월22일까지 접수

조계종 포교원이 종단차원의 포교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전법중심도량' 을 모집한다. 전법중심도량은 △장애인 △어린이청소년 △새터민 △이주민 등의 분야에서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계종 사찰이면 신청가능하다.

전법중심도량 지정 사찰에는 종단에서 개발한 각종 교구재 및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지원받고, 사찰과 연계한 종단 사업 시 우선 선정 및 예산 지원의 특전을 받는다.

희망 사찰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오는 22일까지 포교원 전법지원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신성민 기자

세계 7대 명상 지도자 한자리에


아잔간하 아잔브람 소운 스님 툽텐갸초 심도 선사 우 자띨라 사야도 혜국 스님

세계 명상대전 7월 18일부터 정선 하이리조트서

세계 각국의 명상가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명상힐링캠프가 펼쳐진다. '세계7대성자와 1000명의 스님이 함께 수행하는 세계명상대전' (조직위원장 각산, 참불선원장)이 7월 18일부터 강원도 정선 하이리조트와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 등에서 열린다. 이에 세계명상대전 조직위는 6월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명상힐링캠프, 성자 수계 대법회, 강연 등으로 이어지는 일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직위원장 각산 스님은 "전세계에서 성자로 추앙 받고 있는 각국 고승들이 세계 최초로 한자리에 초대한다. 국내외 3000여 사부대중이 동시에 참가해 세계 최고수 명상스승들이 일주일간 명상교육과 집중수행을 지도할 예정이다. 일종의 명상 올림픽으로 각각 다른 수행방법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온 세계 최고의 수행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행사"라며 취지를 설명한다.

이번에 방한하는 명상 성자들은 태국불교의 전설이자 아라한으로 추앙받는 아잔간하 스님을 비롯해, 캠브리지대의 세계적 명상스승인 아잔브람 스님(호주), 중의학의사를 겸한 중국 최고의 선승인 소운대종사, 서양 최초의 티베트 고승인 툽텐갸초 스님, 대만의 세계통합불교운동의 선구자 심도선사, 미얀마 최대의 수행센터인 마하시 명상센터의 최고 명상스승인 우 자띨라 사야도 스님,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 선승인 혜국 스님이 참여한다.

태국 아라한 아잔간하 스님 등
명상 힐링캠프 · 수계법회 진행
부산 · 대구 등서 강연도 개최

특히 아잔간하 스님은 태국의 아라한으로서 45년 동안 신문 TV 등의 언론은 전혀 접해보지 못한 전설적 숲속의 은둔수행자다. 세계명상계의 최고봉이었던 아잔 차의 직계제자이면서 조카이기도 하다.

중국을 대표하는 간화선의 대가 소운 대종사는 근대 중국 선불교의 중흥조인 허운대사의 10대 제자로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존경과 예우를 갖추고 친견한 선사다. 대만을 대표하는 심도 선사는 간화선과 함께 위빠사나를 함께 지도하는 세계통합불교의 선구자로 50만 명의 재가 제자와 수백 명의 출가제자를 세계불교박물관을 운영하며 매년 7만 명이 참여하는 수륙제를 개최하고 있다.

7월 18일~25일 강원도 하이원리조트에서 진행되는 '명상힐링캠프' 는 7대 성자들의 법문과 걷기명상 좌선 등이 펼여진다. 조직위원으로 참여하는 인경 스님(한국명상심리학회장)은 "현대사회를 하이테크 시대라고 한다. 개인이 소외되고 메말라가는 요즘 하이터치 즉 정서적 감동이 필요한데 명상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행사는 현대불교를 새롭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각각 다른 수행체계를 가진 각국의 대표 수행자들이 한자리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7월 25일에는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세계 7대 성자 수계법회가 이어지며, 7월 26일 부산과 7월 27일 대구에서도 강연회가 열린다.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힐링서울! 세계7대성자 명상토크' 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전 신청자들은 7명의 성자들에게 수계를 받을 수 있다. (www.worldmedition.or.kr) (02)451-0203 정혜숙 기자

카톡에서 동자승 이모티콘을 만나다

조계종 포교원, '반야의 야단법석' 출시

불교 최초 이모티콘 주목

익살스러운 동자승과 절냥이(절고양이)를 스마트폰 메신져를 통해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지난 부처님오신날인 5월 25일을 전후로 카카오톡에 동자승 이모티콘 '반야의 야단법석(이하 반야)' 을 출시했다.

불교 최초 이모티콘인 '반야' 는 사랑스러운 24종의 동자승 캐릭터와 절냥이를 담고 있다. 총24종으로 구성된 이모티콘에는 10~30대의 취향을 반영해 귀엽고 유머스럽게 꾸며졌다.

캐릭터 개발을 대학생 그룹인 극동대 미디어 콘텐츠과 권주미 씨 등 9명으로 구성된 'TEAM_BANYA' 가 만들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출시를 기념해 6월 중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벤트 공지는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포교원은 " '반야' 의 귀엽고 친근한 이모티콘은 어린이. 청소년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대중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불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반야' 는 사랑스러운 24종의 동자승 캐릭터와 절냥이를 담고 있다. 총24종으로 10~30대의 취향을 반영해 귀엽고 유머스럽게 꾸며졌다.

진흥원 화요열린 강좌에 신준환 교수 초청

'나무 통해 세상을 보다' 주제

재)대한불교진흥원이 신준환 동양대 교수(前국립수목원장)를 초청 6월 16일 오후 7시 마포다보빌딩에서 6월 화요열린 강좌를 진행한다.

'나무를 통해 세상을 보다-미래를 열어줄 지혜의 원천, 나무의 모든 것' 을 주제로 하는 이번 강좌에서는 △나무의 인생학 △나무의 사회학 △나무의 생명학 등에 관한 내용이 강연으로 펼쳐진다.

신준환 교수는 서울대 산림자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 국립산림과학원의 임업연구사를 시작으로 2014년 국립수목원 원장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공직에 몸 담았으며 현재는 동양대에서 산림비즈니스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지금까지 생물다양성, 장기생태, 전통산림지식 연구에 매진해왔으며, 1992년부터 2000년대까지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관련 국제회의에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 참가했다. 저서로는 〈자연의 향기 속으로〉(공저), 〈한국의 전통생태학〉(공저) 등이 있다. (02)719-2606 신성민 기자

학담 스님, 원효사상서 현대 해법 찾는다

'원효의 생애와 사상' 강좌



최근 〈한 권으로 읽는 아함경〉을 출간한 학담 스님(사진)이 '한국사상의 정점, 원효의 생애와 사상' 을 주제로 10회에 걸쳐 무료 강좌를 진행한다.

강좌는 6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경기도 파주출판단지 내 한길사 사옥에서 열린다. 1~3강은 원효의 생애, 4~5강은 원효불교에서 화쟁과 회통, 6~8강은 원효불교에서 참회정신과 실천윤리, 9~10강은 오늘의 역사와 원효 불교를 주제로 진행된다.

강좌를 기획한 한길사는 취지문을 통해 "원효는 회통(會通)의 정신으로 투쟁과 갈등의 역사를 비판하여 아무도 빼앗기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통합의 세계를 건설하고자 했다"면서 "오늘날 분단의 역사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광란의 현실 속에서도 원효불교 그 화쟁과 회통의 정신이 역사의 새벽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신청은 한길사 홈페이지(www.hangilsa.com)나 전화로 가능하다. 031-955-2008 신성민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유사 포교당(포교원)의
상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근래 특정 사찰의 포교당(포교원)을 빙자하여 천도재 및 위패, 수의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많아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종단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불자들을 기망하는 행위가 빈번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상적인 포교당(포교원)은 불자들이 여법하게 신행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천도재 및 위패 등을 상품처럼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사 포교당(포교원) 사례를 참조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 노인을 위주로 방문을 유도하며 생필품 등의 선물을 무료로 나눠주는 포교당
• 단기간(수개월)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되는 포교당
• 법회, 예불 등의 기본적인 의식 없이 노래, 만담 등의 유흥 위주로 운영되는 포교당
• 법문 시 지나치게 영가천도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포교당
• 스님 없이 운영되거나 재가자가 점장, 부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는 포교당
• 과도한 천도재 및 위패, 수의 비용을 요구하거나 할부 등 분납을 강조하는 포교당
• 천도재나 위패, 수의에 대하여 가족과 상의를 하지 못하게 하는 포교당

※종단 소속 승려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포교당의 경우 종단의 조사나 행정지도가 불가합니다. 유사 포교당의 상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단 소속 여부에 대한 문의는 총무원 총무부나 호법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세 영

이젠 복지관서 클래식 듣고 역사 공부도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인문학 강좌 개설 '눈길'

그 어느때보다도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즐겁고 풍요로운 노후를 열망하는 어르신들 또한 인문학 공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요즘이다.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어 종로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인문학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목된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6월 1일부터 '명화 속의 음악' 을 개설했다. 60세 이상 30여 어르신이 매주 월요일 명화와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는 예술융합교육으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첫 수업은 '밀레' 의 이삭줍기와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 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어르신들이 소감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명화 속의 음악' 은 스토리텔링기법과 라디오 프로그램에 음악 신청, 명화 엽서 속 편지쓰기 등 참여 유도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참여자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한다.

6월 중순에는 평균 연령 74세의 노인들로 구성된 연극단 '대학老愛' 가 발족한다. 2011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연극단 '대학老愛' 는 대학로에 위치한 복지관의 지리적 특성을 담은 명칭이다. 지역사회에 노인 전문 연극단원들의 활동을 알리고 연극, 교육, 문화, 언론 기관 등과의 MOU 체결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연극단으로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초창기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미(72세) 어르신은 "처음에는 연극이 뭔지 모르고 시작했는데 내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남 앞에 나서지 못하는 소극적인 성격이었는데 매번 무대에 올라 남들 앞에서 대사를 읊고 감정을 전달하다보니 지금은 자신감이 많이 생겨났다"며 연극단 참여 소감을 밝혔다.

또한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한달간 '잃어버린 고대사를 찾아서' 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익히 알고 있던 역사 지식을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는 이 강좌는 '잃어버린 한국고대사 연구회' 홍순주 박사가 강사로 나서, 단군조선과 홍익인간 사상 등에 대해 강의한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박혜영 과장은 "어린 시절 학교 수업을 통해 배웠던 역사에 대해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많았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가장 뜨겁다. 이전과 다른 역사 해석에 대해 공감하고 못하고는 참석자들의 몫이나 이러한 역사 이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존 복지관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되어 새롭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며 참관 소감을 밝혔다. 종로노인복지관은 하반기에는 '삼국시대' 등을 주제로 하는 강의도 준비 중에 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을 위한 문화, 예술, 인문 프로그램 등을 개설해 신노인 문화 창출에 앞장설 예정이다. (02)742-950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신노인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연극단 '대학老愛', 오른쪽은 '명화속의 음악' 강좌 장면

6월부터 명화 속의 음악 개강
연극단 '대학老愛' 발족 예정
역사 강좌 남성 어르신 호응 커

이천시장애인복지관 한국민속촌 관람

5월 29일 진행…성인 장애인 42명 참여

이천시장애인복지관(관장 희광스님)은 지난 5월 29일 장애인 회원 42명과 함께 경기도 용인 한국민속촌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천장애인복지관은 "이번 나들이는 성인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자기결정권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되었으며, 나들이를 위해 사전 설문조사 및 장애인 당사자 참여회의를 통해 사업을 계획했다"며 그간의 과정을 전했다.

나들이에 참여한 성인장애인들은 사물놀이공연, 줄타기, 마상무예 등의 공연관람과 조선시대 마을을 모습 관람 등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를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평소 거동이 불편해 도움이 필요했던 장애인 회원들은 나들이를 위해 도움을 준 후원가족, 자원봉사자 가족에게 "날씨만큼이나 행복한 하루가 되었다"는 소감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12명, 복지관 직원 7명이 함께했다.

이천시장애인복지관은 하반기에도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기결정권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가을 나들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혜숙 기자



이천시장애인복지관 회원들이 한국민속촌을 관람했다.

불교적 가족상담 지도자교육 참가자 모집

조계종사회복지재단 6월 19일~21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스님)이 6월 19일~21일 2박 3일 동안 중앙승가대학에서 진행하는 '불교적 가족상담 지도자 교육' 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사찰 신도들을 대상으로 상담 기회가 많은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스님들의 가족상담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기획한 이 교육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각 가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가족문제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법을 교육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불교사상에 입각한 전문적 상담도 지원한다. 한겨레상담센터 전문 강사진들과 연계해 전문성을 강화한 교육에서는 집단상담을 주제로 한 이론과 실습을 다룰 계획이다.

강사로는 강숙정 한겨레상담센터 소장과 손영미 부소장 등이 참여하며 교육은 △자기이해 타인이해-에고그램 체크 △자기분석을 통한 자기이해 △집단상담과정 △집단 속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공동체의식 배양 △공감대화 이론 및 실습 △자기와 타인의 공감적 이해 훈련 △인간관계 소우주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조계종 교육원 연계 과정을 수료한 참가자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조계종 교육원 연수교육 이수와 동등한 17시간 인증, 30점이 부여된다.

사찰 주지스님 등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 공감대화 등 강의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신도들과 자주 상담하는 전국 사찰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가족문제에 적용 할 수 있는 상담 이론과 실제 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상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02)723-5101

정혜숙 기자

대학생자원봉사단 프로그램 공모사업 실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올리사랑' 진행

접수기간은 7월 3일까지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화)에서는 대학생 봉사동아리 및 단체를 대상으로 2015년 대학생 자원봉사단 공모사업 '올리사랑' 을 진행한다.

서울 · 경기 · 인천 등지의 대학교 봉사동아리 및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7월 3일까지다. '올리사랑' 은 지역사회 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직접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1개 대학생 봉사 단체에게는 100만원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되며, 활동에 따른 자원봉사 인증서와 수료증 발급 및 사회복지 회계교육을 비롯한 사회복지 현장 실천 기회가 두루 제공된다.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대학생 자원봉사단 지원사업 '올리사랑' 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생 자원봉사 문화를 조성하고 대학생 자원봉사단의 역량강화 및 신진양성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 내 대학생 자원봉사단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창의적이고 건전한 대학생 자원봉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031)919-8677

정혜숙 기자

靈鷲叢林 通度寺 老天門徒會
문도스님들께 드리는 글

삼가 맑은 차 한 잔을 올립니다.

종문(宗門)의 선지식은 발심과 화두간택, 인가 및 사법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선문단련설(禪門鍛鍊說)에 나타난 선지식의 역할은"납자의 화두를 간택해주며, 선교방편으로 대중을 분발시켜야 하며, 조사관을 타파하고 안목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총림방장에 대해 일러주고 있습니다. 통도사는 1984년 영축총림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통도사가 총림으로 지정되기까지 근현대의 한국불교와 승단을 이끌어 오신 네 분의 선조사(先祖師)스님들이 계셨습니다. 구한말 큰 스승이셨던 성해대종사께서 근대 산문을 구하 · 경봉스님에게 열어주셨고, 그 법통을 사자상승한 월하 · 벽안스님이 選佛의 法杖을 세워 오늘의 한국불교 최대수행기관이 되었습니다.

영축총림 방장 원명대종사께서는 제29대 통도사 주지는 노천문도회에서 추천하라는 말씀을 금년 초부터 하셨습니다. 그 말은 "방장의 주지 추천을 문도회에 위임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문도회장인 성파스님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문도들의 뜻을 묻지 않았고, 주지 후보자에 대한 일체의 논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천타천으로 몇 명 스님이 주지 후보로 거론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5월 13일, 제28대 주지임기를 15일 정도 남기고 정변전 방장실에 세 분 스님(방장, 성파, 원산)이 모인 자리에서 성파스님은 상좌인 우학, 동진스님을 주지로 추천(방장스님이 거부하였음)하였고, 원산스님이 도문스님을 주지로 추천하였다는 말과 도문스님이 방장스님을 찾아가 주지 추천서를 써줄 것을 요구한다는 말이 총림대중에게 전해 졌습니다. 이에 노천문도들은 저간의 사정을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다음날 성파스님께 주지추천에 대한 강력한 이의제기와 문도회 상임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천문도회는 방장스님의 고유한 뜻을 봉대해야 한다." 는 문도스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파스님은 15일 오후 4시 보광선원에서 문도회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상임위원스님 16명 가운데 12명(성파, 혜남, 현문, 정우, 성림, 재원, 천진, 산옹, 중선, 태봉, 상우, 오심)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성파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13일 있었던 주지추천 문제는 나의 불찰이었다. 라고 사과하고 허심탄회하게 처음부터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이에 따라 상임위원들은 노천문도회를 소집해서 문도총의로 주지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 소집공고문을 현문스님이 일독하고, 성파스님은 문도회 안건과 공고문 자구까지 함께 수정하였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성파, 현문, 정우스님이 비로암으로 올라가 방장스님께 상임위원회의 회의결과와 문도소집 공고문을 말씀드리고, 불교신문에 노천문도 소집공고문을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5월 16일부터 성파스님의 입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문도총회에 참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문도회 소집권(門長 초우스님 명의로 되어 있었음)이 문장이 아닌 문도대표회장에게 있다. 초우스님은 의식불명 상태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다."며 스스로 상임위원회에서 공고문을 일독하고 수정 통과시킨 문도회를 '불법(不法)' 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현문, 정우, 산옹스님이 서운암에 올라가 성파스님에게 총림안정과 문도화합을 위해 회장으로서의 이해와 판단을 구하였으나 결과는 허사였습니다. 5월 26일 현문, 정우, 산옹, 오심스님을 비롯한 대중들이 문장(초우)스님을 문병 갔을 때 스님은 병석에서 일어나 앉으시며 대중들을 맞이하셨고,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안부도 물으시고 총림현안도 하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파스님이 회의에 참석하겠다고는 하였지만,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성파스님이 회의에 불참하면 상임부회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현문스님이 문도회의를 주재하라."는 가르침과 함께 위임장에 서명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오후 2시 통도사 보광선원에서 「제29대 통도사 주지 후보 의 건」으로 노천문도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점명부에 서명한 문도스님만 148명이었고 주지후보 추천서에 서명한 중진스님도 많이 계셨습니다. 문도회장 성파스님은 끝내 회의에 불참하였고, 회칙 차순에 의해 현문스님이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경과보고가 시작될 즈음 성파스님 상좌 2명은 "문도회 소집은 불법"이라는 발언을 한 후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돌발행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석대중들은 「주지 후보자의 건」이 상정되자 산옹스님을 단독후보로 추천하고, 참석대중 만장일치로 통도사 주지후보로 선출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에서 문도회장이기를 포기한 성파스님의 책임을 묻는 문제가 거론되기도 하였으나 화합을 이루자는 중진스님의 뜻을 존중, 제안자가 스스로 철회하고 문도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5월 27일 문도회에서 주지후보자를 선출하고 방장스님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회장단과 상임위원스님들은 방장스님 주석처인 정변전(방장실)과 비로암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방장스님은 "5월 25일 오후 2시 산문을 나가신 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소임자와 시자들의 답변이 있었고, 30일까지도 주지 후보자를 선출했던 노천문도회 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오전 11시 총무원에서는 제29대 통도사 주지로 영배스님을 임명하였습니다. 산문 밖 저자거리에서 찍은 도장이라도 방장 추천서에 의한 임명이었습니다. "노천문도에게 주지후보를 추천하라" 해놓고 잠행한지 6일만의 모습이고 결과였습니다. 소식을 접한 문도대중은 참으로 황망하였으나, 제29대 통도사 주지로 부임하는 영배스님에 대해서는 총림발전을 위해 정진하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천문도회원 스님.

영축총림 방장은 영축총림이어야 하고 통도사가 되어야하며, 살아있는 부처가 되어야 합니다. 방장은 종신제가 되어야한다는 산중의 큰 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방장스님과 원로스님은 스스로 어른의 자리를 포기하고 특정문도, 특정상좌를 주지로 내세우기 위해 문중간, 문도간, 좌차간의 불신을 조장하며 총림을 파행으로 몰아갔습니다. 4년 전에도, 4년 후에도 주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방장은 고유직무를 포기하고 오로지 주지 추천권만을 행사하기 위해 위선과 거짓, 잠행만을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총림대중은 분노하고 있으며, 어른스님에 대한 기대를 버렸습니다. 수행납자로서 가슴 저미는 통한의 슬픔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먼저가신 어른스님들의 보살핌과 가르침으로 이렇게나마 성장할 수 있었는데, 후학들에게 무엇으로 그늘이 되어주고 가르칠 것인지. 부끄럽고 창피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금번 노천문도대중은 생사의 수행결사체인 영축총림 통도사가 부종수교의 큰 뜻과 총림설치의 근본이념을 다하지 못하고 愚를 드린데 대하여 제방스님들께 참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천문도는 오늘을 시작으로 선조사스님들의 유지유훈을 수행근간으로 출가본연의 자리에서 영축총림 위상회복을 위해 가일층 정진할 것이며,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고 소리치는 대중공사를 통해 총림을 바로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방 수행처에서 영축산문을 일으켜 세우고자 노천문도총회에 참석하여주셨던 문도스님들의 숭고한 뜻에 거듭 존중과 사의를 드리며,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삼가 이 글을 올립니다.

佛紀 2559(2015)年 夏安居 結制日

靈鷲靈鷲叢林 通度寺 老天門徒會

상임부회장 玄門, 부회장 頂宇, 주지후보자 山翁, 문도회 총무 悟心 合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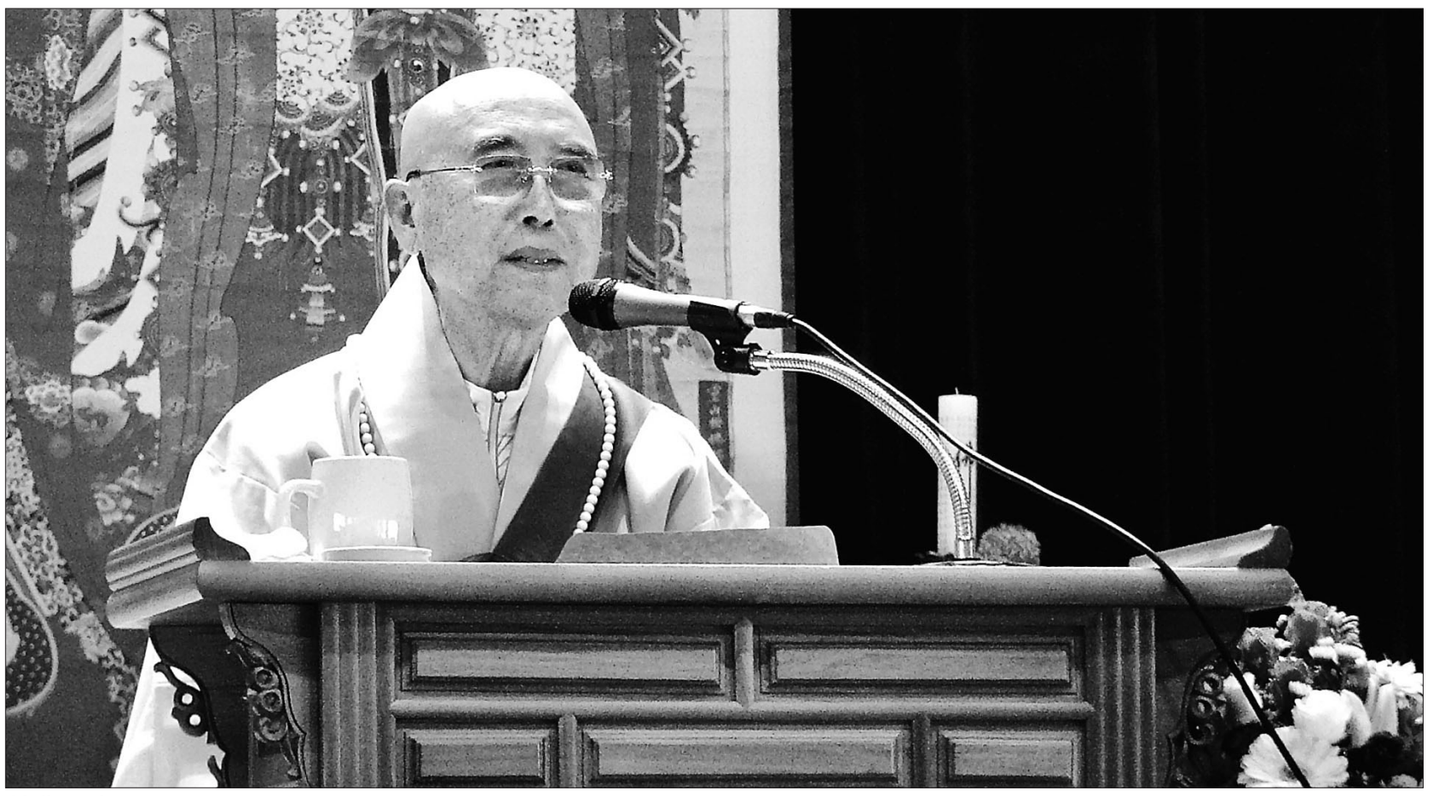
“온 중생 마음자리에 불성 있어… 모두가 부처”

금정중학교 봉축법회

선래 스님(부산 법륜사 회주)

‘일체유심조(一體唯心造)’는 만물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으로 부처님께서 평생 설하신 가르침의 핵심이다. 모든 중생은 마음자리에 성품(性品)이 있으며 이 성품은 모든 고뇌를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라는 뜻이다. 법륜사 회주 선래 스님은 5월 19일 부산 금정중학교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에서 부처님 본생담(전생)을 통해 석가모니 가르침의 핵심을 설파했다. 선래 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단순히 연중행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오신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 모두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다시 태어나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가 부처님처럼 법을 구하기 위한 절실함을 갖는다면 마음에서 비롯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했다.

정리=박아름 기자



선래 스님은 … 1958년 출가해 1960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70년대에는 총무원 재정국장과 사회국장 및 의성 고운사 주지를 역임한 바 있으며 1981년부터 1997년까지 범어사 동래포교당 주지를 거쳐 현재는 부산 법륜사 회주로 주석 중이다.

부처님 탄생의 의미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내가 가장 존귀하다.”

부처님께서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시자마자 동서남북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 의미를 해석해보면 모든 중생들이 부처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는 유심조라. 모든 것은 모두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가르침을 연계해보면 모든 중생들에게는 참 마음 자리라는 근본 불성이 있어 모두의 마음 바탕에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불성의 존재는 가장 높고 귀한 것입니다. 불성은 생로병사도 없고 괴롭고 슬프고 남을 해치는 악한 마음도 없습니다. 본래가 원만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부처님 오신 날은 그저 연중행사로만 축하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처님의 근본가르침을 마음속에 일깨워 불성을 개발하고 그 속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자신이 불행할 것도 없고 남을 불행하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대자대비 크게 사랑하고 크게 연민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요즘 시대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폭력입니다. 선생님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고 익힘으로써 모두가 아무런 문제없이 서로 사랑하고 돕고 응원해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지금으로부터 2639년 전 인도 카필라국 정반왕궁에서 싯타르타 태자로 태어났습니다. 부처님의 본생담인 전생이야기를 살펴보면, 모든 부처가 부처님이 되기 전에 보살이 되는 시기를 도솔천에서 맞이하셨습니다. 보살은 우리가 알다시피 중생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수행자를 일컫는 말이지요. 또한 도솔천은 모든 보살이 마지막 큰 깨달음을 얻기 전에 머무르는 하늘 세계입니다. 부처님은 과거 무수한 생을 다양한 보살의 모습으로 살아오시면서 한없는 원력으로 수행을 쌓다가 도솔천이란 하늘 세계에서 호명보살로 탄생하셨습니다. 이때에 장차 큰 깨달음을 이룰 인연을 찾다가 제석천왕에게 하생할 곳을 살펴보라 일러 인도 정반왕궁에 태어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어머니 마야 왕비는 싯다르타를 잉태할 때 6개의 이를 가진 흰 코끼리가 왕비의 우측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마야 왕비는 얼마 후 출산할 달이 되어 그 나라의 풍습대로 친정인 콜리성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 룸비니동산이라는 곳에서 쉬려고 하니 무수 꽃이 향기를 품고 있는 나뭇가지를 잡는 순간 옆구리에서 싯타르타 태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부처님은 신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 역사적 인물로 실존하신 분입니다. 중생들이 훌륭한 근본 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다투며 사는 것이 안타까워 중생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부처님께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귀의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활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여섯 가지의 바라밀이 있습니다. 일생동안 살아가며 그것만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나와 남을 이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시 · 지계 · 인욕 · 정진 · 선정 ·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진리 추구에 절실하라

오늘날 우리 불자들은 스스로 많은 모순을 낳고 또 안고 있습니다. 대단한 자신감과 넘치는 환희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채 방황하고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처님은 잘못알고 부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처님을 신격화 하지 말고 그 근본을 바로 알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생활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량없는 수행을 쌓아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설산동자’로 수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로지 깨달음만을 위해 정진하셨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욕심을 따라가는 생각만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지면 안된다 등 탐욕에 젖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곤 합니다. 하지만 설산동자는 항상 깨달음에 대해서만 생각하셨습니다.

하루는 설산동자께서 누군가 게송을 읊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게송의 내용은 ‘제행이 무상이라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덧없는 것이다. 한 가지도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없다’ 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생로병사로 변해가며, 무생물체는 만들어지고 사용된 후에 허물어져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무상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불자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설산동자가 이 게송을 누가 읊었나 두리번거리며 찾아보니 멀지 않은 곳에 아주 험하게 생긴 나찰귀신(사람을 잡아먹고 사는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에게 게송을 끝까지 마무리해주기를 청하니 나찰 귀신은 배고파서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내 식량으로 가져오면 게송을 마저 들려주겠다하여 설산동자는 “마저 게송을 읊어주면 내가 내 몸을 주겠다” 했습니다. 설산동자의 목적은 단지 깨달음일 뿐이니, 오직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목숨도 기꺼이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나찰 귀신이 나머지 게송을 읊기를 “생멸멸이(生滅滅已) 적멸위락(寂滅爲樂), 나고 죽음이 다 사라지고 나면 정멸이 낙이라 고요한 열반의 기쁨을 누리리라”하였습니다. 모든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참 마음 자리로 돌아가면 죽음이 사라지고 비로소 생로병사 없는 고요한 열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설산동자는 이 게송을 다 듣고 후대에 이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 손가락을 깨물어 바위에 피로 새겼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나찰 귀신에게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몸을 던지는 순간 나찰귀신이 부처님을 섬기는 ‘제석천’으로 변하였습니다. 이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며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졌고 이 광경을 지켜본 모든 천신과 대중들이 설산동자의 지극한 구도정신에 감동하여 그 발아래에 엎드려 공경했다고 합니다.

> “
> **불성의 존재는 가장높고 귀한 것**
> **원망 슬픔 악한마음 등 존재치 않아**
> **본래가 원만해서 아무 부족함 없어**
>
> **‘제행무상’의 진리 마음속에 새기며**
> **해탈위해 목숨버릴 수 있는 대원력으로**
> **진리좇아 끊임없는 가행정진을 하자**
> ”

우리는 이 가르침을 하나의 경전 구절으로 흘려들을 것이 아니라 항상 머릿속에 ‘제행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항상 변화하고 있다’ 는 것을 자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법을 구하는 간절함과 절절함을 통해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나는 이 여덟 글자와 내 몸을 바꿀 수 있을까?’ ‘나는 소중한 내 몸이 헌신짝처럼 버려진대도 깨달음을 갈구할 수 있을까?’ 를 자신에게 되물어 보십시오. 요즘은 가만히 앉아서도 많은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행복을 위해 진리를 찾는데 한 순간도 소홀히지 않아야 합니다. 나고 멸하는 것이 모두 없어진 후에 자신의 마음속에 근본 불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게송 한 구절만 배우고 알고 실천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성불 원력은 극락세계를 만든다

연등 부처님이 탄생한 당시에 부처님께서 오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 온 나라가 등불을 켜고 부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난한 여인이 등불을 켜서 부처님 오심을 함께 축복하고자 하였으나 가진 것이 없어 등불을 켤 기름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냥으로 얻은 동전 세 닢을 가지고 기름 가게에 가서 기름을 구하려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사정을 들은 그 기름장수가 여인의 마음에 감동을 하여 기름 한 종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오실 때 비로소 등을 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난 존자가 부처님이 주무셔야 하기 때문에 등불을 모두 끄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등불을 다 끄고 마침내 여인의 등을 입으로 불어 끄려고 했으나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등불은 대단한 원력으로 켜진 것이기 때문에 입으로 끌 수 있는 등이 아니다. 이 등불의 주인은 다음 생에 성불을 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 등불을 켜며 우리의 소원을 빌지만 그에 앞서 성불하고자 하는 커다란 원력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살기 좋은 아름다운 극락세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뜸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편안하게 배에 차기만 하여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허리를 튼튼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해줍니다.

이열치열 : 여름철은 뱃속이 더욱 냉합니다. 본제품 사용으로 뱃속의 냉기를 몰아내면 배탈없이 건강하고 상쾌한 여름을 보낼실수 있습니다.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금강약돌 헬스온열복대는 금강약돌 바이오세라믹 육각거북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하여도 화상 없이 신체 깊은 곳까지 강력한 원적외선 이 방사되어 원적외선“열침”을 맞는 효능으로 쑥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 다 복대를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숙변배출효과 스트레스성 대상증상.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 관절, 전립선, 혈액순환 조절, 산후조리 오로배출효과 , 소화불량, 숙취, 체질개선, 등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냉대하등을 자연치유 시키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시간 사용시 하복부에 탄력를 주는 다목적 뜸온열밸트입니다.

온열복대 사용후 : 일주일 정도는 평상시 보다 대소변의 양이 늘어납니다.

문의전화_ 02.723.0092 입금계좌_ 국민 095037-04-002448 금강의료기

“구제품을 가지고 계신 교우님께서는 보상판매를(신제품교환) 받아 사용하세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설법전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8:3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불교, 한국인의 心性에 깊은 영향"

한국불교사연구소, 개소 10주년 기념 세미나서

불교 전래 이후 한국인들의 국가관, 윤리관, 생사관, 예술관 등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집중 조명하는 학술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는 5월 30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불교 전래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개소 10주년 기념 및 제10차 집중세미나를 개최했다.

국가관 '승가제도 통해 국가체제 정비'

윤세원 인천대 교수는 '불교가 한국인의 국가관에 끼친 영향'에서 "신라의 통일 원동력에는 '전륜성왕사상의 제도화'가 있었다"며 "정치적으로는 호국불교, 종교적으로는 '계율'로 대변되는 승가의 제도화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특히 "신라의 불교정치사회사상은 이런 제도화 과정을 통해 통치자가 권력을 담용하거나 타락할 위험성을 방지하는 윤리적 자기성찰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며 "승려 개인이 아닌 승가가 집전하는 의례를 통해 왕을 비롯한 지배계층에 부여되기에 승가와 지배계층 모두 모범을 보이는 것이 선행조건이었다"고 말했다.

윤리관 '불교전래로 후천 노력 중시'

남무희 국민대 국사학과 교수는 '불교가 한국인의 윤리관에 끼친 영향'에서 "불교는 무교신앙을 대체했는데 당시 현실의 삶이 내세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사상을 가진 무교와 달리 불교는 현세의 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한국 사상 전반의 불교영향 고찰
국가 · 생사 · 윤리 · 예술관 조명
"불교 전래로 한국문화 발전"

남 교수는 "이를 통한 윤리관의 정비로 고대 국가체제를 정비할 수 있었기에 전래 초기 불교는 상위계층에게 더 선호 받았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또 "오늘날 불교의 업과 무속신앙의 사주팔자를 분간하지 못하거나 업을 숙명론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불교의 업은 무속신앙의 사주팔자와는 다르며 후천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이러한 모습은 한국인의 윤리관에 영향을 강하게 미쳤다"고 말했다.


윤세원 교수


남무희 교수


고영섭 교수


장재진 교수

생사관 '정신의 규명이 이타적 삶으로'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불교가 한국인의 생사관에 끼친 영향'에서 "불교는 자기행위의 주체가 자기자신임을 역설했다. 이는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 세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열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육체는 소멸해도 정신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불교의 내세관은 현실의 삶에 대한 긍정과 이타적 베풂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다"며 "하늘 중심의 무속사상에서 인간 중심의 불교사상을 통해 능동성과 주체성을 갖게 됐으며 이는 사회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예술관 '화엄과 법화의 종교성은 예술'

장재진 동명대 불교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불교가 한국인의 예술관에 끼친 영향'에서 "샤머니즘, 유불도의 반영에서 불교만의 영향을 꼽기란 힘들지만 팔관회와 풍류사상 등은 다분히 불교적인 요소였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예와 효가 반영된 〈부모은중경〉과 같이 다양한 한국인의 예술미학과 창작물에 반영된 것은 불교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동시긍정과 부정의 논리가 있으며 화엄과 법화 등의 색채가 예술과 상보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근대사 대표적 신여성 '일엽 스님' 조명

김일엽문화재단, 6월 12일 한서대서

한국 근대사의 대표적인 신여성으로 꼽히는 일엽 스님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일엽 스님은 1세대 여성작가이자 개화기의 여성운동가로 활동했다.

김일엽문화재단은 일엽 스님〈사진〉의 탄신일(6월 14일)을 앞둔 6월 12일 한서대에서 제1회 김일엽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오늘, 왜 김일엽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방민호 서울대교수의 '김일엽은 누구인가' △유진월 한서대교수의 '김일엽과 콘텐츠 활용 방안' △박진영 아메리칸대교수의 '김일엽, 여성과 불교철학' △김광식 동국대 교수의 '김일엽 불교의 재인식' △김주리 한밭대 교수의 '김일엽 문학의 연구방향에 대한 고찰' 등이 발표된다.

재단은 앞으로 영문판 평전과 전집을 출간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기념관 건립, 근대여성문학관 건립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평남 용강에서 목사의 딸로 태어나 한국과 일본에서 신학문을 수료한 스님은 1920년대 〈신여자〉를 창간하고 〈신



정조론〉과 〈자유연애론〉으로 대표되는 여성계몽운동을 전개해 당시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여러 번의 결혼과 동거 등을 거친 후 1933년 만공 스님 문하로 출가했다. 입산 후 절필하고 비구니 총본산인 견성암의 입승(入繩)직을 30여 년간 맡아 참선수행으로 일관했다.

만년에는 덕숭산 수덕사 산내암자인 환희대에서 머물며 대중포교를 위해 〈어느 수도인의 회상〉과 〈청춘을 불사르고〉 등을 펴내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성철 스님, 불교근대화에 한국적 방법 제시"

황순일 동국대 교수, '퇴옹 성철' 세미나서 주장

금강경과 반야심경이 조계종 소의경전이 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서구 불교학 전통을 한국적으로 해결하는 성철 스님에 근대화 과정이었다는 입장이 제기됐다.

황순일 동국대 교수〈사진〉는 한국불교학회(회장 권탄준)가 6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퇴옹 성철의 불교전통 계승과 현대 한국사회'에서 "성철 스님에게있어 중도는 서구 불교학 전통을 한국적으로 해결하는 한국불교의 근대화 과제였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중도와 한국불교의 근대성' 발표를 통해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붓다에 의해서 써여졌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불교 문헌들에게 대한 근대적 문헌학적 연구성과의 결과"라며 "성철 스님은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중도를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으로 보고 비록 역사적인 붓다가 직접이야기하지 않았더라도 후대에 발전한 교리가 중도에 부답된다면 불설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이어 "백일법문은 불교교학 전체를 중도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불설로 확정하려는 하려는 성철스님의 간절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성철 스님은 한국불교의 근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사이면서도 불교교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중도를 통한 불교사의 재해석을 통해 대승불교 경전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한국적인 해결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대사회에서 선사의 산중담론 혹은 법어가 가지는 의미' 발표를 맡은 석길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교수는 성철 스님이 근현대 강조한 것은 참스승으로 종교인들이 자리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 교수는 발제에서 "성철 스님의 법어와 산중담론은 참스승, 불공하는 승려상을 강조했다"며 "스님은 불공은 밖에 나가서 해야 하며 남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참선과 화두 깨치기를 통한 수행의 결과를 회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석 교수는 "사회의 정신적 측면을 담보하는 종교인이 스승으로서의 길라잡이로 기능한다는 승려상"이라고 주장했다.

노덕현 기자

"마음 탐구, 뇌 뿐만 아닌 몸 네트워크 봐야"

동국대 · 중앙승가대, '불교와 뇌과학' 국제학술대회

불교의 수행과 뇌의 변화를 탐구하는 뇌과학은 최근 불교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과 중앙승가대 산학협력단이 5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와 뇌과학'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마음 탐구를 뇌연구에만 국한하지 말고 신경을 비롯한 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먼저 구마노 히로야키 일본 와세다대 인간과학학술원 임상심리학 교수는 뇌기능영상(fMRI) 촬영을 통해 오랜기간 명상을 한 이와 일반인의 뇌 활동을 비교했다.

구마노 교수는 "장기명상자의 경우 감정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서조절이 가능하다"며 "전두전야에 의한 제어가 아닌 자극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감정을 조절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마노 교수는 "머리 안에 있는 뇌만이 전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몸 안의 광범위한 신경 네트워크까지 모두 뇌의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철 동국대 교수도 "두뇌활동을 통해 마음을 탐구하는 유물론적인 뇌과학 연구에서 신경네트워크에서의 마음탐구로 연구 방법이 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뇌에 국한돼 풀지 못한 문제를 풀수 있다"고 말했다.



위에지엔동 중산대 철학연구소 교수는 '선 수행 관점에서 뇌과학 연구 성찰' 발표에서 "서양 중심의 뇌과학 연구가 자연과학 현상에만 그치고 있다"며 "이는 선 수행을 심신건강을 위한 처방으로만 바라보게 하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에지엔동 교수는 "불교 수행은 현재 과학에 의해 연구되는 인지, 정서, 생리보다 훨씬 넓은 범주"라며 "뇌 활동 측정은 마음의 작용을 대변하지 못한다. 선 수행은 과학의 탐구영역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금강대 제4회 한·중·일 국제불교학술대회

〈대승기신론관〉 대한 삼국학자 논란 다뤄

금강대(총장 한광수) 불교문화연구소는 중국 런민대(人民大), 일본 도요대(東洋大)와 공동으로 6월 19~20일 양일간 부여 백제역사문화관에서 제4회 한 · 중 · 일 국제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동아시아 불교에서 대승기신론관'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대승기신론〉이 성립된 이래 담연 · 혜원 · 원효 · 법장을 포함한 많은 논사들의 주석서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2012년 시작한 국제불교학술대회에서는 '동아시아에서 불성 · 여래장 사상의 수용과 변용'(금강대)과 '남북조 시대의 불교사상'(중국)을, 제3회 '동아시아 불교에서 대립과 논쟁'(일본)등의 주제를 다뤄왔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권탄준 소장은 "여전히 많은 논쟁점을 가지고 있는 〈대승기신론〉을 집중적으로 다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경전 번역과 디지털화 성과 조명

티벳대장경역경원, 6월 12일 동국대 경주 백주년기념관서

티벳대장경역경원(원장 진옥)은 6월 12일 오후 2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백주년기념관 5층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의 '한국 근대불교 역경사의 한 단면-용성 금강경 번역과 그 특징', △이방배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의 '티벳대장경 번역어의 선정에 관한 문제', △이재수 동국대 불교문화유산기록사업단 교수의 '불교경전의 제본수집과 번역 그리고 디지털화', △정성준 티벳대장경역경원 전임연구원의 '티벳대장경의 현교와 밀교문헌 비교' 가 각각 발표된다.

논평은 문무왕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배경아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권기현 위덕대 교수, 양승규 동국대 강사가 맡았다.

원장 진옥 스님은 "한국불교 역경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티벳대장경의 번역연구가 여러 대학 연구소와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불교계 선지식들의 많은 동참 바란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단, 98만원에 법당의 앰프 + 대출력 스피커 + 구즈넥 탁상 마이크 등 최고급 신형 장비로 교체해 드립니다.

■ 기간 : 선착순 30개 사찰
■ 신청방법 : 계약금 30% 입금 후 휴대전화로 희망일자 및 주소, 사찰명을 정확히 문자로 보내주시면 예약 순서대로 설치 일자 및 방문 시간은 스님과 협의해 결정 합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15,000원
28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연인원 4만명이 참가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선무도 공연과 함께하는 골굴사 성지순례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변성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공 연 내 용 :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 선무도 지도자 과정 신입생 모집 : 2년 전액 무료 (홈페이지 참조)

◈선무도 공연◈
매일 오전11시 30분, 오후3시 30분(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선무도 수련원◈
· 서울본원(종로) 02)763-2980
· 서울 강남지원 02)599-5554
· 부산지원 010-2554-8100
· 울산지원 052)276-6271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미륵사지 서탑 복원, 6층 부분 vs 전체?

〈문화재청〉 〈지역민〉

문화재청, 부분복원안에 대한 주민 반발에 여론 수렴 나서



문화재청이 진행하는 미륵사지 서탑 6층 부분 복원도

VS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미륵사지 서탑 6층 전체 복원도

익산 미륵사지 서탑 복원이 6층 전체 및 9층 원형으로 되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확산되면서 문화재청이 뒤늦게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주민 의견을 모아 복원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복원방식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문화재청은 5월 28일 익산 미륵사지 서탑 보수정비 현장에서 지역주민, 시민단체, 종교계, 문화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설명회를 갖고 현재 복원 중인 미륵사지 서탑에 대해 설명했다.

미륵사지 서탑은 1998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해체보수정비를 결정한 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맡아 2001년부터 10년에 걸쳐 해체했다.

이후 복원방식은 3년여동안의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기존의 자재를 활용한 해체 이전의 6층 모습으로 복원하기로 결정,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기초 보강공사와 부재료를 가공하는 단계로 복원이 추진중이다.

그러나 9층 규모였던 미륵사지 서탑을 전체 복원하지 않고 6층까지 중 일부만 복원하는데다 복원 후에도 일제시대 시멘트가 덧쒸어진 상태로 복원한다는 계획에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장설명회에서 나선화 청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복원 중인 미륵사지 서탑을 두고 다양한 이견이 있다"며 6층 전체 및 9층 원형 복원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의 결정으로 인한 미륵사지 석탑의 복원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주민 의견을 듣고 잘못된 것은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더불어 "미륵사지 석탑의 복원과 관련된 주민 의견 수렴과 기획이 10년 전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고 기술이 변화 · 발전하고 있는 만큼 복원의 방향 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 청장은 또 "미륵사지와 왕궁리 일대의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미래가치를 공유해야 진정한 세계유산이 될 수 있다"며 "동양의 정신 · 문화특성을 바탕으로 세계인류문명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주민 원형 복원 목소리 높아

'백제 패배의식 지울 기회'

유네스코는 6층 부분 복원 수용

하지만 미륵사지 서탑 보수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김현용 학예사는 지역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6층 전체 복원과 9층 원형 복원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김 학예사는 "6층 부분 복원의 경우 역사성과 진실성을 보존할 수 있으며 원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할 수 있어 복원 수리 전후의 이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6층 전체 복원과 9층 원형 복원에 대해 "저층부 부재의 보존이 불합리하고 신부재 증가로 역사적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삐뚤어진 비대칭형 6층 부분복원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9층 원형 복원을 주문했다.

최행식 마한백제문화유적복원 추진단장은 "익산시민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0%이상의 시민들이 6층 전체 복원 또는 9층 원형 복원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형택 익산시의원은 "15년째 미륵사지 석탑복원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설명회 자리가 거의 없었다"며 "전문가들이 일방적으로 시민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문화재위원 회일 스님은 "백제가 패망의 역사이다보니 미륵사지 서탑 또한 무너진 모습으로 남아있어 안타깝다"며 "복원의 모습역시 무너진 폐허의 모습으로 된다면 미륵사지 석탑은 천년만년 패배의식을 재생산하는 상징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재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이러한 주장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부분 복원이 아닌 6층 전체 복원이나 9층 원형 복원으로 변경할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조건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 국제 기념물 유적협의회)는 5월 4일 문화재청이 제출한 6층 부분 복원안을 세계문화유산 등재조건으로 수용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최종적인 세계유산 등재는 오는 6월 28일부터 열리는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위원국(21개국) 합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수계의식과 결합한 이체로운 성년의식

대학생들을 위한 불교식 성년의례가 개최돼 눈길을 끈다. 천룡사(주지 무등) 성덕문화재단은 5월 17일 신축법당에서 증명법사 지각스님, 법일스님과 예비 사회인, 신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행으로 맺어가는 성년의례'를 개최했다.



법일스님이 참여 예비성인들에게 연비를 하고 있다.

이날 성년의례는 전통 성년의례의 양식에 불교수계의식을 결합해 진행됐다. 의식은 타종을 시작으로 헌공, 거향찬, 삼귀의, 반야심경, 청법가, 성년자 대표선서, 권청축사, 수계연비, 선계훈화(증명법사), 수계법명 설명, 성년선언, 초대손님 축사, 성년자 답사, 증명법사 개도예훈, 성년자 삼배, 가족덕담, 정근, 축원, 성년선언문(수계첩)수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성년식에는 남 8명, 여자 17명 등 전체 22명의 예비사회인이 참여했다.

예비 사회인들은 선서를 통해 "성년이 된다는 것은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당한 권리와 의무에 따르는 책임을 출실하게 실천하는 일이다"라며 "이제 어른에게 주어진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엄숙하게 선사한다"고 합송했다.

지각 스님은 법문을 통해 "이제 한 사람의 성년이자 부처이며 사회인으로서, 사회발전과 자아실현을 위해 주체적인 아름다운 삶을 살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정광학원 제12대 이사장 원일스님 취임법회

호남유일의 불교 종립학교인 정광학원 이사장에 원일 스님(장성 백양사 주지)이 취임했다. 학교법인 정광학원(정광중학교, 정광고등학교)은 지난 5월 29일 룸비니체육관에서 제12대 이사장 취임법회를 가졌다.



취임식에서 법인기를 받아 흔들고 있는 원일스님

취임법회에는 학교 이사인 무상스님(송광사 주지), 범각스님(대흥사 주지) 등 전남지역 4대본사 주지스님들과 연광스님(광주불교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지역 사찰 스님들을 비롯해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강인규 나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학생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삼귀의에 이어 정광학원 연혁 및 이사장 수행이력 소개, 법인기 전달, 꽃다발 증정, 취임사, 격려사,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원일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창학 70여년을 앞두고 그간의 역사적 전통과 자부심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시기"라며 "정광학원이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명문 사학으로 역사에 길이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원하는 자비롭고 지혜로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원일스님은 이어 "불교종립학교에 걸맞는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부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게끔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박물관 어린이문화재 전시전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6월 9일부터 8월23일까지 특별전시 '어린이문화재 그림전'을 개최한다.

이는 지난달 열린 '제28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의 수상작품을 모아 선보이는 전시회로, 대상 수상작을 비롯해 최우수상(6) · 우수상(15) · 가작(36) · 특선(22) · 입선(64) 등 총 144점의 작품이 공개된다.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작품은 광주 송원초등학교 6학년 조민솔 어린이의 '백제 금동관모'다.

한편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는 어린이들이 국립광주박물관 전시실에 있는 문화재를 보고 자신의 느낌을 자유로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행사다. 올해 대회는 지난달 18일 개최됐으며 광주 · 전남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 751명이 참가해 각자 그림솜씨를 뽐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완도 신흥사, 학교폭력 예방 업무협약



완도 신흥사(주지 법일)와 완도경찰서(서장 이수경)는 6월 3일 '학교폭력 가 · 피해자 보호 및 선도'를 위한 템플스테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위기청소년의 선도와 피해학생들 '꿈' 지원과 정상생활 복귀를 돕는 내용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흥사는 청소년 대상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인 '마음챙김 명상'과 '청산도 슬로우걷기(자전거 라이딩) 포행'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사회복지관 희망 나누리 발대식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대원)은 지난 5월 29일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대산면, 아산면 복지위원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5년 민관협력활성화사업 희망 나누리 발대식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희망 나누리는 아산면과 대산면 주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대원 스님은 "복지사각지대는 주변의 무관심으로 비롯된다"며 "이번 발대식 및 협약을 통해 희망 나누리와 고창군,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이 합심하여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소년들의 잔치 한마당 모악축제 개최



전북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성우)는 5월 30일 전북 김제 금산사 일원에서 '제19회 청소년 모악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 모악축제는 전북의 중고 파라미타 학생 500여명과 지도교사 50여명이 동참했다.

파라미타청소년들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모악청소년 축제는 산문, 운문의 백일장 부분과 한국화, 서양화, 만화를 그리는 사생대회부분 그리고 가장 관심이 높았던 음악놀이 경연대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밖에 전통 부채 만들기, 염주 만들기, 페이스 패인팅, 수묵화 배우기, 다도체험, 목착 치기, 108배 체험, 우리 문화재 바로알기의 체험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성우 스님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이루어진 모악산 금산사에서 자신의 장기와 문화재 보호 활동을 통해 생명존중사상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8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6월 中

◆ 개강일시 : 2015년 6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 개강일시 : 2015년 6월 中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봉 축

대한불교 일월 조계종

총무원장 덕 원

사서실장 현 경

사부대중 일동

■ 대한불교 일월 조계종 총무원

전북 정읍시 산외면 (묘덕사)

연락처 : 010-4651-1663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테라와다 '붓다의 날' … 한국서도 봉축법회

(사)한국테라와다불교, 5월 30일 마하보디선원서 웨삭데이



웨삭데이를 맞아 (사)한국테라와다불교는 경주마하보디선원에서 축하 법회를 봉행했다.

웨삭데이는 인도력의 둘째달인 위사카(Visakha)달의 보름날(음력 4월 15일)을 의미하며 부처님의 탄생일, 열반일, 성도일을 모두 같은 날에 기념해 '붓다의 날'로 불린다.

초전법륜경과 대반열반경 등 초기경전에 근거해 지정된 웨삭데이(VesakDay)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등 세계 테라와다 국가에서 공휴일로 정하고 축제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1999년 UN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정한 테라와다 불교국가의 최대 축제일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해당 사찰에서 소규모 법회 정도를 연 것이 전부다.

전국의 한국테라와다 불자가 한자리에 모여 웨삭데이를 기념한 특별한 법회를 열었다. (사)한국테라와다불교(이사장 사사나)는 지난 5월 30일 웨삭데이를 맞아 경주 마하보디선원에서 첫 축하법회를 봉행했다.

전국의 (사)한국테라와다불교 스님 12명과 200여 재가자가 참여한 이번 법회는 참가 스님들의 릴레이 법문은 물론 참가 대중들이 8계를 지키는 청정한 삶을 발원하고 정진 수행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법문을 설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며 그 공덕을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 회향 하는 시간도 가졌다.

먼저 아짠 빤야와로 진용 스님(붓다의 길 따라 선원장)은 법문을 통해 불사를 진행하며 지켜야 할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스님은 "사원을 건립하는 목적은 스님들이 수행하며 법을 설하고 수행자들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함이다. 법당을 장엄하게 꾸미는 것은 신도들의 탐진치를 일으킬 수 있으며 좋아하는 마음을 내어 집착을 만들고 차별을 일으킨다. 건물이란 수수하게 지

4월 15일, 불교 3대 명절 기념
릴레이 법문과 수행정진 발원
8계 지키며 청정한 수행 결의

어 본래 목적에 맞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바라밀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마음의 결정심을 바르게 내어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사사나 스님(경주 마하보디 선원 선원장)은 "여러분들은 법당에 들어오기 전 관욕을 하셨을 것이다. 관욕을 하는 것은 마음을 청정히 하고 닦는 것을 의미한다"며 "수행에서는 이것을 사띠(알아차림)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업의 작용, 바른 8정도의 중요성, 화가 날 때 해야 할 자비 수행 등 다양한 주제의 법문이 펼쳐졌다.

또한 참가 대중들은 스님께 공양을 올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해 동안 지킬 바라밀 내용을 결정하고 발원문을 종이에 적어 실천할 것도 아울러 다짐했다.

전통 웨삭데이에 처음 참석했다는 손희철(58 · 경남 양산) 씨는 "12분의 스님을 한자리에서 뵙는 것은 큰 기쁨이었다"며 "수행 위주로 조용하게 진행되는 축하 법회 모습이 인상적이며 한국 사찰과는 문화적으로 다른 면모를 보여 새로운 경험을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주희(23 · 부산) 씨는 "스님들을 직접 뵙고 법문을 한자리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생겼다"며 "법회 중에 8계를 받고 또한 선원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뵈며 수행 발심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 마하보디선원은 웨삭데이를 맞아 법당 앞마당에서 불상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 불상은 지난해 입적한 마하보디선원 초대 선원장 나냐로까 스님에게 미얀마 불자들이 감사의 의미로 전한 것이다. 故 나냐로까 스님은 미얀마에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자비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런 나냐로까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점안된 불상은 150cm 크기의 백옥으로 조성됐다.

하성미 기자

"안거는 불자라면 모두 해야하는 수행"…7월중 수행반결제 열어

재가안거 수행 입재식 5월 30일 개최

재가불자들의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재가자들을 위한 '하안거 재가안거 수행'이 시작됐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진, 해인정사 주지)는 5월 30일 범어사설법전에서 1000여명의 재가불자가 참여한 가운데 '불기 2559년 을미년 하안거 재가안거 수행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지난 동안거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재가안거 수행에는 부산지역 20여개 조계종 사찰에서 약 2000여명의 불자들이 각자 상황에 맞는 수행을 선택해 정진하게 된다.

법회는 1부 재가 안거 수행 설명회, 2부 입재식으로 진행됐다. 입재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수행선언문 낭독으로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은 용서, 자비, 회향으로 나눠진 자비의 게송으로 수행기간 동안 정진에 매진할 것을 결의했다. 수행선언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우리가 닦은 보시, 지계, 수행의 공덕을 모든 존재들에게 회향한다. 모든 존재들이 이 공덕을 나누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한다"고 발원했다.

이어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수진 스님의 인사말,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의 입재법문, 발원문 및 축가 등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수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안거는 스님뿐 아니라 불자라



조계종부산연합회는 하안거를 맞아 재가안거수행을 마련하고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부산 비롯한 전국에서 참여
재가불자 2000여명 입재 눈길

면 모두 해야하는 수행이며 이 기간 동안 스님들이 계를 지키는 것처럼 재가자들도 계를 지켜 청정한 삶을 유지해 정진해야 한다"며 "수행의 대중화, 율장 회복 정신만이 한국불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며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불 스님(범어사 주지)은 법문을 통해 "수행을 함께하는 인연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공부를 하다 닥친 어려움을 풀지 못할 때 선지식을 중심으로 답을 찾는 기회를 갖게 되니 좋은 인연이 열리게 된다"며 취지를 전했다.

이어 수불 스님은 "안거는 시작이자 중간이고 끝으로 수행자는 누구나 안거로 시작해 안거로 끝나는 마음으로 정진해야 한다. 수행하는 동안 안전장치로 경율론 삼장에 밝은 스님들에게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안내해 주는 길을 따라 정진하길 바란다"며 참가자들의 수행점검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부산연합회는 2회를 맞는 재가안거수행을 통해 수행 분위기를 더 깊이 뿌리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사찰에서 진행하는 수행 점검 시간 외에 '하안거 재가안거 수행 반결제'를 7월 중에 개최 할 예정이다. 이번 재가안거수행 참가자는 부산 외 타 지역 조계종 사찰의 신도들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생명나눔, '제8회 시 · 산문 백일장' 시상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제8회 생명나눔 시 · 산문 백일장'의 시상식을 6월 2일 부산영광도서 문화사랑방에서 개최했다.

생명나눔실천 부본부장 목종 스님, 부본부장 이경순, 총무이사 이동권 이사를 비롯해 입상자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축사와 인사말에 이어 시낭송, 시상식 및 기념촬영으로 마무리 됐다.

생명 존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개최한 백일장에서 입상자는 △중등부 대상 산문부문 해동중학교 공주현, 운문부문 황세빈 △고등부 대상은 산문부문 사직여고 신주원, 운문부문 해동고 안재원 학생에게 각각 전달됐다. 이어 부산시교육감상(금상)을 비롯해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상, 본부장상과 영광도서사장상, 부산불교문인협회장상, 부산수필문인협회장상 및 특별상으로 부산일보사장상와 국제신문사장상, BBS 부산불교방송사장상 등이 수여됐다.

행사 부본부장 목종 스님(대광명사 주지)은 "이번 백일장 공통 주제가 가족인걸로 알고 있다. 모든 생명을 대할 때 가족이 있는 존재임을 알고 자기 자신이 한 가족의 중요한 구성원인 것처럼 다른 생명도 그렇다는 것을 숙지해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며 청소년들과 참가자들에게 생명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하성미 기자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제8회 생명나눔 시 · 산문 백일장'의 시상식을 6월 2일 부산영광도서 문화사랑방에서 개최했다.

삼광사, 연이은 자비나눔 실천 '훈훈'

6월 2일 사회복지 단체 등에 빵 · 쌀 전달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는 6월 2일 삼광사 경내에서 자비의 빵, 자비의 쌀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삼광사 청년회에서 주관하고 네이버 해피빈 후원을 통해 이뤄진 이번 자비나눔 행사는 아시아공동체학교 및 구평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 관련 단체 13 곳을 선정하고 총 자비의 쌀 300Kg, 자비의 빵 2천 개 등을 전달했다.

주지 무원 스님은 "신도들의 정성을 모아 물품을 준비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은 그 어디라도 부처님의 자비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물품을 전달받은 아시아공동체학교 정영섭 팀장은 "지원해 주신 물품으로 다문화 어린이들이 생활하기 한결 수월해졌다.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의 말을했다.



삼광사는 6월 2일 삼광사 경내에서 자비의 빵, 자비의 쌀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하성미 기자

우곡선원, '마음꾸미기 과정' 참선 지도

6월 16일~7월 5일, 매주 화 · 목 강의

부산 우곡선원(원장 장명화)이 참선 초심자들을 위해 제 76기 초심자 '마음꾸미기 과정'을 마련했다. 교육은 6월16일~7월5일 3주간 진행되며 매주 화, 목요일 오후 8시에 시작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선입문의 예(禮) △좌선과 호흡 △참선 입문론 △선,사람의 참품세 △우곡 선체조 △우곡의 날숨호흡의 정의 △마음열기 △실상관법 △우곡의 선 △선과 21세기 등이다.

특히 실상관법은 연기하는 존재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우곡선원의 수행법이며, 회향일인 7월 5일에는 장명화 선원장을 비롯해 선원 법사단이 진행하는 만행정진을 마련한다. (051)740-6288

하성미 기자

진귀(眞歸) 수행자와
마주앉아 차한잔의
친견만 해도
각종 말기암 환자의
암성통증과
빙의가 사라지는
불가사의한 법력이
과연 가능한가?
답은 화엄경에 있다.

불가사의한 수행자 ~ 진귀(眞歸)의
화엄경 강좌

강의일자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인터넷 강좌 개설 준비중
강 의 료 : 1년에 50만원 (월 5만원)



■ 진귀 수행자가 직접 편저한 화엄경 책은 전국서점에서 판매중이며 수행센타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화엄경 책값 15만원임》
■ 친견료는 무료이며 각종기도, 각종 종교적 방편및 천도재 등은 일체하지 않으며 특히 유사 의료행위 및 대체의학 등은 하지 않으며 오로지 차한잔의 친견만 합니다.
■ 진귀 수행자의 친견은 사전예약자에 한하여 1일 2명만 친견 합니다.

화엄경 수행센타 문의 ☎ 1899-9532

우리나라 동국대학교
새로운 천년을 선도하는
전통과 저력의 명문사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제 38대 이사장 황일면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취임식 2015. 6. 11(목) 10:30 동국대학교 중강당

동국대학교
제 18대 총장 한태식(보광)

압록강 진격한 호국용사들 정신 오롯이



호국 청원사 전경. 대웅전 법당 지붕위에 모셔진 불상이 인상적이다. 법당 양 옆에는 제등행렬에 쓰인 6사단 마크의 연등과 탑이 서있다.



1994년 낙성한 종각과 주변에 조성되 정원



청원사 법당내에 모셔진 삼존불 모습

호국보훈의달… 군법당을 찾아서

① 철원 6사단 호국 청원사

한국전쟁 발발 당시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로 진격해왔다. 국군 대부분의 부대가 모든 전선에서 패배하는 와중에도 꿋꿋이 전선을 유지한 부대가 있었다. 바로 춘천지역을 방어한 6사단 청성부대였다. 이 3일간의 춘천 방어 성공으로 인해 북한군의 서울에서의 결집이 늦어지게 되고 이는 UN군을 비롯한 국군의 반격이 시작될 수 있었다. 6사단은 이후 압록강물을 떠 이승만 대통령에게 헌수한 일화까지 남길 정도로 용맹한 부대로 널리 알려졌다.

이러한 청성부대에서 부대원들의 정신적인 보금자리가 되고, 또 국토 안보관광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군법당이 있다. 철원 6사단 호국 청원사다.

서울 외곽을 벗어나 동두천과 포천을 거쳐 2시간 가량 차를 운전하면 동송읍이 나온다. 동송읍은 약 1만 5천여 명의 읍민이 거주하는 철원군 최대 읍이다. 동송읍의 한가운데는 호국 청원사가 있다.

호국 청원사는 1985년 문을 열었다. 당시 영외 군법당으로는 대형에 속하는 규모였다. 처음 호국 청원사를 보면 '넓다' 라는 느낌을 받는다. 부지 규모만도 800평에 달한다.

호국 청원사에는 군법당 중 이례적으로 법당 지붕에 불상이 자리하고 있다. 이 같은 양식은 논산 육군훈련소의 호국 연무사 구법당과 함께 유일하다. 1986년 세워진 이 옥외불상의 존재 이유는 야단법석을 위한 것이었다. 푸른 지붕 위의 하얀 옥불 보살의 모습은 호국 청원사 뒤의 금악산을 배경으로 동송읍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호국 청원사 주지 효찬 박영민 법사는 "지금도 사단법당으로 150명에 달하는 장병들이 찾고 있으며 동송읍의 읍민들이 신행활동을 위해 찾는 곳"이라며 "그렇기에 날씨가 맑을 때면 야외에 돗자리를 깔고 법회를 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호국 연무사와 호국 청원사 모두 법당 시설이 부족할 때면 야외에서 법당을 보기 위해 불상이 지붕 위에 위치했던 것이다.

호국 청원사 우측에는 대형 종각이 자리잡고 있다. 1994년 낙성된 것으로 종 한쪽 면에는 그동안 불사에 동참한 이들의 이름이 빽빽이 써 있었다. 사실 군법당은 일반사찰과 달리 이러한 후원이 절실한 곳이다. 호국 청원사는 지역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정원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청원사 일주문을 기준으로 법당 우측의 종각 측면에는 각종 조경수가 심어져 있으며 좌측에는 연못과 함께 정원의자 등이 구성돼있다.

호국 청원사가 없던 시절, 6사단 장병들은 민통선 안쪽의 고찰인 도피안사에서 법회를 볼 수 밖에 없었다. 당시 강원도 철원지역에는 사단 법당이 따로 있지 않았다. 민통선 내의 법회는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에 사단 측에서는 영외법당을 모색하게 됐고 부지를 마련했다. 문제는 법당 불사금이었다.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됐다. 당시 군포교에 관심이 깊었던 도선사 주지 현성 스님(現조실 스님)이 마음을 낸 것이었다. 현성 스님과 도선사 신도들의 십시일반 동참으로 도선사 측에서 법당을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불과 1년만에 불사를 이뤄냈다. 1985년 11월 보광 이욱태 법사의 재임 시절이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현성 스님은 호국 청원사 불사를 시작으로 인근 5사단의 호국 금강사 불사를 바로 진행하는 등 군포교 대부로의 길을 걸었다. 호국 청원사는 역대 군법사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1991년 요사채를 건립하고 1993년 법당 내부동사 등을 거쳐 현재 하나의 가람으로 발전했다.

삼사순례, 안보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

청성부대가 있는 지역은 한국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철의 삼각지대' 전투현장, 비무장지대 GOP, 북한이 파놓은 남침용 지하통로로 1975년 발견된 제2땅굴, 북한의 옛 노동당사, 현존하는 최북단 기차역인 월정리역 등이 있는 최대의 안보지역이다.

이에 호국 청원사는 인근 고찰인 도피안사, 심원사와 함께 청원사와 휴전선 부근의 군사시설 등 한국전쟁의 흔적을 둘러보는 안보관광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상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사찰의 신도들이 찾을 시 주지법사가 안내를 맡고 있다. 지난해에도 특전사 법당 호국사자사 신도회 등을 비롯한 신도들이 호국 청원사에서 시작하는 안보관광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청원사 안보관광의 순서는 청원사에서 법회 후 제2땅굴과 철원 평화전망대를 거쳐, 월정리역, 노동당사, 백마고지역 등을 둘러보는 과정이다. 안보관광은 분단현실을 느끼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직접 일대 전쟁의 흔적을 보며 전쟁으로 인한 참상을 느끼는 시간이다. 2008년 문을 연 최북단 군법당인 용화사와 함께 647년 영원(靈源) 조사가 창건한 이후 생(生)지장보살의 진설이 깃든 신라고찰 심원사, 865년 도선(道詵)국사가 세운 도피안사도 함께 참배한다.

효찬 박영민 법사는 "안보관광의 경우 계절 등에 구애 받지 않는 것이 장점"이라며 "국가 안보관을 바로 세우고 호국불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사찰 단위로 신청을 하면 언제든 환영"이라고 말했다.

철원=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지역 신행의 중심지로도 발돋움"

효찬 박영민 주지 법사



2014년 12월 호국 청원사에 부임한 효찬 박영민 법사는 호국 청원사를 군법당 뿐만 아니라 불교교양교육 등이 함께 이뤄지는 지역신행의 거점으로 키워가고 싶은 바람을 밝혔다. 박 법사는 현재 인근 도피안사와 심원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심원사 주지 정현 스님은 신병교육에 간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피안사 측도 법당 행사 후원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군불자들과 도피안사, 심원사 신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등을 제작해 동송읍에서 제등행렬을 진행하기도 했다.

박 법사는 "시내에 있는 군법당의 경우 일반 포교당의 역할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법사는 끝으로 "지어진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된 요사채와 함께 아직까지 교육관이 없는 부분이 문제"라며 "지역민들이 불교 교양교육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달의장병' 등을 통해 군장병 포교에 나서고 있는 박 법사는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법사는 "최근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법당에서 자유롭게 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관광 볼거리

▲철의삼각전적지

고석정 국민광광지내 있는 국내 최대 안보교육장으로 1989년 개관했다. 전적관내 통일관에는 북한의 다양한 물품들이 전시돼있다.

▲제2땅굴

북한이 판 남침용 땅굴로 북한에서 총 3500m를 남북대화 시점에 파 내려왔다. 1975년 3월 25일간에 걸쳐 시추작업에 의해 북한 남침용 땅굴임이 확인됐다.

▲철원 평화전망대

동송읍 중강리에 위치한 철원평화전망대는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2007년 11월 개관했다. DMZ내 자연상태, 궁예도성 성곽, 북한 선전마을을 전망할 수 있다.

▲노동당사

한국전쟁 전까지 사용한 북한 노동당 철원군당사로, 공산치하 5년간 북한은 이곳에서 평강, 철원, 포천일대를 관장하며 애국인사들의 체포와 고문을 자행했다. 근대문화유산으로 최근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世界佛教 法王廳

세계 곳곳에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국내를 비롯하여
지구촌 후진국 빈민촌의 어둠과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불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군소종단의 통합을 염원하며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하는 한국 군소종단들의 모임체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밑거름이 됩시다.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종단 지도자 여러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여기 저기 기웃거리다가 자신의 마음에 뜻이 같지 않으면 순식간에 등돌리고 무리져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부실종단 지도자들은 더 이상 먹물 옷을 욕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부실종단이 난립하니 승려의 자질과 역량이 사회와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수행자의 출현이 아쉽다는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우려 아상과 독선, 옹고집 명예와 권력야욕 벗어 던져 버리고 이제는 초발심으로 돌아가 종단은 다르나 모임에는 통합되고 단결된 종단들이 되어 불교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각자의 본분을 충실히 다져야 합니다. 적으면 적은대로 불교에 누를 끼치는 종단에서 벗어나 불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주역이 됩시다. 가입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단 정식 법인 등록된 종단 및 단체가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대표전화 02)733-5665. 733-5670.
팩 스 02)733-5615. H.P : 011-229-6061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종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화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大韓佛教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教 宗團 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教 高僧長老團.
世界佛教 考試委員會. 大韓佛教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元老長老團. 韓國佛教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宗團 人權委員會. 국제붓다봉사단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그늘진 곳에
같이 웃고 같이 울며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하는
봉사단 불자를 모십니다.
불자라면 남,녀 누구나 환영합니다.

왕권 강화와 부국강병의 염원 담겨

답의 진화

㊲ 10층탑 – 2

원각사지10층석탑

고층빌딩이 빽빽하게 들어 선 서울시 종로의 중심가엔 우리에게 '탑골공원' 이라는 명칭으로 더욱 익숙한 원각사(圓覺寺)터가 있다. 지금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그 모습을 찾을 수 없지만, 창건 당시 조선 도성 내 3대 사찰로 알려질 만큼 규모가 매우 컸던 원각사는 세조 10년, 1464년에 사찰 중건에 착수하여 1465년에 완공되었다.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뒤 임금이 된 세조의 왕권은 매우 불안정한 것이었다. 또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 왕후의 꿈을 꾼 뒤 피부병에 시달리고 장자인 의경세자가 갑자기 세상을 뜨는 등, 불안에 시달리던 세조가 자신의 정통성을 입증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찾은 곳은 바로 세종의 형님이자 자신의 큰아버지인 효녕대군이 계시던 회암사였다. 세조는 양주 회암사를 찾았다가 분신(分身)한 사리를 보고 감명 받아 효녕대군을 사찰 중건의 총 책임자로 하여 왕궁 가까이 있던 흥복사(興福寺)터에 원각사를 세웠다.

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번역한 〈원각경(圓覺經)〉과 회암사의 분신사리를 봉안하여 탑을 조성하는데, 이 탑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보 제2호 원각사지10층석탑 **〈사진1〉**이다.

세조는 숭유억불 정책을 강행해 온 조선의 선대왕들과는 달리, 직접 왕궁 가까이 절을 짓고 높이 12m라는 큰 규모의 석탑을 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파격적인 불사(佛事)를 행한 데에는 불법의 번성을 기원하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며 공고히 함과 동시에, 부처님을 통해 조선의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한 세조의 염원이 담겨 있었다.

실제 탑의 층수는 10층이지만 당시 조성된 탑의 층수는 13층이었다. 13층이라는 기록은 원각사의 창건 내력이 기록된 보물 제 363호인 대원각사비(大圓覺寺碑)**〈사진2〉**를 통해 알 수 있다. 대원각사비에는 탑에 대한 기록이 다음과 같이 남아 있다.

'세조가 간경도감에서 〈원각경〉을 번역하고 회암사 사리탑에서 사리를 나누어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곳에 다시금 원각사를 짓고 13층 사리탑을 세웠다.'

이와 같은 기록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의미한다. 첫째는 조성당시에는 13층이었으나 현재는 10층만 남아있는 경우이고, 둘째는 탑의 층수를 기단부터 세었기 때문에 기단3층과 탑신10층을 더하여 13층이라고 표현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탑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 세조 42권에 의하면,

'13년(1467년) 4월 8일, 원각사의 탑이 완성되니 연등회를 베풀어 낙성하다 (圓覺寺塔成, 設燃燈會以落之)' 라고 했다.

이처럼 1467년 사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 에 세조가 성대한 낙성식을 열기 전부터 탑에 관한 이야기가 도성 내에 자자하였다. 심지어 당시 조선에 국빈 자격으로 방문해 있던 일본의 도은이라 하는 스님은 원각사 탑에 관한 소식을 듣고 공람(供覽)하고자 세조에게 청하였다는 기록이 실록에 전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은 중국의 사찰을 두루 관람하며 보았습니다. 듣건대 원각사의 탑이 천하에 제일이라고 하니, 원하건대 오늘 관람하고자 합니다. (僧遍覽中原寺刹, 聞圓覺寺塔爲天下最, 願今日觀賞)" 라고 도은이 청하니 세조는 예조에 이를 승낙하여 일본 승려가 탑을 공람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원각사10층탑은 세조와 조선의 자존심이자 한양의 랜드마크(landmark)로 급부상하였는데, 세조 이후에도 억불 정책을 피해 잘 보존되던 원각사는 연산군 시절에 이르러 폐사되고 만다. 연산군은 이곳을 '연방원(聯芳院)' 이라 이름 짓고 전국에서 뽑아 온 기생과 악사들의 숙소로 사용하도록 했다. 후에 건물의 재목들이 다른 공용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되며 원각사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지금의 '10층석탑' 과 '대원각사비' 만 남게 되었던 것이다. 폐사지였던 이곳은 구한말 고종 때인 1897년

원각사 10층탑 당초 13층
조선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아
자주적인 성격이 다른 탑과 달라

탁지부에 고문으로 와 있었던 영국인 J.M. 브라운이 설계해 '파고다 공원' 이라는 이름의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근린공원이 되었다. 3·1운동 당시 많은 시민이 이곳에서 만세를 외쳤으며, 당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팔각정도 탑 앞에 위치하고 있다.

해방 이후 1946년 2월 17일에 유진 크네스트라는 미군 대위의 관심에 의하여 원각사탑은 복구가 완성되었다. 군정청 교육문화담당관과 공보관이었던 그에 의하여 미군 공병대의 기중기를 이용하여 오랫동안 땅바닥에 내려져 있던 원각사탑의 상층부 3개 층을 올려 10층의 완성된 불탑으로 거듭나기에 이른다. 이날의 참관인으로는 군정청 유억겸(俞億兼) 학무국장과 최승만(崔承萬) 종교예술과장, 민속학자 송석하(宋錫夏), 국문학자 이병기(李秉岐), 국립박물관장 김재원(金載元) 등이었다. 그리고 석탑의 복구를 총괄 지휘했던 사람은 미군장교 '라이언' 해군 소위였다.

1962년에 국보 2호로 지정된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원각사 인근에 살던 조선 지식


〈사진1〉 원각사지 10층석탑


〈사진2〉 대원각사비


〈사진3〉 유리보호각 안의 불탑


〈사진4〉 빈상도 조각상


〈사진5〉 조계사 7층탑


〈사진5-1〉


〈사진6〉

인들을 이르던 '백탑파' 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탑 전체를 이루는 흰 빛이 특징적이다. 이는 보통 석탑에 화강암이 쓰이던 것과는 달리, 회백색을 띠는 대리석으로 탑을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리석은 아름답지만 화강암보다 무르고 약한 탓에 훼손 위험도가 높아 현재 원각사지 십층석탑에는 유리 보호막을 씌워 보존하고 있으므로**〈사진3〉** 일반인들이 직접 불탑을 친견하고 참배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

하지만, 유리보호구조물 안에는 누구나 인정하는 우리나라 제일의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10층의 불탑이 모셔져있다. 이 불탑의 우수성은 탑의 전신에 새겨진 정교하고 화려한 조각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서남북 각 4방향에 1층부터 3층까지 모두 12장면의 변상도를 조각하고 남쪽의 4층에 1장면을 더하여 모두 13회의 변상도 **〈사진4〉**를 조각한 것이다. 13회란 동방의 미타회,다보회,약사회, 서방의 영산회,원각회,전단서상회, 남방의 삼세불회, 화엄회, 소재회, 원통회, 북방의 용화회, 법화회, 능엄회를 말한다. 경설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보이는 변상도의 조각모습은 지난 호에서 알아보았던 '경천사지10층석탑' 의 전면에 부조된 조각들과 유사하다. 조각 뿐 아니라 경천사지10층석탑과 원각사지10층석탑은 형태와 구조 모두가 닮아있다. 조성연대를 고려해볼 때 원각사지10층석탑이 경천사지10층석탑의 모습을 그대로 본떠 만든 것이라 할 수 있고, 두 탑 모두 우리의 우수한 문화재지만 원각사석탑은 보다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그것은 바로 경천사지10층석탑이 친원세력과 원나라의 원조에 의해 조성된 탑이라면, 원각사지10층석탑은 오로지 조선의 기술력과 석재로만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또 경천사의 탑이 원나라 황실의 안녕을 기원하고 불법의 번성과 권세의 과시를 목적으로 조성되었다면, 원각사의 탑은 세조가 임금의 왕권강화와 조선의 부국강병을 꿈꾸고 온 나라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비치길 바라며 조성하였기에 좀 더 자주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데 그 차이가 있다.

서울 조계사 8각10층사리탑

조계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교구로서 한국불교의 총 본산이다. 근현대 우리나라 불교역사를 지켜본 중심사찰이었으며, 현재는 조계종의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등 종합청사가 있는 한국불교 1번지라고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일이다. 태국의 왕실에서 모시고 있던 부처님의 진신사리 1과를 스리랑카의 '달마바라' 스님이 하사받아 모시고 다니던 중 1913년 8월 20일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고 당시 불교청년대표인 김금담(金錦潭)에게 그 귀중한 사리 1과를 주어 1914년 각황사에 봉안하게 되었다. 수년 동안 사리를 탑에 봉안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긴 경호(瓊湖)스님의 주관으로 태고사 즉 지금의 조계사 대웅전 앞에 7층탑**〈사진5〉**과 석등을 조성하고 사리를 봉안하게 되었다.

그러나 1945년 광복이후 탑의 양식이 일본식이라는 비판의 여론이 계속 되었다. 이에 2009년 10월에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 계시던 이지관 스님의 발원과 당시 조계사 주지의 소임을 맡았던 박세민스님에 의하여 8각10층의 세존사리탑을 조성하게 되었다. 원래 있던 7층탑은 총무원 청사 한 쪽 옆에 자리를 마련하여 이전 복원하고**〈사진5-1〉** 대웅전 앞에는 8각10층**〈사진6〉**의 새로운 탑을 조성한 것이다.

이 탑을 조성할 때에는 몇 가지 기본 방침을 세우고 불사가 진행되었다. 방침의 기본 내용은 첫째, 일본식 비판에 따르는 새로운 조성이므로 철저히 전통양식을 구현할 것. 둘째, 도심한복판에 위치한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장엄미려(莊嚴美麗)하게 할 것. 셋째, 조계사는 한국불교의 상징도량이므로 도심신행공간의 중심이 되도록 '탑돌이' 등 예배공간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 넷째, 불교신행의 근본인 正見,正思惟,正語,正業,正命,正精進,正念,正定의 팔정도(八正道)와 불살생(不殺生), 불투도(不偷盜), 불사음(不邪淫), 불망어(不忘語), 불악구(不惡口), 불양설(不兩舌), 불기어(不綺語), 불탐(不貪), 부진(不瞋), 불사견(不邪見)의 십선법(十善法)을 상징하여 8각10층으로 조성하며, 한국불교 신행전통을 고려하여 8여래상, 8보살상, 8신중상 등을 도상화하여 조각으로 장엄할 것 등이었다.

그 결과 현재 1층 탑신 8면에는 비바사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함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미륵불의 8여래상을 조각하고, 중대석 8면에는 허공장보살, 제개장보살, 금강수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의 8보살상을, 난간의 8면 각 기둥에는 천, 용, 건달바, 긴나라, 아수라, 가루라, 마후라가, 야차의 팔부신장상을, 하대석 안상 안에는 부처님께 음성공양을 올림의 상징인 법라를 비롯하여, 일산, 공덕의 깃발인 산개, 금빛 물고기인 금어, 보병, 보상화, 법륜, 인연의 8길상도와 8사자상을 각각 조각하였다. 1층 탑신 내부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지대석과 중대석 안에는 한국불교의 중흥과 불자들의 소원을 담은 소형 불상 1만 4천분을 모시기도 하였다. 또한 1층 탑신 연화대 안에는 동판으로 제작한 '한국불교중흥발원문' 과 '사리탑신건연기문' 그리고 1660년 은진쌍계사에서 각판한 〈법화경〉7권 1질과 25조가사 1벌 등을 봉안하였다.

혹자는 '모방' 이 곧 '창조' 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전통을 지키며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자주적으로 발전시켰다.



글 · 우인보
〈불교문화예술학 박사〉

목각단청운각
(간편조립)
법당장엄
5층 목탑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3자 : 1판 ■2자 : 4판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 (5m, 10cm) / 가격 : 90만원
■ 크 기 : 높이 120cm / 하단 가로 45cm
보급가 : 900,000원 (배송비 포함)
*내부 조명등 있습니다.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 가로, 세로 20cm
가격 : 35만원
고전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3772-3165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56-1008-993643 (예금주 : 김판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D.I.Y 시공 가능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 설치장소 ■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수원 : 010-5211-7260 남양주 : 010-9183-9729
평창 : 010-6433-8612 양산 : 010-6294-6126 김천 : 010-9091-4583
진주 : 010-3583-7139 울산 : 010-4597-5577 서광주 : 010-6890-0365
익산 : 010-6610-2337 여수 : 010-3612-7784 고성 : 010-4578-0961

부질없는 권세 버리고 길을 떠나다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④ 원숭이 왕, 출가를 결행하다(1)

왕 노릇하는 재미 쏠쏠하구나.
구색 갖춰 원숭이 신하를 거느리고
온갖 환락을 즐기면서
천년만년 살기를 기약하였네.

그러나 어느 날 우리 돌원숭이 원숭이 왕
동쪽으로 유람 나가 병든 원숭이를 만나고
서쪽으로 유람 나가 죽은 원숭이 장례지내는 것을 보고
어헛? 이건 원전에 없는 얘기네.
어디서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어디서 들었더라?

아무튼 어떤 계기가 있어서인지 몰라도
이 즐거움이 영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 모든 것이 덧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네.
우리 원숭이 왕, 비탄에 잠겼구나.
아아! 모든 것이 헛되고 또 헛되도다.

원숭이 신하 가운데 똑똑한 자 있어
한 가닥 희망을 주는구나.
염라대왕의 관할을 벗어난 세 종류의 존재가 있다고
부처와 신선과 신성(神聖)이라고
모두 이 세상에 살고 계시다고….

남들은 꿈같은 이야기라고 웃어넘길지 모르지만
우리 원숭이왕이 어디 보통 원숭이 인가?
비보통 원숭이인 원숭이는
크게 기뻐하고, 큰 뜻을 품었네.
반드시 그들을 만나 뵙고
생사를 벗어나는 길을 찾겠노라고.

아아! 찬탄하지 않을 수 없구나!
우리 원숭이왕의 위대한 결단을
이것이 바로 보리심이니
모든 부처의 씨앗이로다.
덧없는 것에 대한 하염없는 사랑도
또 본디 우리 집안의 가풍이지만
그 사랑은 떠남에서 시작되는 것….
슬픈 이별에서 시작하는 것
이별의 슬픔을 단호히 잘라버리는데
떠남의 멋도 있는 것.
조강지처를 비롯한 모든 애희(愛姬)들에게
진한 작별의 키스를 하고
반드시 죽음을 벗어나는 길을 찾아 돌아오겠다는 다짐으로
원숭이들의 성대한 환송을 받으며
드디어 위대한 항해를 시작하도다.

아아!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커다란 결단으로
기약 없는 여정을 출발하는 자리
엄숙하게 원숭이왕의 장도에 평안을 기원하자!

오늘은 좀 이야기가 심각해질 것 같죠?

원숭이 왕이 된 우리 돌원숭이. 원숭이 왕이래도 왕은 왕! 당연히 권세가 있고, 그에 따르는 환락도 있겠죠? 〈서유기〉원전에도 원숭이 왕이 즐겁게 나날을 지냈다고 나오니까 일단 환락의 나날을 보낸 것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던 어느 날 원숭이 왕이 '덧없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네 대문을 다니면서 삶의 괴로움 실상을 본 이야기 '사문유관(四門遊觀)'를 했지만, 원숭이 왕이 덧없음, 특히 모은 생명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낀 것도 분명 무슨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 중생들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도 그것을 절실히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있어야 하니까요.

여러분들께도 한번 여쭤보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분 있어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을 절실히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대서사시인 〈마하바라타〉에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면서도 모든 사람이 저만은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이것이 참으로 불가사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지만 그래도 가끔 가까운 분의 죽음이나, 바로 눈앞에서 충격적인 죽음을 보거나 하면 죽음에 대하여 심각하게 느끼기도 하죠. 사랑했던 사람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린다. 또는 방금 전까지 생생하게 살아있던 존재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것을 눈앞에서 본다. 당연히 큰 슬픔이나 충격이 오죠. 그렇게 되면 대개는 당연하게 죽음이란 무엇일까, 나도 죽을 것인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로 모습이 바뀌어져 존재가 이어져 나가는 것일까 등등의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대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무엇에 쫓기는 바쁜 일상의 반복 속에서 그러한 물음은 퇴색되고, 또 그럭저럭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알 수도 없는 골치 아픈 문제를 잡고 씨름하기엔 너무도 할 일이 많다는 핑계를 대고, 마음 구석에 슬며시 근본적인 물음을 묻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묻어 놓는다고 해서 묻혀버리는 문제가 아니죠. 가끔 그놈이 고개를 쳐들고 나를 빤히 바라보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까닭 없는 불안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묻어 두었던 그 근본 문제가 우리를 빤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덧없음의 바다에 떠있는 외로운 섬이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이구, 심각해라. 그렇지만 여기서 심각하지 않을 도리가 없죠. 이왕 심각해진 김에 우리가 마음 구석에 묻어두고 싶은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정면으로 마주 보기로 할까요?

겁이 난다구요? 바로 거기서 시작해 봅시다. 왜 겁이 나나요?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알기에 겁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생명이 끝난다는 사실 밖에는, 그 죽음의 세계가 어떤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농담이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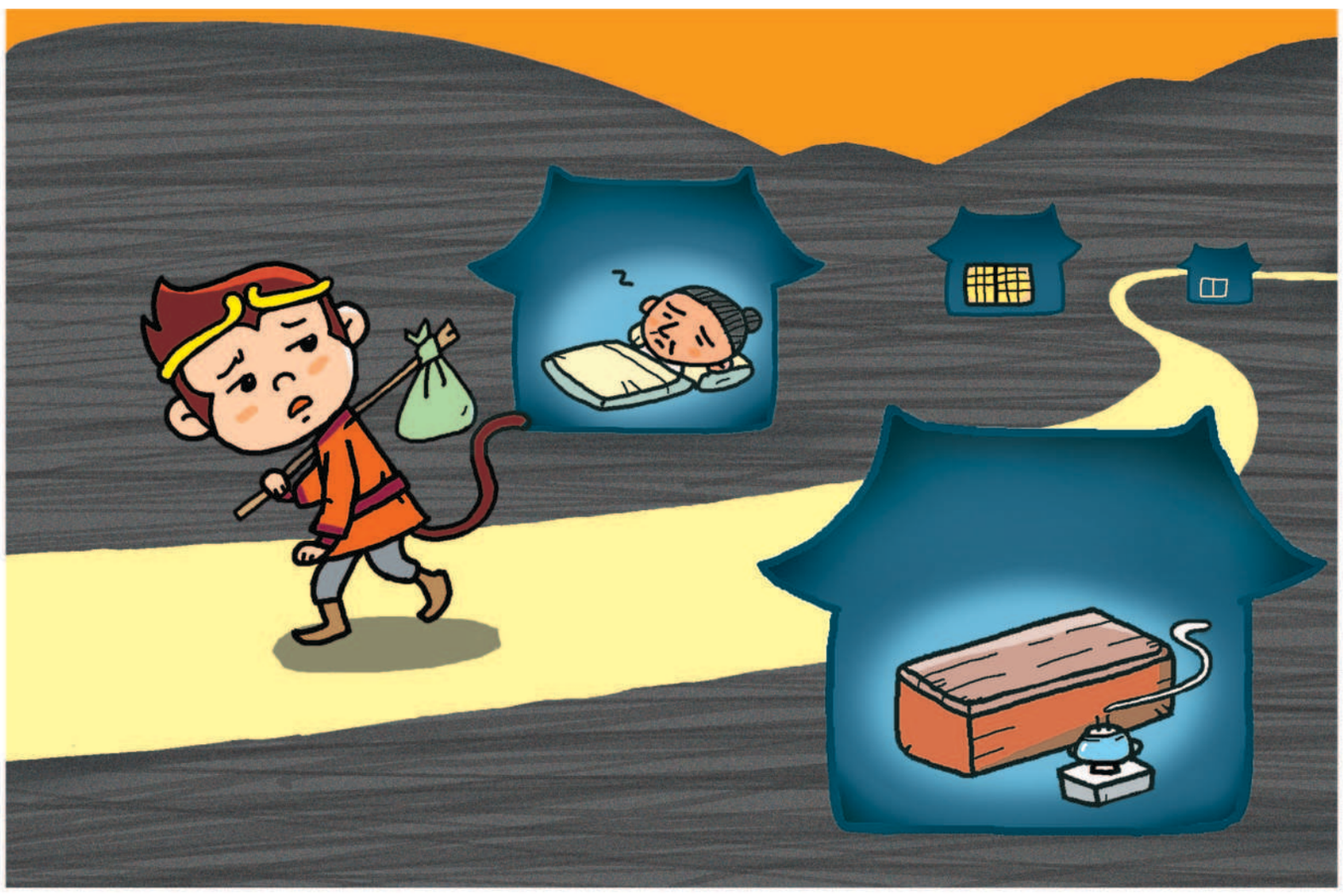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즐거운 나날을 보내던 미후왕
> 죽음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 부처와 신선 만나러 길을 나서
>
> 알지 못하는 '사후 세계' 두려움
> 삶의 덧없는 애착에서 벗어나야

"죽음의 세계야 말로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세계이다. 왜냐고? 거기 가면 아무도 돌아오지를 않더군. 그 세계가 얼마나 좋으면 한사람도 돌아오지를 않겠어?"

말이 되죠? 죽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지만, 죽어본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 아무도 죽음 뒤의 세계는 알 수 없죠. 오히려 그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겁나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알지 못하면서 겁낸다는 건 좀 우습지 않아요? 〈장자(莊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희라는 여인이 미모로 뽑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대요. 뽑혀 갈 때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슬프고 겁나 죽을 듯이 울었다는군요. 뒤에는 왕의 총애를 받아 호화롭게 살게 되어서는 떠날 때 죽을 듯이 울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웃었다든가요? 마찬가지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이 죽음의 세계에 들어와서는 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쳤던가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을까?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장자가 여행길에 동굴 속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동굴 가운데 해골이 있었습니다. 장자가 해골을 툭툭 치면서 "너는 어쩌다 죽었느냐? 나쁜 짓하다 형을 받아 죽었느냐"하다 해골을 베고 잠이 들었대요.

꿈속에서 해골의 주인이 나타나서는 "너는 죽음의 세계가 얼마나 편한지 모르면서 네 기준으로 함부로 떠드는 구나"하고 꾸짖었대요. 장자가 "내가 염라대왕을 만나 청을 해서 너를 다시 살게 해준다면 어떻겠느냐"고 떠보았답니다. 해골 임자는 "내가 무엇 때문에 다시 그 시끄럽고 고통스런 삶의 세계로 돌아가겠느냐"고 거절하였다는군요. 그래서 결국 못살아났다더라, 아니 안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말이 되지요? 죽음 뒤의 세계에 대하여 전혀 모르면서도 겁을 내는 것은 아마도 우선은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하고, 또 살아 있는 지금에 대한 강한 애착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죽음의 세계가 전혀 알 수도 없고, 또 어쩌면 아주 좋은 세계일 수도 있다면 죽음의 문제 같은 건 접어두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자도 죽음의 문제에 대해 고민 고민하다 나름대로 삶을 달관하는 경지에 올라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고민도 안해보고 그렇게 쉽게 달관이 돼요? 그렇저렇 살겠다는 것은, 삶을 전혀 음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돼지의 삶과 다름없습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단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는 말도 있잖아요?

왜 두 가지 선택 밖에 없냐구요? '배부른 소크라테스'도 있지 않냐구요? 아이고, 정말 사람 짜증나게 하시는 분이시네요. 말꼬리 잡지 마세요! 이렇게 고상한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이 선생님 같은 분 상대하다 보면 부르던 배도 푹 꺼져요! 오늘 이야기 이만 마칩니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70번째 저서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신간! 실증설 5개국어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 위해 홀연히 펜을 들어 일시에 써내려간 실증설! 실증한 이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도리로 가득한 이 책이 드디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더하여 5개국어로 편찬되었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낱낱이 설하였다.

www.zenparadise.com 참조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 031-534-3373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7518-7854,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마지막까지 마음의 불안, 유혹을 의심하라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17. 악마(惡魔)의 시험 ㊦

전도의 결심에 이르기 까지

'7년(七年)' 이란 이름의 〈악마상응〉의 제24경의 한 구절은 보리수 밑에서 정관(靜觀)하는 붓다에게 속삭인 악마의 말을 다음과 같이 게(偈)로써 기록하고 있다.

그대 만일 불사안온(不死安穩)에 이르는 길을 깨달아 얻었다면
떠나라, 그대 혼자서 가라.
무엇 때문에 그대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가.

이 이상한 속삭임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을까. 생각건대 붓다의 큰 방기(放棄)의 감행(敢行)(출가, 出家)과 오랫동안의 수업(修業)은 오로지 자기 한 사람의 인생의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있었다. 그리고 이제 겨우 그 해결에 도달할 수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의 목적은 이미 달성한 것이며 거기에 다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거나 이 교법을 전도(傳道)까지 한다는 것은 필요 없는 일이 아닌 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붓다가 이러한 생각에 사로 잡혀 있었음은 '범천권청(梵天勸請)' 의 설법에서도 명백하다. 이것도 역시 하나의 큰 위험이었다. 만일 그가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다면 그는 인간구조의 사회적 측면을 잘못 본 것이며, 나아가서는 불교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 위협의 극복은 '범천권청' 의 설화에 있어서는 신화적(神話的)이면서도 객체적(客體的)으로 범천(梵天)이 찾아와서 붓다에게 법을 설명할 것을 간청하며 붓다가 그 간청을 받아들여서 전도설법(傳道說法)을 결심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악마상응〉에 있어서 그는 악마의 속삭임을 물리치면서

피안(彼岸)에 이르기를 소원하면서
나에게 그 길을 묻는 자가 있었다.
물음을 받고 나는, 그들에게
모두 여의(餘依)없는 열반을 설명하리라.

이같이 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어느 것이 붓다 마음의 움직임을 실제와 가깝게 설명하고 있을까.

설법자로서의 불안과 반성

대각(大覺)의 확신은 이루어졌다. 최초의 설법은 결행되었다. 그로부터 45년의 긴 세월동안 붓다의 전도설법의 생애가 시작된다. 그 전도설법을 하는 동안에도 악마는 자주 붓다를 시험하였다.

'사자(獅子)' 라는 제목의 〈악마상응〉의 제22경에는 붓다가 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여 법을 설명하고 있을 때 악마가 그의 마음에 속삭인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대는 어찌하여 대중들 앞에서
그렇게 두려움도 없이 사자후(獅子吼)하는가.
여기에 그대의 힘겨운 적수(敵手)가 있나니
그대는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에 대한 붓다의 대답은 또 게(偈)로써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나는 큰 회중(會衆)들을 앞에 두며
두려운 것이 없으며, 마음은 즐겁도다.
이미 여래(如來)의 십력(十力)을 얻어
애착(愛着)의 세상을 초월(超越)하였기 때문이니라.

또 '상응(相應)' 이란 제목의 경에서는 그가 재가(在家)의 대중들에 둘러싸여 설법하고 있을 때 악마가 그에게 속삭인 것을 기록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대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니라.
그대는 그런 일을 감히 함으로써
탐(貪)과 진(瞋)에 속박(束縛)될 것이리라.

이것에 대한 그의 대답도, 게(偈)로써 기록되어 있다.

다른 사람의 이익과 애민(哀愍)을 위해서
정각자(正覺者)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느니라.
여래(如來)는, 탐욕과 노여움을
이미 모두 모두 해탈(解脫)하였도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악마의 시험이란 내면적 마음의 동요(動搖)이며 불안이며 미혹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미 대각(大覺)을 성취하였으며 법륜(法輪)을 굴리는 붓다에게 있어서 이러한 악마의 시험이 있었으며 이러한 내심(內心)의 미혹이 있었으며 불안이 있었다는 것은 종래 불교인의 상식으로서는 좀처럼 납득할 수 없는 것이리라. 그렇기 때문에 종래 이러한 경전은 감히 무시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경전은 분명히 그러한 일을 기록하고 있다. 한역(漢譯)의 〈잡아함경(雜阿含經)〉도 남전(南傳)의 〈상응부(相應部)〉경전도 그러한 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 율장대품(律藏大品)의 대각(大覺)에서 초기의 전도(傳道)까지를 기록한 부분도 이러한 악마



경주 남산 미륵곡 석불좌상. 수인으로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취하고 있다. 항마촉지인은 석가모니가 수행을 방해하는 모든 악마를 항복시키고 성취한 정각(正覺)을, 지신(地神)이 증명하였음을 상징한다.

이야기의 몇 편을 그 속에 편집(編集)하고 있다.

생각건대 대각(大覺)과 함께 일체가 해결되고 일체가 확립하였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붓다의 인간적 진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오히려 크나큰 깨달음의 후에도 그가 불안을 느끼며 마음의 미혹을 느끼며 반성을 반복함으로써 차츰 차츰 움직이지 않는 경지(境地)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붓다의 진실에 접근하는 이유가 아닐까.

권세(權勢)의 유혹

또 '통치(統治)' 라는 이름의 경에는 그의 마음이 잠시 권세(權勢)와 재욕(財慾)을 생각하였던 구절이 있다. 그때 그는 이상(理想)의 정치(政治) 형태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살생(殺生)이 없는 통치, 누구에게도 억울함을 주지 않는 통치, 그러한 정치는 있을 수 없는 것일까 하며 생각하여 보았다.

거기에 악마가 "세존 스스로 통치하여 보라"라고 속삭였다. "세존은 지금 무엇이건 뜻대로 이룰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만일 결심만 한다면 저 설산(雪山)을 변하게 하여 황금이 되게도 할 수 있으리라" 이것에 대한 붓다의 대답은 다음과 같은 게(偈)가 되어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저 설산을 변하게 하여 황금이 되게 하며
다시 또 그 두 배가 되게 한다 하여도
능히 한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는 없으리라.
이것을 알고서 사람들이여, 올바르게 행하여라.

거기에는 식욕(食慾)의 미망(迷妄)이 있었으며 권세의 시험이 있었으며 설법자의 불안이 있었다. 전혀 새로운 사상과 실천으로서 이것을 인류 가운데 가져온 이 스승이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시련은 수 없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련(試鍊)의 단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전들에 우리들은 새로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한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스님과 꽃상여

독신 수행승을 비구(比丘)라 한다.

비구란 걸사(乞士)이며 무소유(無所有)의 삶이 기본 모토이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무집착으로 시작해 무소유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수행승의 본분사일 것이다.

우선 영단에서 독송되는 염불을 한 구절 옮겨보겠다.

삶이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며
(生從何處來)
죽음이란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가
(死向何處去)
삶이란 한 조각 구름에 이른 것이며
(生也一片浮雲起)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네
(死也一片浮雲滅)
뜬 구름 자체가 실다움이 없거늘
(浮雲自本無實)
삶과 죽음 또한 오고감이 그러하네
(生死去來亦如然)

굳이 최희준이 부른 '나그네' 를 떠올리지 않아도 인생은 그 자체가 한 조각 뜬 구름이요, 정처없이 떠돌다 막 내리는 나그네의 삶 그 자체이니까.

더욱이 독신 수행승인 비구 스님들의 삶의 마무리는 탈세속적인 초연함으로 일관되어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법랍(法臘)의 길이가 긴 노승(老僧)일수록 장례 절차가 지극히 세속적이고 화려하다.

꽃상여는 기본이고 5일장 7일장은 선택코스다. 본시 상여 문화는 유교문화다. 비구가 죽어 꽃상여로 치장하고 5일장 7일장으로 번거로움을 더해 간다면 이런 행위는 마땅히 고쳐져야 하고 사라져야 할 부끄러운 일들이다.

한국불교에는 자칭 타칭의 고승들이 널려있다. 그들이 죽을 경우 장례 절차 또한 번거로울 만큼 요란하다. 49재 또한 빠뜨리면 큰일 날 것처럼 그의 제자들이 챙기고 있다.

49재의 의미는 자식들이 못다한 효(孝)를 되살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되뇌어 영가(靈駕)의 왕생극락을 염원하는 데 있다 하겠다.

그런데 살아생전에는 신도들의 시주물에 의해 입은 혜택이 크고 무거울 터인데 죽어서까지 신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차려주는 잿상으로 위로받고 싶은지 강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해탈자의 무소유 무집착이 무슨 의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비극적인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길 바라고 바랄 뿐이다.

생일 잔치

출가 수행자인 스님들이 해마다 꼬박꼬박 생일 잔칫상을 받고 있다. 세속에서도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육순과 회갑 잔치는 사라져가고 있다.

그런데 환갑, 회갑 잔칫상을 스님들이 버젓이 받고 있다. 거기다가 칠순, 팔순 잔치도 눈 하나 까닥하지 않고 부처님 도량인 사찰에서 거하게 차려지고 있다.

묻고 싶다. 세속의 애착을 저버리고 출가 수행하는 승려라면 생일날쯤은 잊거나 접어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본인이 알리지 않고 챙기지 않으면 신도들이 어떻게 스님의 생일 알아 상을 차려 주겠는가.

수행승의 기본은 '空手來空手去' 화려한 장례와 생일상 웬말인가

나는 출가 이후 50년이 다 된 오늘까지 생일상을 받은 적도 한번 없고, 신도들 역시 생일없는 스님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생일상을 받아야할 사람이 있다면 스님이 아니라 그 스님의 세속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일 터이다.

어떤 사찰의 경우 생일을 맞은 스님이 생일상만 받은 게 아닌 모양이다. 신도들이 어렵게 마련해준 생일 축하금이 든 봉투까지 받고 있다고 한다.

뗏뗏하지도 당당하지도 못한 부끄러운 일들이다. 당장 사라져야 할 창피스러운 일들이다.

환갑이 되고 칠순 팔순에 이르러서도 깨달음에 이르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겸손해하며 수행 정진력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할 뿐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도 생일 잔칫상을 받지 않았고, 차려줄 신도도 없었다. 승단의 세속화는 생일 잔칫상 하나로도 그 슬픔이 크다 하겠다. 생일 잔칫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거듭 밝히지만 출가 수행승이 아닌 그 스님의 부모님 몫이기 때문이다. 〈미륵산 사자암 주지〉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UN 베삭절, 5월 28~30일 태국서 열려

80개국 불교 지도자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 · 성도 · 열반을 동시에 기념하는 날인 상좌부 불교의 '베삭(vesak)' 을 기념하기 위해 태국에 모였다.

'Buddhist Channel' 지는 1일 "지난달 28~30일 태국 방콕 유엔컨벤션센터에서 80개국 4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교와 세계 위기' 를 주제로 '제12회 유엔 베삭절(United Nations Day of Vesak)' 을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개막식 기조연설에 나선 키온(Damien Keown · 영국) 교수는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탄생 · 성도 · 열반의 의미를 되새기며, 세계 위기를 극복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세계 불교계는 '헌신' 과 '결단' 으로 동시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베삭절이 처음 천명된 것은 1998년 콜롬보 국제불교회의(International Buddhist Conference) 때다. 당시 상좌부 불교계를 중심으로 베삭에 대한 국제적 공인을 공유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라오스, 몰디브, 몽골,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 등의 불교계가 자국의 유엔 대표의 도움을 받아 1999년 12월 15일 개최된 '제54회 유엔 총회' 의 의제로 '유엔 베삭절 재정' 을 채택하고, 34개국의 지지를 이끌어내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2000년 5월 유엔 본부에서 34개국 불교 지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유엔 베삭절 재정 기념식' 을 봉행했다. 그리고 2005년 5월에는 유엔이 아닌 세계 불교계가 주축이 되어 '제1회 유엔 베삭절' 을 개최할 수 있었다.



5월 28~30일 태국 방콕 유엔컨벤션센터에서 80개국 4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교와 세계 위기' 를 주제로 '제12회 유엔 베삭절(United Nations Day of Vesak)' 이 개최됐다.

'불교와 세계 위기' 주제로 … 80개국 4,000여 명 참석
D. 키온 교수, "불교계, 헌신과 결단으로 동시대 모범이 되어야"
스웨덴 불교연합의 '증오 거부 캠페인' 에 관심 집중

"베삭은 상좌부 불교전통에 따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 · 성도 · 열반을 동시에 기념하는 날" 이라고 설명한 담마라타나(Dhammaratana · 프랑스) 스님은 "인류의 스승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비와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다짐의 축제"라며 "따라서 베삭의 정신이란 '우리가 이 세상의 안정을 위해 실천한다' 는 서원 그 자체"라고 말했다.

"올해 유엔 베삭절은 '환경을 보존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하는 동시대의 화두' 를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자리"라고 말한 필립 스텐리(Philip Stanley · 미국) 박사는 "교육, 환경, 인권, 문화, 건강 등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혜안들이 제시되었다"며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공통의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세계 불교계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던 자리"라고 말했다. 이번 유엔 베삭절에는 위기에 처한 세계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 변혁' '위기 극복' '환경 보호' '건강한 삶' '불교 교육' 등 5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 컨퍼런스가 마하출라롱콘라자비드야라야(Mahachulalongkornrajavidyalaya)대학에서 마련됐다.

'Buddhist Channel' 지는 "이번 컨퍼런스 52개 논문 가운데 스웨덴 불교연합의 예카테리나 파노바(Ekaterina Panova) 위원의 발제에 관심이 모아졌다"며 "예카테리나 의원은 발제에서 스웨덴 불교연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증오 거부(Refuse to Hate) 캠페인' 을 소개했다"고 주목했다.

이에 따르면 불교를 비롯해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스웨덴 주류 종교계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증오 거부 캠페인' 이 다종교 사회의 스웨덴에서 사회적 화합을 이끌어내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

예카테리나 위원은 발제에서 "증오 거부 캠페인은 다종교 사회에서 자칫 터지기 쉬운 종교 갈등의 문제를 '사랑' 과 '이해' 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며 "이를 통해 스웨덴 사회가 '평화로운 공존' 이라는 보편적 윤리관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대표로 '제12회 유엔 베삭절' 에 참석한 진월 스님(동국대 교수)은 컨퍼런스에서 '환경 보호' 분과에 참여,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는 선 수행자의 생활방식으로부터 생태환경보전에 관한 시사를 얻을 수 있다' 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Buddhist Channel' 지는 "올해로 12회를 맞은 '유엔 베삭절' 은 산하 기관인 '유엔 베삭절 국제위원회(ICDV)' 가 2013년 7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특별협의 지위를 부여 받을 만큼 성장했다"며 "이는 불교계가 세계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프랑스 파리에 유럽 최대 불상 나투셨다

높이 10m 금불상 뱅센 숲 그랜드 파고다에 봉안



프랑스 파리의 유명 산책가 있는 뱅센 숲의 그랜드 파고다에 봉안된 높이 10미터의 금불상. 호안 미로 아틀리에에서 제작된 이 불상은 유럽 최대 규모의 불상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파리에 유럽 최대 금불상이 봉안됐다. 'Guardian' 지는 지난 2일 "파리 외곽 뱅센 숲(Bois de Vincennes)의 그랜드 파고다(Grande Pagod)에 높이 10미터 금불상이 봉안됐다"며 "프랑스 불교계의 서원이 담긴 이 불상은 유럽 화단을 이끌었던 호안 미로(Joan Mir)의 파리 아틀리에에서 제작되어 의미를 더했다"고 보도했다.

도메닐 호수(Lac Daumesnil)를 끼고 있는 뱅센 숲은 파리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책 코스 중의 하나로, 이곳에서는 지난 1931년 '국제 식민지 전(展)' 이 개최됐다.

이번에 금불상이 봉안된 '그랜드 파고다' 는 '국제 식민지 전(展)' 당시 프랑스 식민지였던 카메룬의 전통 가옥을 3배 크기로 지어, 전시됐던 목조 건물이다.

카메룬의 전통 가옥은 전시회 이후 다른 설치물과는 달리 철거되지 않고 관리되어 왔는데, 2년 전 프랑스불교연합(French Buddhist Union)이 사용 허가를 받고, 기금을 조성해 리모델링 과정을 밟아 지난달 24일 '그랜드 파고다' 로 새롭게 개원했다.

"카메룬 전통 가옥의 개축에는 약 1,000,000 유로(약 12억 3천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이 기금 모두 종파를 떠나 프랑스 불교계의 힘으로 조성됐다"고 말한 프랑스 불교연합 Liliane Lefait 운영위원은 "그랜드 파고다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될 것"이라며 "예불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곳을 방문한 모든 이들이 평온을 찾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랜드 파고다의 높이는 20미터에 달하지만 울창한 뱅센 숲에서 쉽게 눈에 띄질 않는다"고 말한 Liliane Lefait 운영위원은 "이는 그랜드 파고다가 불교 수행과 신행의 최적의 공간이게 한다"며 "프랑스 불교계가 그랜드 파고다와 그 안에 봉안된 금불상의 원력으로 진일보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호안 미로 아틀리에서 제작
프랑스 불교연합 12여억 원 조성
일반 대중에 개방할 것

프랑스 불교연합은 1960년대 베트남을 비롯해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각각 결성해 운영했던 7개 불교단체를 하나로 묶어 출범시킨 프랑스 대표적인 불교 공동체이다.

한편 'Guardian' 지는 "불상이 제작된 '호안 미로' 아틀리에는 지난 1983년 타계한 스페인 최고의 화가인 '호안 미로' 의 작품을 이어가기 위해 개원된 곳으로, 유럽 최고의 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예술 공간"이라며 "그랜드 파고다에 봉안된 불상이 이곳에서 제작된 것도 큰 의미"라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인도, 훼손 위기 '타보 사원' 구하라

기후변화 · 건설개발 등으로 11C 불교유적 파괴 위험

인도 북서부 히마찰프라데시 주정부가 타보(Tabo)마을에 있는 불교유산 훼손을 막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도 일간지 힌두스탄타임즈는 5월 30일 "히말라야 아잔타 지방 11세기 불교유적 타보사원이 기후변화로 훼손위기에 놓여있다"며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취하고 있지만 기후 · 지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타보사원은 고지대 사막지역 라홀과 스피티 지역의 골짜기 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9개의 법당, 4개 사리탑, 동굴 성지 등으로 구성된 거대 불교 유적지다. 최근 몇 년간 잦아진 폭우와 습도로 인해 진흙구조물과 불상 벽화 등이 고유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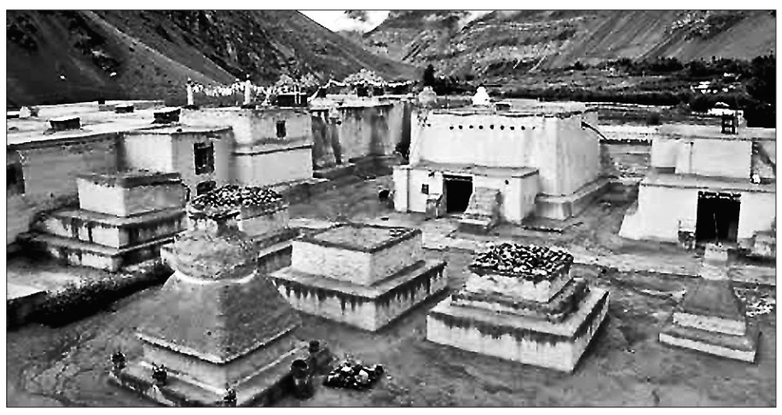
히마찰프라데시 주정부는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인도고고학조사단(the 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 이하 ASI)의 반복적인 복구 작업이 구조물을 해치고 있다"며 "그동안 ASI 차원의 타보사원 복구 및 보존 작업이 이뤄져왔지만 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주정부는 최근 타보사원 주변 무차별적인 건축개발에 대해서도 경계의 입장을 표했다. 힌두스탄타임즈는 주정부가 "해발 3,050m 높이 타보사원 주위에 빠르게 증가하는 건설공사가 타보사원을 더욱 훼손시킬까 염려스럽다. 문화예술부 장관이 나서 건설 활동을 규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히마찰프라데시 주정부는 고고학자와 역사학자들을 동원해 훼손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주정부는 "중앙정부 문화예술부에 타보가 불교 유적 관광지로써 갖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더 이상 허술한 보존 작업으로 타보사원을 방치해선 안 된다. 중앙정부에 타보사원훼손을 막기 위한 컨퍼런스를 주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오프마차드리(Upma Chaudhary) 문화예술부장관 비서는 "우리는 타보사원 유적지를 보호할 방법을 의논하기 위한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고 힌두스탄타임즈를 통해 전했다.

박아름 기자



히말라야 아잔타 지방 11세기 불교유적 타보사원이 기후변화로 훼손위기에 놓여있다. 타보사원은 고지대 사막지역 라홀과 스피티 지역의 골짜기 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9개의 법당, 4개 사리탑, 동굴 성지 등으로 구성된 거대 불교 유적지다.

세계종교의회, 미얀마 승려에 세계평화상

불교 언론 'lionsroar' 은 6월 3일 세계종교의회회의(The Council for a Parliament of the World's Religions)가 노르웨이 노벨연구소에서 미얀마 불교지도자 세인디타(Seindita), 위투다(Withudda), 조티카(Zawtikka)에게 세계평화상(World Harmony Awards)을 수여했다고 보도했다.

이맘 매릭 무자히드(Imam Malik Mujahid) 세계종교의회회의 의장은 "이 승려들은 폭넓은 시각으로 로힝야족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세인디타는 "로힝야족을 해치는 자들에 맞서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로힝야족은 미얀마 이슬람 소수민족으로 2012년 종교분쟁이후 난민 생활을 해오고 있다. 최근 인신매매 조직이 로힝야족을 다수 살해 매장한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박아름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지리산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일대의 자연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1개월/60팩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02)879 - 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125,000원 (무료배송)

불경 라디오 成佛

디자인,구성 upgade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구성 성불라디오 (가로12cm × 세로5.7cm × 두께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베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신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현 불 샵 특가판매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 (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편백나무 경상



▶ 접은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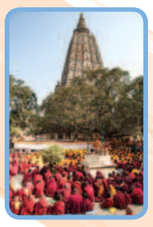


▶ 접이식 고급 경첩

● 재 질 : **편백나무**
● 크 기 : W60㎝ × D40㎝ × H28㎝
● 특 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 격 : 개당 6만원
● 주 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하연투어 예약문의: 02) 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1.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 책정(거침없는 상품가격)
2.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3. 맞춤 순례 운영 *불교행사*
4.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5. 호텔/행사일정/식사 타사 비교 필수

출발확정 상품 [호텔-일정-포함내용-식사 : 타사비교 필수]

미얀마/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출발일 : 7월 11일, 8월 29일, 9월 2일	1,490,000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출발일 : 6월 24일, 7월 17일	1,390,000
[대한민국 영산] 북경/백두산	5일	출발일 : 7월 10일, 8월 30일	1,290,000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출발일 : 7월 10일, 8월 22일	1,290,000
[문수도량] 오대산/용강석굴	5일	출발일 : 7월 17일	1,390,000
[보현도량] 아미산/낙산대불	5일	출발일 : 7월 25일, 8월 18일	1,090,000
중남미 7개국	20일	출발일 : 7월 29일	11,590,000
미동부/캐나다	10일	출발일 : 9월 12일	2,610,000

미얀마
- 양곤/바고/시리암 5일
- 양곤/바간/헤호 5일
- BEST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티벳/부탄
-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 BEST 티벳핵심하늘열차 8일
  중경-라씨-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 방콕/부탄 7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사-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인도/네팔/스리랑카
- 인도 9일
  델리-라즈기르-나란다-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
- BEST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나란다-쿠시나가르-룸비니-카필라바스투-쿠단-산카시아-아그라
- 인도/네팔 15일
-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볼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 BEST 스리랑카 완전일주 순례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라오스
- BEST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 라오스/베트남 7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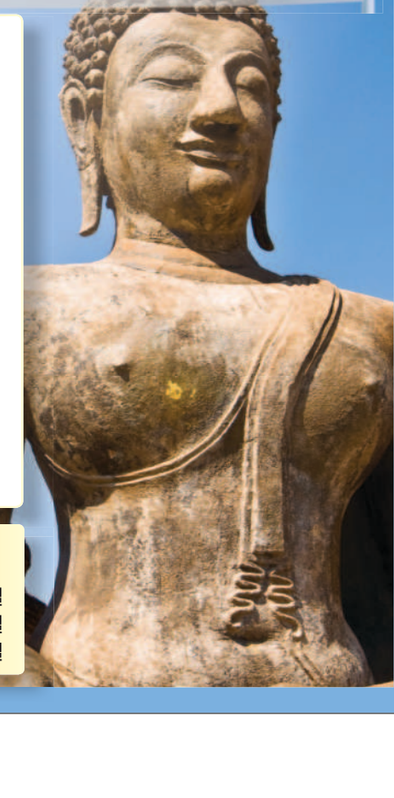
베트남/캄보디아
- 베트남/캄보디아
  [베트남] 하롱베이 [캄보디아] 씨엠립 6일

태국
- 태국
  방콕-아유타야-파타야 5일

대만/홍콩
- 대만 5일
  대만 3대사찰 순례
-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중국
- BEST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BEST [관음도량] 항주/보타/낙가산 5일
- 상해/항주/구화산/보타산 6일
- BEST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BEST [문수도량] 북경/오대산 5일
- [민족의 영산] 백두산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훼리 크루즈(수륙대제 가능)
  대룡훼리, 화동훼리, 위동훼리
- 세계3대 트래킹명소 호도협
  곤명/호도협/옥룡설산 6일

세계 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일주탐방 9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동부 일주탐방 9일



사의적 직관력 붓으로 표현… 남종화 작업은 수행과도 닮아

원학 스님 7번째 개인전… 6월 17일~23일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서



원학 스님은 40여년 남종화의 맥을 이은 문인화로 수행의 방편을 삼아왔다. 이번 전시에서 산수화 사군자 서예 등 총 72점을 전시한다.

"그림 작업은 자연과 내가 하나 되어 심성을 닦고자 노력하는 과정이며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향한 화두와 같다"라고 말하는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이 7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삼이당(三耳堂) 원학 스님 서화전' 이 6월 17일~23일 인사동 아라아트센터 전시실에서 열린다. 40여년 남종화의 맥을 이은 문인화로 수행의 방편을 삼아온 원학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산수화 사군자 서예 등 총 72점을 전시한다.

2009년 이후 6년만에 전시를 여는 스님은 그동안 작업한 그림들을 모아, 봉은사 다래헌에서 겨우내 붓을 들고 정성을 쏟아부어 작품을 완성했다고 한다. 스님은 "열심히 다듬고 했지만 시간에 쫓기어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하지만 나의 온 정성을 쏟아 부어 완성한 작품임에 분명하다. 자연의 아름다운 정경들을 내 심성의 깊이에서 필묵을 통해 표현해 내고자 노력하다보면 어느새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듯 몰입이 된다. 또한 작업 내내 남종화의 사의적(寫意的) 직관력을 잃지 않으려고 초지일관 기본정신에 충실했다"며 그간의 작업 과정을 설명했다.

중국에서부터 내려오는 남종화는 선비의 풍류 정신이 가미된 그림으로 실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북종화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작가가 마음속에 담아둔 풍경을 어느 순간 흥이 돋아 붓 가는 대로 그려내는 남종화는 사의적 직관력을 중요시 한다. 이런 기본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초지일관 노력했다고 말하는 스님은 그간의 작업 과정이 수행과 같다고 강조한다.

"남종선과 상통하는 남종화는 사람의 심성에 노닐 수 있는 직관력을 가져야 가능한 작업이에요. 그렇게 붓 가는 대로 그리다 보면 아름다운 형체가 나와요. 이는 직관력에 의한 마음 수련인 간화선의 수행과정과도 다르지 않죠. 의심을 한곳에 두고 수행하다 보면 깨달음을 얻는 과정과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직관력에 의한 느낌을 붓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남종화의 작업과 수행의 과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스님은 "일상에서 문방사우를 가까이함으로써 마치 수행자가 화두를 들고 일념에 몰두하듯 묵향에 젖어 산하를 그리며 '자연과 내가 합일' 되는 순수성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6년만에 여는 전시로 72점 공개
남종화 기본정신에 충실한 작품
겨우내 봉은사 다래헌서 작업 매진

스님은 20대부터 붓을 들고 스승을 찾아 공부한 지 40여 년이 넘었다고. 언제나 서예의 기본과 삶의 철학을 일깨워 준 청남 오제봉, 사군자를 가르쳐 준 목산 나지강, 그림의 기초를 철저히 닦는 것이 남종화의 근본이 되고 문인의 선비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라 일깨워준 우계 오우선 선생 등이 모두 스님의 스승이다.

하지만 스님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남종 문인화의 맥이 끊긴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한다. 스님은 "남종화에 관심을 갖는 이들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 남종화의 문인정신을 지켜 나가는 일은 더욱 어렵고 험난한 일이며 고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누가 무엇이라 하든 나는 언제나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자연의 아름답고 순수한 정경들을 마음속에 담아내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수행과 문인화의 기본 정신에 충실하여 반드시 살아 숨쉬는 남종화 전통을 지켜 갈 것"이라며 의지를 전했다.



산심수원 도향만춘(山沈水遠 挑香滿春) '산 깊고 물 깊어 복숭아꽃 향기 봄빛 가득하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원학 스님은 첫염불 독송집 금강경 독송CD도 출시했다. 금강경, 반야심경, 화엄경 약찬게 등으로 구성된 이 음반은 불자들의 신행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되었다. 봉은사는 "지난 3월부터 금강경 기도를 진행중인 봉은사 신도들이 집에 돌아가서도 자기 점검을 하고 기도정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작 되었다"며 취지를 전했다. (02)733-198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부처님의 설법모임 화폭에 담아

국립중앙박물관 테마전 '청룡사 괘불' 전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11월 29일까지 테마전 '청룡사 괘불' 을 상설전시관 2층 불교회화실에서 연다.

청룡사 괘불(보물 제1257호, 1658년)은 17세기 조선이 성대한 불교의식을 거행하면서 조성한 야외 의식용 괘불이다. 당시 불교의식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죽은 많은 영혼들을 위무하기 위해 법당 내부에서 외부 공간으로 이동해 괘불을 걸고 죽은 이들을 천도하기 위한 대승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의식이 거행되고 석가모니와 영취산 설법이 그려진 괘불이 법당 밖에 걸리면 현세의 공간은 부처님이 머무는 정토로 바뀐다.

법회에 모인 많은 청중 중에서 부처님의 앞쪽에 가사와 장삼을 입고 머리를 깎은 인물이 뒤돌아 앉아 있는데 이는 부처님의 제자 사리불이다. 사리불은 설법을 듣는 청문자인데 이 도상은 명대(明代) '법화경변상도' 에 이어 조선전기 〈법화경변상도〉의 영향을 받아 그려진 것으로 괘불에서는 '청룡사 괘불' 등 3점에만 등장하는 보기 드문 예다.



박란 등이 제작한 청룡사 괘불(보물 제1257호, 1658년 제작)

1658년 괘불을 조성한 곳은 인평대군(1622~1658)의 원당(願堂)인 안성 청룡사였다. 주상전하와 왕대비전하, 왕비전하, 세자저하의 안녕을 받들어 모신다는 축원문과 성주 김홍석이 괘불 조성을 위해 향대를 시주하였다는 내용이 화기에 기록되어 있다. (02)2077-9000

정혜숙 기자

난원 정향자 사경 특별초대전

6월 28일까지 송광사성보박물관에서

난원 정향자 씨의 사경 특별초대전이 6월 28일까지 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지난 10년간 작업한 33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 '불정심다라니경' 은 고려시대 감지금니의 맥을 잇는 동시에 문화재보존의 역할에 기여하고자 했다. 작가는 " '불정심다라니경' 을 다시 한번 역사의 장으로 끌어내어,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지혜로 중생구제의 염원을 실현하고자 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또한 '관세음보살32응신도' 는 '관세음보살보문품' 을 화첩으로 표현했다.

늦깎이로 호남대 서예학과에 입학하면서 사경 작업을 하게 되었다는 작가는 "어렸을 때부터 서간문을 쓰시는 어머니를 보고 자라 자연스럽게 서예를 접하게 되었다. 이후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 논문을 작성하던 중 현장 스님께서 사경을 권해 '사경의 정신성' 에 대한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받았다"며 사경을 접한 계기를 설명해 주었다. 이후 작가는 실기의 중요성을 알고 김경호 작가를 찾아가 금니 사경에 대해 공부했다.



정향자의 사경작품 '관세음보살보문품'

전법을 하는 마음으로 작품에 임했다는 작가는 "늘 마음을 정갈히 하고 청정한 재료를 사용해 작업했다. 이번 전시가 부처님 법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062)453-3581

정혜숙 기자

화엄사성보박물관 상설전시

화엄사의 성보박물관이 상설 전시를 개최한다. 화엄사(주지 영관)는 '화엄 세상에 놀다!' 라는 주제로 6월 30일까지 서탑 출토유물, 동탑 출토유물, 벽암 각성 스님 가사, 서산대사 가사, 화엄석경 등을 전시한다.

보물 제1040호 화엄석경은 통일신라에 조성된 두께 2.7~6.4cm 크기로 13,000여 점이 전시되며, 보물 1348호 서오층석탑에서 출토된 불상틀, 화문합, 뒤꽂이, 수저, 사리병, 수정, 청자양이병, 청자양이병 내 구슬, 령, 소탑, 광배편, 탑다라니, 필사다라니 등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 대중과 만난다. 특히 1594~1604년 사이 제작이 추정되는 서산대사의 가사와 벽암대사의 가사(1626년 제작)도 전시된다.

이외에도 고려시대 범종, 청자상감국화문잔탁과 조선시대 선조대왕하사 서산대사발우 및 뚜껑, 복장낭 등이 전시된다.

또한 동오층석탑에서 나온 유물 일체와 호남도구례현지리산대화엄사적, 전라도구례현지리산화엄사각황전불량축원록, 전라좌도구례현지리산호엄사대웅전불량축원록, 선조대왕어필 목판, 호계첩 판 등이 공개된다. (061)783-7610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원불교미술원
청동불사 조성(제작) 전문
청동불상, 개금, 탱화, 단청 일체
진실과 원칙, 최고의 재료로 부처님 조성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 많은 조언과 믿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스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 임영달 합장



경기 포천시 내촌면 진목 1리 915-14
전화 031)532-3722 | 010-7171-2636 | 팩스 031)533-3722
이메일 lyd5798@naver.com

청정지역 거제멸치
삼성각 건립을 위하여 스님께서
직접 손질하여 위생적이고 깨끗하므로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당일 즉석 건조하여 신선도 유지
직거래 유통으로 가격이 저렴
청어 멸치는 거제 가조도(섬)에서만 잡힘(청정지역)
※ 불자님과 사찰스님께서 필요하신 신도님이 함께 구입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10박스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멸치에는 일반멸치와 청어멸치가 있음
※ 주의 : 가격은 시기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고 멸치의 크기도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 055)633-9766 / 010-7169-9878
거제 금룡정사 대정 스님

신선초 산삼
전문점 모집
산양삼 장뇌삼이 아닌 천연산삼 순수종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실분을 모십니다.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선착순 세분만 모십니다. 관심있는 분은 아래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H.P 010-5633-7010



고판화로 만나는 '지혜의 빛'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만나는 판화의 美

K-Museums 초청특별전 '인쇄문화의 꽃, 고판화'



〈목련경〉. 1584년(선조17) 승가산 흥복사 간행본으로, 〈대목건련경〉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효도의 경전으로 널리 독송되었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 서울 나들이

흥복사 1584년 발행본 〈목련경〉

밀교 관음사상 상징 '십일면…'

정희대왕대비 발원 변상도 '주목'

1584년 승가산 흥복사에서 발행한 〈목련경〉을 비롯해 고판화 100여 점을 선보이는 전시가 마련됐다.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천진기)은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선학)과 함께 7월 20일까지 기획전시실Ⅱ에서 특별전 '인쇄 문화의 꽃, 고판화'를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민속박물관이 지역 공·사립박물관 소장품을 서울에서 만난다는 취지에서 기획한 'K-Museums 초청특별전'의 첫 번째 행사로 민속박물관이 공·사립박물관 활성화 차원에서 해당 지역 박물관에서 시도하는 합동 기획전을 확대한 것이기도 하다.

인쇄문화의 꽃, 판화의 역사와 쓰임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전시에서는 옛 판화의 역사와 쓰임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 구성되었다. △'1부 세상을 밝히다_지식', △'2부 소망을 담다_염원', △'3부 멋을 더하다_꾸밈'으로 나뉘어 관람객들을 찾는다.

특히 이번 전시회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되어 눈길을 끄는 작품은 일본에서 발굴해 온 임란 전인 1584년 승가산 흥복사에서 발행한 〈목련경〉이다. 희귀본으로 평가 받는 작품으로, 한국판화만의 독특한 선묘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우리나라 회화에 큰 영향을 준 중국의 화보(畵譜)인 '개자원화전(芥子園畵傳)' 초간본과, 조선의 선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소설 서상기 삽화, 조선시대 화가의 아름다운 채색이 들어 있는 시여화보도 우리나라에서 발굴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정희대왕대비 발원 변상도(貞熹大王大妃 發願 變相圖 · 1470년)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불교 변상도중 하나다. 이 보다 앞서 제작된 광평대군신씨발원변상도(1459)는 일본서래사에 소장되어 있으며, 한국 소장본으로는 가장 뛰어난 판본이다. 특히 조선시대 8대 각수중에 한 명인 홍개미치 서명이 들어가 있어 흥미롭다.

십일면천수천안관음보살도(중국 청 도광 道光 1821-1850)는 밀교의 관음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자 천 개의 눈과 천 개의 손을 가진 관음보살을 그린 판화로, 중생의 고난을 해소하고자 손에 각종 법기를 들고 있다. 청나라 문학가이자 장서가인 석온옥(1756~1837)이 쓴 글이 있으며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료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소개되는 작품 중에 군계일학으로 꼽히는 작품은 청나라 건륭년간(1761-1782)에 소주 도화오에서 제작된 대형당시화보판화이다. 일본 우키요에에도 큰 영향을 미친 판화로 소주대형산수판화는 세계적으로 남아 있는 작품이 100여점이 채 안되게 남아있다.

당시선화보 판화는 당나라 함통십철로도 꼽히는 장빈의 시를 소재로 한 작품이며, 서양의 원근법과 음영법을 사용한 실경적인 묘사를 도입하였으며, 서양의 동판화기법도 사용된 매우 드문 세계적인 판화로 평가된다. 한편,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은 학술·예술적 가치가 높은 옛 판화를 수집·연구하고 널리 소개하는데 앞장서 온 박물관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번 특별전은 원주에 위치해 있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의 옛 판화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자리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전시 후 9월부터는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에서 순회전시로 이어질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세 점 보물 지정

동제염거화상탑지 등 14일까지 전시

국립춘천박물관(관장 최선주)은 박물관 소장 불교문화재 중 올 4월 보물로 지정된 유물 세 점을 6월 14일까지 특별공개한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작품은 △동제염거화상탑지(보물1871호) △전 회양 장연리 금동관음보살좌상(보물1872호) △원주 학성동 철조약사여래좌상(보물1873호)등이다. 춘천박물관은 "지난 4월 보물로 지정된 세 점의 유물은 한 달 여 간의 보물지정 예고 기간을 거쳐 보물로 지정되었다. 이에 기존의 유물과 함께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취지를 전했다.

'동제염거화상탑지'는 얇은 동판에 통일신라 선종 염거화상이 844년(문성왕6)에 입적한 내용과 855년에 탑지를 제작한 내용을 해서체로 전각했다. 동판에 새겨진 글씨는 9세기에 유행한 쌍구체(雙鉤體)로 당시 서체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며, 축조의 정교한 끌 자국은 통일신라 금속공예 기술의 우수함을 잘 대변해 준다. '전 회양 장연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섬세하고 정교한 표현기법이 돋보이는 관음보살좌상으로 원나라와 고려, 조선 불교조각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녔다.

'원주 학성동 철조약사여래좌상'은 일제강점기 때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읍옥평) 들판에서 서울로 무단으로 반출된 다섯 구의 철불 가운데 하나다. **정혜숙 기자**

문화속에서 만난 佛敎

공업 씻는 것은 구성원 공동의 몫이다

〈共業〉

OCN 드라마 '실종 느와르 M'



〈실종 느와르 M〉은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느와르와 호로 장르를 혼합해 만든 드라마다.

드라마(Drama)를 가리켜 한국에서는 연속극이라고 한다. 드라마는 본래 극(劇)의 의미로써 희극(Comedy)과 비극(Tragedy)의 통칭으로 사용되던 고대 그리스어이다.

사전적 의미는 "행동하다"이다. 따라서 배우가 인간 행위를 모방하는 연극, 영화, TV 드라마 등 배우가 등장하는 모든 장르를 포괄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드라마라고 하면 가장 먼저 연속극부터 떠올린다. 이는 아마도 TV라는 매체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재밌는 것은 외국에서는 연속극을 'Soap CF'라고 부른다는 사실이다. 연속극의 시작이 비누 광고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는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가 지적한 시뮬라르크(Simulacre)가 얼마나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지 대변하는 것이다.

참고로 시뮬라크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놓은 인공물을 지칭한다. 즉, 때로는 존재하는 것보다 더 실재처럼 인식되는 대체물을 말한다.

가령, 가상게임이 대표적인 예일 테지만, 문화적으로 볼 때 가장 앞선 것은 텔레비전일 것이다.

이처럼 드라마는 태성적으로 대중문화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한국의 드라마는 사회적 특징 때문인지 천민자본주의적 문화를 여과 없이 고스란히 반영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침 드라마는 불륜, 저녁 드라마는 신데렐라 콤플렉스라는 공식을 벗어나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중파 방송의 드라마들은 그 주인공들 중에 상류층이 끼지 않는 법이 없다. 대중이 지니고 있는 신분상승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한국 드라마의 법칙을 깬 것이 종편 드라마들이다. JTBC가 방영한 〈유나의 거리〉와 이번에 필자가 소개하려는 〈실종 느와르 M〉이 대표적이다.

〈유나의 거리〉는 〈서울의 달〉로 유명한 김운경 작가가 극본을 쓴 하층민의 삶을 다룬 드라마였다면, 〈실종 느와르 M〉은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느와르와 호로 장르를 혼합해 만든 드라마다.

총 10부작 중 방송된 7부작 내용을 보면 성폭행 피해자 아들의 가해자에 대한 복수, 아들을 잃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

M은 수수께끼이면서 메모리

동해보복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

한국사회 무의식의 기억 수면 위로



한 복수, 물증이 없어 면죄부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복수, 정리해고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복수 등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다. 상흔에 대한 복수라는 공식은 자연스럽게 동해보복(同害報復)을 떠올리게 한다.

동해보복은 고대 바빌로니아 법률에서 범죄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상처 및 피해와 정확히 똑같은 벌을 주도록 한 원칙을 일컫는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동해보복의 당사자가 피해자 개인인 동시에 사건을 방조한 사회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업(共業)을 떠올리게 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영화의 부흥기에 주목 받은 작품들인 윤종찬의 〈소름〉, 봉준호의 〈살인의 추억〉, 공수창의 〈알 포인트〉, 박찬욱의 〈올드 보이〉 등은 산업화 혹은 근대화의 폭력에 대한 상흔을 그렸다.

마찬가지로 〈실종 느와르 M〉은 전근대, 근대, 탈근대라는 격동의 시간을 반세기만에 이룩한 한국사회 위업의 이면에 잠재해 있는 우울한 무의식의 기억을 수면 위로 떠올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인연(因緣)이란 말에서 '인'은 결과를 산출하는 내적·직접적 원인이며, '연'은 결과의 산출을 도와주는 외적·간접적 원인이다.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주된 것이 인이며, 보조적인 것이 연이다. 또 인을 넓게 해석하여 인과 연을 합해 인이라고도 하고, 반대로 연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생겼다가 인연에 의해 멸한다.

용수(龍樹)는 《중론(中論)》에서 "존재의 생멸(生滅)은 진실한 모습이 아니므로 '불생불멸(不生不滅)'이며, 나아가 그 인연마저도 실재성이 부정되므로 모든 존재는 공(空)"이라고 했다.

그런가하면, '12연기법'에 따르면, 인연은 전생, 현생, 내생으로 이루어지는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순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12연기인 것이다. 이 고통의 삶은 한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여러 사람에게 동시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공업(共業)은 말 그대로 공동이 지은 업보이다. 따라서 업보를 씻는 것도 공동의 몫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종 느와르 M〉은 그 사실을 일러준다. 아마도 〈실종 느와르 M〉에서 M은 Mystery(수수께끼)를 의미할 테지만, 필자에게는 Memory(기억)로 읽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응오 작가

불자님들의 오늘 운세 는?

백팔번뇌 운수카드 + 복주머니

1SET 3만원

TIP 백팔번뇌 파자비결에 있소이다!

갑골문자(甲骨文字)는 신석기 시대 점괘(占卦)를 기록한 점서로 한자의 모체가 되어 변(邊)과 획(劃)에 신통력이 있다. 바로 격암유록이나 정감록비결은 파자(破字)의 신통력으로 국운을 예지(叡智)한 예언서이다. 나라에는 흥망성쇠가 있고, 인생항로에는 길흉화복이 있으니 천부(天賦)의 계시로 신통력이 있는 백팔번뇌 파자비결(破字秘訣)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고통은 구름처럼 사라진다.

■ 계좌번호 : 우체국 011965-02-112777 (예금주 : 한영필)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 1길 16 정원아트하우스 2층 201호 / 전화 010-7742-3111 松岩 한영필 합장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래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31~6/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심심한생각채우기(엽서컬러링북)	아름다운인연	누똥바
2	불설아미타경소초	불광출판사	운서 주굉
3	꽃잎이떨어져도꽃은지지않네	여백	법정/최인호
4	남을위해기도합시다	장경각	퇴옹 성철
5	아잔브람명상론(1)-알아차리기	북투더바이블	아잔브람
6	산사에홀로앉아	모과나무	일운스님
7	"당신, 전생에서 읽어드립니다"	김영사	박진여
8	숨만제대로쉬면무병장수문제없다	사유수	수신오도
9	꿈을깨면 내가부처	정토	서암스님
10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효림	우룡큰스님/김현준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뇌 변화시키는 의식적 10초에 주목을"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행복한 뇌접속
릭 핸슨 지음
김미옥 옮김
담앤북스 펴냄
1만 8천원

낮에 실수한 것이 잠자리에 들어서도 줄곧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뇌의 진화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것에 먼저 반응하도록 진화됐다

우리는 6억 년 동안 당근보다는 채찍에 훨씬 더 잘 적응하며 살았다. 만약 우리가 오늘 당근을 얻지 못하면, 내일 당근을 얻을 다른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오늘 채찍을 피하지 못하면, 영원히 다시는 당근을 기대할 수 없다. 인류는 이런 원칙을 오랫동안 지켜왔다. 야생에서 생활할 때 규칙 제1조는 "오늘 밥을 먹어라, 절대 밥이 되지 마라."는 것이다. 채찍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채찍에 치열하게 반응하고, 채찍을 잘 기억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채찍에 더욱 민감해진 것은 수억 년 동안 생사가 달린 문제였다.

이렇게 뇌는 부정적 성향을 각인하도록 진화해왔다. 오늘도 우리가 운전 하면서 교통 체증에 걸리거나, 회의에 늦지 않으려고 서둘르거나, 아이들 말다툼을 해결하거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뉴스를 보거나, 집안일과 씨름을 하거나, 각종 요금을 지불하거나 데이트를 할 때 이런 부정적 성향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작동한다. 뉴스를 볼 때 살인사건이나 재난에 더욱 귀가 솔깃한 것도 이런 잠재 위험과 손실을 찾아헤매는 성향과 무관치 않다.

요즘 뇌과학 중에서도 가장 핫한 이슈는 바로 신경가소성 분야다. 이는 인간의 두뇌가 경험에 의해 변화되는 능력을 말한다. 즉 뇌가 성형적(plastic)이고 순응성적(malleable)이라는 것이다. 20세기 후반부터 드문드문 제시된 이런 연구결과들은 21세기 들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고 이제는 '확정' 된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신경가소성 분야의 전 세계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이 바로 이 책의 필자인 릭 핸슨이다.

그는 사실 뇌의 부정적 성향 때문에 우리는 특히 부정적 경험에 의해 바뀌기 쉽다고 말한다. 또한 인간의 뇌는 유년기에 초고도 학습을 하도록 만들어져 학대, 방치, 굴욕, 왕따, 차별 대우, 호된 질책, 가난, 재정적 어려움, 부담스러운 비밀, 비굴한 경험, 배척, 가정불화, 부상, 장애, 질병 같은 유년기의 문제는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저자는 반대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뇌가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과 회복탄력성 같은 내면의 힘은 주로 긍정적인 경험서 비롯된다. 물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의식적으로 꾸준히 긍정적인 경험에 관심을 쏟지 않는 한, 긍정적인 경험은 대부분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흘러내리듯이 우리의 뇌를 스쳐지나가 버린다.

우리 뇌의 운영 체계에는 본래 공감성 설정과 반응성 설정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 체계가 처리하는 주요 욕구가 기본적으로 충족되는 것을 경험하는 한, 그 체제는 공감 모드로 초기 설정이 된다. 안전하게 느낄 때 위험 회피 시스템은 공감 모드로 바뀌며, 그로 인해 우리는 만족감과 성취감,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 이완과 평정, 평화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타인과 소통하는 기분을 느낄 때 타인에 대한 애착 형

뇌과학중 핫이슈는 '신경가소성 분야'
저자는 이 분야 세계 최고 권위자
내면의 힘은 주로 긍정 경험서 비롯
뇌 공감모드 지속되면 스트레스 소멸

성 시스템은 공감 모드로 설정돼 사랑과 친절, 동정심, 자존감, 소속감, 친밀감 같은 감정을 일으킨다. 요컨대 저자는 이런 것을 뇌의 '녹색' 설정이라고 생각한다. 공감 모드서 우리는 도전이 곧 스트레스 요인으로 되지 않도록 도전에 대응한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뇌에는 일종의 충격 흡수 장치가 있어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게 보호해 준다.

따라서 우리는 공포나 좌절, 번민의 느낌에 사로잡히지 않고 위험이나 상실, 거부에 대응한다.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난관에 부닥치기도 하지만, 안전감과 만족감, 사랑받는 느낌 같은 근원적인 감각을 가진다.

뇌는 우리의 신체를 지배하는 최고사령부다. 공감 모드서 뇌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보존하고, 공급받고, 복구하도록 지시한다. 우리 조상들은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손상시키는 스트레스가 많은 활동으로부터 뇌를 지키고, 관리하고, 회복하도록 뇌의 이런 설정을 발달시켜왔다. 이를테면 우리의 뇌가 녹색 모드가 될 때 방출되는 엔도르핀을 비롯한 천연 오피오이드와 일산화질소는 박테리아를 죽이고 고통을 완화하며 염증을 가라앉힌다. 나쁜 건강의 원인이 되는 발병 과정과 달리, 공감 모드는 좋은 건강을 가져온다. 공감적 경험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뇌는 미래의 도전에 공감 모드로 잘 대응하도록 준비한다. 공감 모드는 우리 조상들이 공감 모드를 추구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기분 좋은 것이 되도록 진화해왔다. 공감 모드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실제로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녹색 모드가 될 때, 우리의 신경망은 더 이상 결핍이나 불안 상태가 아니며 시상하부의 활동이 줄어든다. 식욕과 성욕, 갈증을 비롯한 욕구의 중앙 제어 장치가 욕구들을 진정시킴에 따라 우리의 결핍감과 압박감, 부담감도 누그러진다. 우리의 뇌에 대체로 혐오감, 욕심, 집착의 기반 등 넓은 의미에서 갈망이 발붙일 여지가 점점 더 줄어든다. 결핍이나 불안 상태에 기반한 동기는 점차 사라지고, 따라서 걱정과 불안, 실망, 강박감, 상처, 수치심도 줄어든다.

점점 더 공감 모드에 머무를수록 스트레스와 두려움, 좌절감, 두통등 넓은 의미에서 고통의 기저에 있는 신경 생물학적 원인은 점차 소멸된다. 이미 안전하고 강한 느낌, 성취감, 감사하는 마음, 존중받고 사랑받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남들에게 더욱 공정하고 온정적이고 너그러워질 수 있다. 자신의 주요 욕구가 충족되었다는 만족감에서 우리의 타고난 자애가 자연스레 흘러나올 수 있다.

저자는 우리의 뇌를 적색모드서 녹색모드로 바꾸기 위해 '좋은 것을 취하기' 훈련을 권한다. 이 훈련은 즐거움을 쫓거나 괴로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을 취하기는 그런 추구를 끝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좋은 경험을 뇌에 각인할 때, 즉 이미 평화스럽고 만족스럽고 사랑받는 것의 감각을 형성하고 있을 때, 행복은 점차 무조건적이 되고 직장에서 파트너가 좋거나 일진이 좋다거나 하는 외부 상황에 덜 의존하게 된다. 긍정적인 정신 상태는 긍정적인 신경 특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점차 내면에서 자연히 솟아나는 행복에 머무르게 된다. 좋은 것을 취하기는 5초 혹은 단 10초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평화롭다거나 사랑스럽다는 느낌을 알아차리고 10초만이라도 유지한다면 우리의 뇌는 분명 바뀔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 한다. 다만 이 과정은 '의식적' 이어야 한다.

의식적으로 좋은 경험을 취하지 않는 한, 좋은 경험은 대개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흘러내리듯이 거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우리의 뇌를 스쳐지나가 버린다.

선사들 삶과, 수행 일화로 보는 인생 맞춤법

스승과 제자, 함께 걷다
성재헌 지음
조계종출판사 펴냄
1만 5천원

어떻게 해야 참 나를 깨달아 마음의 고향에 이르러 다 같이 영원토록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참 나를 깨달은 눈 밝은 '참스승' 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광대무변하고 심오한 마음의 고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법문의 가르침처럼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진정한 행복에 도달키 힘들다. 속세에 물든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것임을 알아챔은 물론 그 삶을 스스로 고쳐가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능 한게 이유다.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의 말씀처럼 우리는 곁에 '진정한 스승' 을 둘 필요가 있다. 그 스승은 우리에게 따끔한 충고나 따뜻한 한마디 말로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때론 호통을 쳐서 지쳐 처진 정신이 확 들게 해준다. 사제의 연을 맺고 삶과 깨달음의 길을 함께 걷던 선사들 이야기는 작게나마 우리의 삶에 잘못된 점을 짚어주는 '스승' 이 되어 줄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성재헌은 〈불조통기〉 〈불조역대통재〉 〈오등회원〉 등 불가 선사들의 삶이 기록된 많은 경전을 토대로 그들의 일화를 재

사람 노릇 해야 진정한 부처된다
"깨달음의 순간에만 집착 말자"

구성해 재미있고, 읽기 좋은 이야기로 재탄생시켰다. 특히 아홉 주제를 통해 엮인 이 이야기들은 각각 우리가 잊던 삶의 덕목들을 지적하는 데 의미가 있다.

불가서 지향하는 삶의 덕목들, 인연 평등 공경 참나 자비 하심(下心) 등등…. 이들은 딱딱하고 팍팍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 필요한 덕목들임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우리는 저자가 제시한 선사들의 일화를 통해 속세의 때를 조금씩 벗고 온몸 가득 시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저자의 말처럼 이 글에 담긴 선사들의 삶은 '아픔' 을 지양하고, '평온함' 을 지향하는 우리의 삶에 대나무 숲에 불어오는 청정한 한 줄기 바람이 되어 줄 것이다.

대나무 숲 가득 이는 바람처럼 청정한 선사들의 삶을 닮는 법, 다시 말해 이 책을 읽는 법에 대해 몇 가지 짚어 보자.

첫째, 알고 있는 지식이나 자기 삶의 기준을 내려놓자. 불가에서는 기존에 자신이 알던 지식이나 삶의 기준도 깨달음의 길에선 방해물일 뿐이라 생각한다. 이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다. 종이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노래를 불렀다던 곡천 스님, 생전 처음 보는 행인의 병수발을 들던 시탄 스님 등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는 상식 밖의 삶을 산 분들이다. 우리의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내 안의 많은 것을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선사들을 만나자.

둘째, '깨달음' 의 순간에 집착하지 말자. '깨달음' 의 순간은 그곳에 도달한 이들만이 알 수 있는 미묘한 어떤 것이 있다. 우리에게는 애매모호하고 알 듯 모를 듯한 경계가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선사들이 어떻게 삶을 꾸렸는지가 중요하다. 사람을 대하는 법, 수행의 순간들, 삶의 방식 등에 묻어나는 선사들의 모습에 길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 순간의 문장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또 하나의 '집착' 을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세간-출세간, 경계는 없음을 인지하자. 부처님 가르침 앞에서는, 진리 앞에서는, 진실 앞에서는, 기존 사회에서 질서라는 이름으로 부여하고 또 점유하였던 권위와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 엄밀히 말하자면 출가자와 재가자, 스승과 제자의 구분도 상황에 따른 일시적 호칭일 뿐, 항상 스승인 자도 항상 제자인 자도 없다.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훌륭한 덕목들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서로 권장하는 '좋은 친구(善友)' 와 '길동무(道伴)' 가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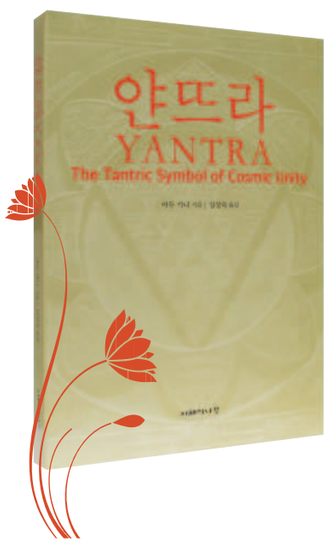
부처님 가르침을 받드는 이들의 모임을 '승가(僧家)' 라 한다. 승가가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큰 특징 중 하나는 '평등' 이다. 이는 불교가 지향하는 덕목의 하나인데, "엄밀히 말하자면 출가자와 재가자, 스승과 제자의 구분도 상황에 따른 일시적 호칭"일 뿐, 좀 더 확대해 보자면 그들의 삶은 우리의 삶과 다를 것 없다는 뜻이 된다. 우리 모두 불성을 지닌 부처라 하지 않았던가.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그 어떤 차별적 기제가 적용되지 않던 불가의 특징을 되새겨봐야 한다.

"(중략…) 자네는 통 열리지 않는 스님의 입만 쳐다보고, 부드러운 강물처럼 흐르는 스님의 일상은 왜 보지 못했는가? 이른 새벽종이 울리고부터 깊은 밤 촛불이 꺼질 때까지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일과를 수행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 얼굴 한 번 찡그리는 법이 없는 것은 왜 보지 못했는가? …(중략)"

위의 책 속 글에 담긴 의미를 곰곰이 곱씹어 보자. 그들의 삶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읽어 볼 가치가 있는 이유는 이 말에 담긴 의미와 다르지 않다.

김주일 기자

지혜를 들여다 보면 자신이 보인다!!!



안뜨라 YANTRA
The Tantric Symbol of Cosmic Unit

우주적 합일의 딴뜨라 상징 얀뜨라
얀뜨라는 명상과 의례의 도구이며, 복잡한 형이상학적 상징이다.

이 책은 얀뜨라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접근이다. 170장 이상의 흑백과 컬러 얀뜨라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근원적 전체로 회귀하기 위한 영적 여정에 도움을 주는 우주적 합일의 딴뜨라 상징으로 얀뜨라의 역동적 과정을 차례로 설명한다. 이 책은 매우 중요한 인도의 강력한 상징에 대한 모든 측면을 설명한다. 얀뜨라는 전통적 사원 건축과 조각, 명상에 활용되며, 의례와 만뜨라와 관련된다. 저자는 인도의 흑주술과 백주술 전통 모두에 사용되는 얀뜨라 뿐만 아니라 부적으로서 힘을 가지는 얀뜨라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가격 : 19,800원 | 마두 카나 지음 | 심상욱 옮김

철리와 과학,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부처님 경전

마음은 무엇이며 그 수행은 어떠한 것인가?
천명일 선생의 명쾌한 해설로 부처님 말씀을 생생하게 듣는 듯합니다.



수능엄경 (首楞嚴經)

천명일 해설

가격 : 상 20,000원, 중 20,000원, 하 27,000원 | 세트 전3권 값 67,000원

도서출판 지혜의나무 [전화 02-730-2211]

마음의 정원
{ 랄랄라 진관사 }



· 구수하고 깨달음이 담긴 이야기 보따리가 빵빵 터질 것 같은 느낌이다. 〈세계일보〉
· 진관사의 역사와 전설, 아름다운 경내, 소박한 절밥 전통 등을 총망라한 책이다. 〈미디어붓다〉
· 비구니 스님들의 새벽 예불, 소박한 전통이 남아 있는 사찰 음식, 아름다운 건물과 자연환경 등을 글과 사진으로 담아냈다. 〈연합뉴스〉
· 최근 출간된 '랄랄라 진관사'(클리어마인드)는 도심 사찰도 아니고 산사도 아닌 진관사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조선일보〉
· 많은 이들이 꿈에 그리는 절을 찾아내 널리 알리는 책을 내는 일을 복으로 받아들였다. (중략) '절집 이야기 시리즈' 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첫번째가 진관사다. 〈불교포커스〉

절집 이야기 1
마당을 거닐거나 법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절이 있습니다. 나보다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곳! 클리어마인드〈절집이야기〉시리즈는 이런 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황찬익·수경 지음 / 클리어마인드 / 값 15,000원 전화 (02) 2198-5151 / 팩스 (02) 2198-5153 / 이메일 gobs108@hanmail.net

계율 방치된 시대, 불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불자로 산다는 것

불광 펴냄 | 도일 지음 | 1만 4천원



불교 공부에 심취해 교리에 해박하고 수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복과 명을 빌기 위해 습관적으로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다. 또한 부처님오신날이나 동지 같은 불교 명절에만 절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불교의 분위기를 좋아해 심정적으로 자신을 불자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불자답게 사는 길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부처님이 제정한 생활 규범인 계율에 있다.

계율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지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잘못된 행위를 단절하는 것이 업을 바꾸는 길이며, 업을 바꿈으로 해서 새로운 삶을 갖게 된다고 가르친다.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 좋은 업을 지어 행복을 만들어가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계율을 알고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2,600여 년 전 인도에서 만들어진 계율을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지키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 가령 사회생활을 하며 철저히 자신의 의지대로 육식을 하지 않고 술 한 잔 기울이지 않는 것이 계율을 온전히 지키는 일이며 불자답게 사는 길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 지난 10여 년간 승보종찰 송광사 율학승가대학원 원장을 지낸 도일 스님이 이 책 〈불자로 산다는 것〉을 통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 책은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을 현대사회의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실천할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총 4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일상생활의 의식주를 비롯해 불자답게 살아가는 불교생활백서가 펼쳐진다.

1장 '승가에 살어리랏다' 에서는 승가의 구성과 화합에 초점을 맞춰 스님답게 사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승가의 자기정화 방식, 질서를 유지하는 법, 사제간의 책임과 의무, 승가의 분쟁해결법 등이 율장에 근거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시되어, 현재의 복잡다단한 승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에 충분하다. 2장 '불자로 살어리랏다' 에서는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인격의 완성을 이끌고 있다.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사상적 토대를 마련해주고, 일상생활에서의 수행법을 비롯해 불자의 경제관, 마음가짐 등에 대해 세세한 안내가 뒤따른다. 3장 '불자의 의식주 생활양식' 에서는 먹고 입고 주거하는 일상의 기본적인 생활에 있어서 올바른 지침을 잡아준다. 즉 불자라면 늘 마음에 걸리는 육식과 음주 문제를 비롯해, 의복과 주거, 불교의 장례와 제사 문화까지 명쾌하게 풀어준다. 마지막으로 4장 '현대사회에서의 불교적 삶' 에서는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불교는 정치와 사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며,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제안한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부처님은 세간해(世間解)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현실적인 삶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중요하게 여겼으며, 계율이 고정불변의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부처님은 이미 제정된 계율이더라도 풍습이나 환경에 따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스스럼없이 계율을 수정했다. 그러므로 부처님 당시의 계율을 어떻게 현대의 보편적 가치에 맞게 적용하여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계율은 삶을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자유와 진리를 향한 바른 삶의 실천이다. 부처님은 "내가 열반에 든 뒤 계율을 스승으로 삼으라"고 했다. 선지식이 없는 곳에서는 계율이 곧 스승이 된다. 세상살이가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 이 책은 재발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해 줄 것 같다.

김주일 기자

저자 도일 스님은?

1973년 양산 미타암으로 입산했다. 이후 통도사에서 월파 스님을 은사로 월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비구계를 수지했다. 태국 왕립 마하출라롱콘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학 객원연구원을 역임했다. 대강백 각성 스님께 전강을 받고,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께 전계를 받았으며,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께 자장율맥을 전수받았다. 2007년부터 2015년 동안거까지 조계총림 송광사 율학승가대학원 원장을 지냈다.

"청소년들이여, 먼저 네 자신의 마음을 들어라"

네 마음을 들어줘

승한 지음 | 동아일보사 펴냄 | 1만 3800원



입시 경쟁, 학교 폭력, 왕따, 가정 폭력, 자살 충동 등의 문제가 청소년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다. 그런데 왜 학교에서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는 걸까?

이 책은 마음 수행 측면에서 청소년의 실질적 고민과 교육 문제를 들여다보는 책이다. 행복한 마음이 행복한 청소년을, 행복한 청소년이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승한 스님의 행복단추학교에서 마음의 옷깃을 채우고 미래를 위한 행복의 단추를 끼우는 특별한 수업을 시작해보자.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 무슨 고민을 할까?

이 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이나 교육 지침이 아닌 청소년의 실제적인 고민서 출발해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와 옹이를 찬찬히 어루만지는 책이다. 학교의 교육 현실은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우울증에 걸리는 청소년의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 심지어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성인보다도 높다. 청소년기의 특징인 극단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은 이런 불안과 방황을 더욱 부채질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멘토와 부모, 그리고 학교의 역할이다. 그러나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청소년의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책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 정문일침(頂門一鍼)과도 같은 해답을 내놓으려는 시도이다. 책의 저자인 승한 스님은 불교적 깨달음에서 오는 철학적 성찰과 다년간의 청소년 지도 경험을 통해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이야기를 주옥같은 법문으로 친절히 풀어낸다.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이듯, 자신의 문제는 오로지 자신만이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혹은 친구들이 말해주는 나의 문제점은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내 안에 있는 문제는 오직 나만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승한 스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해답이 무엇이든 그것은 모두 '나 자신' 안에 있다고 강조한다. 둥근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이 둥글어지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이다.

물 그 자체는 정해진 모양이 없다. 어떤 문제도, 해답도, 고민도, 상처도 결코 고정된 모습이 아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자신의 고민을 풀어야 할지 그 해답을 찾아놓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만 그 해답이 두려워서, 혹은 무서워서 좀처럼 용기를 못 내고 있을 뿐이다. 고통에 찬 달팽이가 스스로 고통에서 빠져나오듯이 스스로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불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마음챙김 명상, 호흡 명상, 걷기 명상, 죽음 명상은 물론, 감사 노트 쓰기, 자기 자랑 노트 쓰기, 부모님에게 편지 쓰기처럼, 스님이 그 방편으로 일러주는 마음 수행 도구는 이때 매우 유익하게 적용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누구나 통과할 수밖에 없는 관문이다. 당장은 어쩔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아도, 누구든 그 관문을 통과해야 어른이 된다. 해답이 없는 것이 삶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해답이 없는 해답을 찾으며 그 관문을 함께 통과해야 한다.

그런 과정이 바로 자신의 삶이 되고, 그 삶의 목적이 된다. 우리가 학교에 다니고, 고민하고, 친구를 만나고, 아파하고, 공부를 하는 것도 모두 그런 여정에서 마주하는 디딤돌이다. 승한 스님은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그 무늬와 결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거듭 강조하듯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울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은 마음, 오직 나의 마음에 달려 있을 뿐이다. 젊은 시절 누구보다 방황하고 아파했던 스님이 자신의 경험에서 끌어 올린 자비로운 법문은 막막한 청소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듬직한 경구가 되어주기에 충분하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학교를 넘어선 학교, 자신의 내면에 담긴 힘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가르치는 승한 스님의 특별한 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김주일 기자

저자 승한 스님은?

중앙대 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서 동양철학과 불교철학을 공부하고 있다. 서울신문 신춘문예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와 동시가 각각 당선되었으며, 지은 책으로 〈나를 치유하는 산사기행〉등 몇 권의 산문집과 시집, 동화책이 있다. 경기도 가평 대원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지도했으며, 현재는 북한산 중흥사서 상주하고 있다.

불안하고 지친 삶들에게 말을 걸다

눈부신 오늘

법상 지음 | 마음의 숲 펴냄 | 1만 3천원



사람들은 삶에게 묻는다.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야? 이게 사는 건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여유도 없다. 그저 툭 건드리면 "힘들다"라는 말이 한숨처럼 흘러나올 뿐이다. 사는 것도 즐기는 것도 아닌 견디는 것이 되어 버린 지 오래인 우리 삶. 어쩌다 우리 삶은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을까? 어쩌다 우리 삶은 이렇게 거칠고 사나워졌을까?

비종교적 종교인을 자처하는 군인 승려가 있다. '목탁소리' 의 지도 법사이자, 〈한국문인〉으로 등단한 문필가이며, 스테디셀러 〈날마다 해피엔딩〉 저자인 법상 스님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는 16년간 군대 속 청춘들의 형이자 상담자로서 대한민국 8도, 11개 사단을 유랑했다. 그 세월이 승려라고 담담하고 평온하기만 했을까. 또한 '목탁소리' 와 SNS로 대중과 소통해왔으니, 행복해지고 싶고 평화롭게 살고 싶지만 삶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기만 한다는 세인들의 호소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의 삶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녹록치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삶은 매 순간이 눈부시다"라고 단언한다.

4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이번 책으로 돌아온 스님은 삶이 불안하고 고통스럽다며 눈물짓는 우리를 안심시킨다. 그리고 사나운 삶과 악전고투 중인 우리에게 화난 인생과 화해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오늘 하루는 어땠는가? 많이 힘들고 괴로웠을지도 모른다. 지금 살고 있는 삶에 실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늘이 원망스럽고 세상에 화가 나 속이 끓고 있지는 않은가. 남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따위냐고 울분을 터트리고 있을 수도 있다. 어쩌면 어제는 그나마 오늘보다 나았다고 푸념하고, 내일은 오늘과 다를 것이라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의 '오늘' 은 항상 비참하고 끔찍한 존재이다.

하루를 시작할 때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지만, 우리의 오늘은 '안녕' 과 거리가 멀어진 지 오래다.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 답답한 현실과 어깨를 누르는 불안은 우리를 '오늘' 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을지도 모를 '내일' 이나 그래도 오늘보다는 나았던 '어제' 를 바라보게 한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오늘' 을 버리고 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나마 나을 것이라 생각했던 '내일' 이고, 돌아보면 아름다웠던 '어제' 인데 말이다.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당신과 나는 이렇게 다른데,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힘든 걸까? 법상 스님은 그 이유를 나, 당신, 삶, 고통, 행복이라는 다섯 가지에서 찾았다. 이 다섯 화두는 언제나 우리를 괴롭힌다. 아무리 뜯어봐도 부족하고 못난 '나' , 친구인 것 같지만 역시 적이자 경쟁자인 '당신' , 노력해봐도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삶' , 인생의 다른 이름인 것 같은 '고통' , 눈이 빠지게 찾아도 보이지 않는 '행복' . 그는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크게 도사리고 있는 다섯 가지 화두를 가지고, 그 화두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또 어떻게 다루고 다독여야 할지,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오늘을 어떻게 눈부시게 바꾸어야 할지를 알려준다.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현상' 에 끌려 다니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기대, 걱정, 불안, 희망, 사랑, 집착 등 갖가지 필터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의문도 많이 들 것이다. 그런 의문에 대한 답 역시 이 책속에 들어 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일상 속 명상법 역시 소개한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오늘' 을 여행하고 있다. 이 여행이 고난의 행군이 될지, 모험으로 가득한 여행이 될지는 당신에게 달렸다.

김주일 기자

저자 법상 스님은?

수행과 전법에 매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강원도 고성의 설악과 동해가 한 눈에 바라다보이는 소담한 절 운학사에 머물고 있다. 인터넷 생활수행도량 '목탁소리(www.moktaksori.org)' 와 다음 카페 '목탁소리지대방(http://www.moktaksori.kr)' 의 지도법사로서 생활 속에서 마음을 닦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수행을 이끌고 있다.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70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 재 형 원장 직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 요법 : 도데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KBS 굿모닝 대한민국 / SBS 미워도 다시한번 그 여자 그 남자 / 재널A 현장르포 특종세상 / MB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 tvN 각종 케이블 방송에 다수 출연
MBC 생방송 오늘아침 / JTBC 부모찾기 /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실전위주의 파워풀한 강의!!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솔루션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상처/ 분노 조절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 수사
스포츠선수 기록 향상/ 전생 체험/ 빙의 치유 등

현재 접수중 —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

과학과 불교

불교와 뇌과학

뇌의 신경망은 마음이 타고 흐르는 궤도



김성철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마음은 찰나 한점 식의 흐름
윤회·해탈의 불교 가르침과도 조화
인지속박서 벗어나는 것 '깨달음'

두뇌의 활동을 측정하는 장치가 아무리 정밀해져도, 우리의 마음에서 절대로 객관화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철학자들이 '감각질(感覺質, Qualia)' 이라고 부르는 주관적 체험이다. 내가 맛 본 소금의 짠맛을 남이 전혀 알 수 없고, 내가 느낀 치통을 남이 결코 체험할 수 없다. 우리들이 체험하는 세상만사는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듯이 우리들 각자 하나씩 갖고서 혼자만 보는 '상자 속의 딱정벌레' 와 같다. 모든 것이 나의 주관적 체험이다.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실재하는데, 체험되는 것은 나의 주관뿐이다. 남의 주관은 그 존재를 추측할 수는 있어도 체험할 수는 없다. 우리의 마음 또는 의식은 주관에서만 작동한다. 이런 주관, 마음, 의식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 심리철학과 뇌과학의 난제이긴 하지만 세상과 인간에 대한 화엄학의 통찰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 〈화엄경〉의 부처님은 비로자나부처님이다. 화엄신화에 의하면 대위광(大威光) 태자가 무수한 세월 동안 보살행을 한 끝에 비로자나부처님으로 성불하면서 그 몸 그대로가 온 우주가 되었다. 비로자나부처님은 이 우주 그 자체다. 우리 모두는 비로자나부처님의 몸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인 것이다.

그러면 화엄학의 이런 통찰을 예비지식으로 삼아 주관, 또는 마음, 또는 의식의 정체를 구명해 보자.

'일미진중함시방' 에서 '일미진(한 점의 티끌)' 과 '함시방(온 우주가 담김)' 을 구분할 때, '한 점 티끌 크기의 어느 한 지점(一微塵)' 에도 '온 우주의 모든 정보(十方)' 가 담겨있다(含). 여기서 바로 그 '한 점' 이 바로 객관이라면, 그 안에 '담긴 온 우주' 는 그 '한 점' 의 주관적 측면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우주의 그 어떤 지점을 잡아도 그 지점은 객관과 주관의 양 측면을 갖는다. '일미진' 의 측면과 '함시방' 의 양 측면을 갖는다. 그래서 의상 스님의 법성게에서는 "낱낱의 미진에도 역시 그러하다(一切塵中亦如是)." 고 노래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공간에서 어느 한 지점을 잡아도 그 점 속에는 시방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다. 3차원 우주상의 그 어떤 좌표점도 '한 점' 이라는 객관적 측면과 '함시방' 이라는 주관적 측면이 함께한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주관성' (心)은 진화과정에서 창발한(Emergent) 것이 아니고 생명체(衆生)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리적인 공간(佛)의 모든 지점에 '주관성' 이 잠재한다. 우리가 사는 3차원 우주의 본질이다. 우주 그 자체인 비로자나부처님(佛)의 몸이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세 가지는 다르지 않다(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 고 설하는 것이다. 존재론적으로는 생명체의 진화과정에서 물리적 세계만 존재하다가, 나중에 주관 또는 마음 또는 의식이 출현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인식론적으로는 이와 반대다. 진화 초기에 모든 생명체는 타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오직 주관적 체험만 존재하다가 감각기관이 생기면서 비로소 객관이 구성되기 시작한 것일 테다. 그리고 인간의 뇌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객관의 모호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을 뿐이다. 진화과정에서 주관은 객관에 선행(先行)한다.

'상일주재(常一主宰)' 한 자아는 없다.

코페르니쿠스(Copernicus, 1473~1543) 이전의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의 둘레를 회전한다고 보았다. 지구는 둥근데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눈에 확연히 보이기 때문이었다. 천동설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솔직한 이론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반대였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회전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천문학 이론은 단순해졌다. 태양과 지구의 관계에서 주객을 뒤바꾸자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다른 모든 행성의 운동이 보다 명료하게 드러난 것이다. 칸트(Kant, 1724~1804)는 '인식' 과 '대상' 의 선후관계를 역전시킨 자신의 인식론 철학을 이에 빗대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라고 불렀다.

마음과 뇌의 관계를 구명하고자 할 때 난관에 빠지는 이유는, 뇌에서 마음이 발생했다거나 객관 세계에서 주관성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선입견 위에서 연구하고 이론을 모색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생명체의 진화과정에서 주관이 객관에 선행한다. 각 개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촉각이나 미각, 후각과 같은 '근접 감각' 만으로 이루어진 유일무이의 주관만 존재하다가 진화과정에서 시각과 청각이 열리면서 점차적으로 객관세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지렁이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종차(種差)를 넘어서 일관하는 마음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그 실마리를 주관에서 찾아야 한다.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산다" 고 생각한다. 3인칭 시점이다. 객관을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이다.

그런데 불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모든 것을 1인칭 시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한다는 점이다. 주관에서 출발하여 객관을 해석한다. 일체를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 의 다섯 가지 무더기로 나누는 오온(五蘊)설이 그렇고, 일체를 더 세분하여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意)' 의 여섯 가지 지각기관과 '색(色), 성(聲), 향(香), 미(味), 촉(觸), 법(法)' 의 여섯 가지 지각대상의 열두 영역으로 나누는 십이처(十二處)설이 그렇고, 일체를 좀 더 세분하여 지각기관 여섯(眼~意)과 지각대상 여섯(色~法)과 지각내용 여섯(眼識~意識)의 열여덟 가지 요소로 나누는 십팔계(十八界)설이 그렇다. 모두 나의 주관적 지각을 토대로 구성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一切)' 이다. 오온 가운데 '마음' 에 해당하는 것은 '수, 상, 행, 식' 인데 이 중 '수, 상, 행' 은 십이처 가운데 '법처' 이고 '식' 은 '의처' 다. 또 십팔계 중에서는 육식계와 의계가 의처이고, 법계가 법처다.

매 순간 우리는 변화를 인지한다. 움직임이든, 소리이든, 색깔이든, 냄새든, 맛이든 변화에 대한 매 순간의 앎은 모두 '앞 찰나의 감각' 과 '지금 찰나의 감각' 을 비교함으로써 얻어진다.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은 직후 1회용 봉지커피를 마시면 단 맛이 덜 느껴진다. 순간적으로 비교가 일어나면서 의미가 발생하는 것이다. 찰나적으로 일어나는 '의존적(緣) 발생(起)' 이다. 즉, 찰나적인 연기(緣起)다. 앞 찰나의 사건이 '등무간연(혹은 차제연)인 조건' 이 되어 뒤 찰나의 사건의 의미가 규정된다. 오늘과 내일을 비교할 수도 있고, 오전과 오후를 비교할 수 있고, '아까' 와 '지금' 을 비교할 수 있지만 시간적 비교의 궁극은 찰나적이다.

앞 찰나와 다음 찰나를 비교하는 일이 모든 '의미발생' 의 토대가 된다. 의식에 떠오르는 모든 것들의 토대가 된다. 의식은 매 순간 변화하는 찰나적 흐름이다.

실재하는 것은 '무상하게 명멸하는 한 점 식(識)의 흐름' 일 뿐이다. 달리 표현하면 '무상하게 명멸하는 한 점 자상(自相)의 흐름' 일 뿐이다. 특수의 특수, 실재의 궁극에서는 인식과 대상이 분리되지 않는다. 한 찰나 동안만 존재하는 '한 점의 자상' 이 그대로 그를 인식한 '한 점의 식(識)' 이기도 하다.

마음의 정체, 그리고 윤회와 해탈

현대의 뇌과학 연구가 '자아' 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유물론으로 기우는 이유는 과거의 일반적인 '자아관' 이 무너졌기 때문일 것이다. 서구전통의 경우 일반적인 자아는 감성(Sensibility)과 오성(Understanding)과 이성(Reason)으로 이루어져서 회상도 하고 상상도 하며, 지각도 하고 추리도 하는 자아였다. 그것이 단일한 영혼이고 정신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대한 이러한 생각, 즉 서구전통의 일반적인 자아관, 영혼관은 뇌손상 환자들의 증례와 상치된다. 마음의 본질을 '무상하게 명멸하는 한 점 식의 흐름' 이라고 규정할 때 뇌 손상 환자들의 여러 증례와도 어긋나지 않으며 윤회와 해탈이라는 불교의 가르침과도 조화를 이룬다.

뇌의 신경망은 '마음이 창발하는 곳' 이 아니라 역(逆)으로 '한 점 식(識)으로서의 마음이 타고 흐르는 궤도' 다. 물론 뇌는 국소적 신경회로의 모듈(module)로 가득하며 순차적으로 작동하는 컴퓨터와 달리, 여러 가지 모듈들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시에 작동하는 병렬 프로세스이긴 하지만 주의와 의식, 기억과 회상 등과 같은 주관적 과정은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이는 앞에 인용한 〈전습록〉에서 말하는 귀적(歸寂)이 아니라 명백(明白)으로서의 식(識)이다. 찰나설에서 보듯이 그 '한 점의 식' 은 1초에 최대 75개소의 지점까지 순차적으로 머물면서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는 등 여러 기능들을 발현한다.

마음의 본질을 '주의를 타고 흐르는 한 점의 식' 이라고 규정할 때, 그 기능에 대해 통일된 해석이 없는 뇌파(腦波)에 대한 연구도 새로운 접근이 가능하다. 뇌파는 두피에서 측정한 전압의 파동적 변화다. 귓불 등을 기준전극으로 삼고 전압계(Voltage meter)의 다른 한 극을 두피에 접촉시키면 리듬을 갖는 전압의 변화가 관찰된다. 1초에 8~12회 진동하는 뇌파를 알파파(Alpha波), 12~30회의 진동을 베타파(Beta波), 4~7회를 세타파(Theta波), 4회 이하를 델타파(Delta波)라고 부른다. 알파파는 눈을 감고 이완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고, 베타파는 깨어서 활동할 때의 일반적인 뇌파이며, 세타파는 졸 때, 델타파는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주로 나타난다. '한 점 식의 흐름' 이 인지(認知)를 구성하기 위해서 뇌의 각 부위를 재빨리 왕래하면서 신경회로를 점화할 때, 인접한 두피에서 일어나는 전압의 파동적 변화가 뇌파일지도 모른다. 30Hz 이상의 뇌파를 감마파(Gamma波)라고 부르는데 이는 동시에 두 가지 지각정보를 제시하면서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운전대를 잡고 전방을 주시하면서(시각) 휴대폰으로 통화할(청각) 때 '한 점 식의 흐름' 은 후두엽의 시각영역과 측두엽의 청각영역을 분주히 오가야 하며 뇌파의 파동 수는 늘어난다. 이와 반대로 어떤 하나의 대상에만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때 4Hz이하의 델타파가 나타난다고 한다. 마음이 이완될수록 뇌파의 진동수가 줄어들고 분주할수록 늘어나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한 점의 식' 이 주의(Attention)의 찰나적 요동을 따라서 대뇌 피질의 각 영역을 분주히 오가면서 남긴 흔적이 뇌파일 수 있다.

'한 점 식의 흐름' 은 시공연속체의 최소단위인 '점-찰나(point-instant)' 의 연속이다. 그 '점-찰나' 에서는 주관과 객관의 구분이 사라진다. 인식론적으로는 현량(現量)이라는 인식수단이면서 자상(自相)이라는 인식대상이기도 하다. 오직 한 찰나 동안만 존재하는 하나의 점이다. 존재론적으로는 시방(十方)을 담고(含) 있는 일미진(一微塵)이다. 이 '점-찰나' 의 객관적 측면은 4차원(x, y, z, t) 시공좌표에서 유일무이한 '한 점' 이고 주관적 측면은 '시방' 에서 감관과 뇌의 해석을 거쳐 그 한 점으로 들어오는 색, 성, 향, 미, 촉, 법의 정보들이다. 지극히 주관적 체험이라는 감각질(Qualia)의 경우도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하는 유일무이의 것들이다. 과거에 내가 느꼈던 감각질도 '생각 속의 감각질' 이라는 점에서 타인의 감각질과 다를 게 없다.

부처님께서는 숙명통(宿命通), 천안통(天眼通), 누진통(漏盡通)의 세 가지 신통력(三明)이 저녁, 자정, 새벽에 차례대로 열리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한다. 자신의 전생을 모두 기억하는 숙명통과 다른 생명체의 전생과 현생과 내생의 관계를 모두 아는 천안통, 그리고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누진통의 셋이다. 숙명통이 가능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한 점의 식(一念)' 에 무한한 과거(無量劫)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꿈에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영상과 소리가 나타난다. 한 점 식의 흐름이 대뇌피질의 시각영역과 청각영역을 훑으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숙명통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전생의 장면들이 떠오르는 방식 역시 이와 같으리라. 현생의 대뇌 기억 회로에 저장된 그 무엇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과거를 머금은 한 점 식의 흐름(無量遠劫卽一念)' 이 대뇌피질의 캔버스에 그 과거 이력(履歷)을 그리는 것이리라.

불교의 깨달음은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계(戒, 윤리), 정(定, 집중), 혜(慧, 지혜)의 삼학(三學)을 통해 성취된다. 이 가운데 계행은 뇌의 세 층위 가운데 '감성의 뇌' 와 '본능의 뇌' 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수행이다. 나와 세상,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이 '연기(緣起)한 것이라서 공(空)하다.' 는 점을 자각하여 고정관념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사고의 뇌' 인 신피질 도처에 형성되어 있는 고정관념의 신경회로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렇게 감성의 속박(修惑)과 인지의 속박(見惑) 모두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교적 깨달음이다. 뇌가 어떤 특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뇌에 가득한 '감성의 신경망' 과 '인지의 신경망' 의 속박에서 '한 점 식의 흐름' 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탈한 '한 점 식의 흐름' 은 육신의 죽음과 함께 적멸에 든다. 본능과 감성과 고정관념으로 가득한 생명의 세계, 윤회의 세계에 더 이상 미련이 없기(無願三昧) 때문이다. 아라한의 죽음이다. 완전한 열반이다. 더 이상 내생이 나타나지 않는(不受後有) 대열반이다. 그래서 모든 아라한은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다시] 탄생[함]이 파괴된다. 청정한 행을 완수했고 해야 할 일을 했다. [나에게] 내세의 삶은 없다고 안다." 자신이 깨달았다는 자각(解脫知見)이다.

디자인 등록원

장인이 만든 명품 청동 촛대세트

현 불 샵 단독입점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21㎝ (中) 41㎝×21㎝ (小) 35㎝×21㎝
	거북이	(中) 41㎝×21㎝ (小) 35㎝×21㎝
향로	거북 용두	(大) 28.5㎝×34㎝ (中) Ⓐ 21.5㎝×29㎝ (中) Ⓑ 18.5㎝×23㎝ (小) 15.5㎝×18㎝
다기	다기	(大) 26㎝×20㎝ (中) Ⓐ 22㎝×14㎝ (中) Ⓑ 20㎝×13㎝ (小) 17㎝×12㎝
향통	원형	(大) 15.5㎝×7.5㎝ (小) 11.7㎝×5㎝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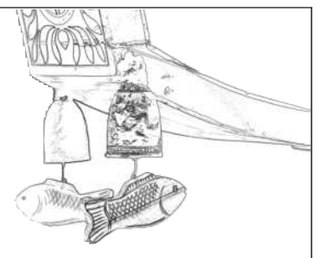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저 히말라야 산을 둔갑시켜 황금으로 만들고 그것을 다시 곱절로 만든다 해도 한 사람의 욕심도 채울 수는 없다. 사람들아, 이것을 알고 올바르게 행하라.

- 잡아함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 음 범 패 대 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인 연 명 리

◆ 매화연수(4주완성)
일년 신수 한눈에 보는 법
◆ 영가 찾고, 보는 법 (4주완성)
천도재,49재,조상인연기도(영가장애)
스님,법사님,포교원운영자,
관심있는분
6월,7월 2달간 2과목 완성(매주 화)
명리기초 / 통변반 수시모집, 강의 중
자운스님 010-4047-0134
(서울 삼성동)



명리첩경의 저자 - 혜공

혜공철학원
지리산 청학동에서
명리공부와 수련 하실분
010-4482-4684
010-3054-3345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육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관 상 (손금)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얼굴손금만 봐도 어떤 질병이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암질병,선소문제재판가족,교통사고운을 알 수 있다
• 관상, 손금, 성명학, 타로, 사주
(개인지도, 단체)
• "관상과 손금 임상비법"
책 출간 (판매 중)
010-4014-8822

침술, 뜸, 부항, 한약,역학 (명리)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요법)전
문학원. 외국한의사,
침구사 자격시험대비반.
수강생 수시모집
www.macsj.kr
네이버 검색 「맥승정」 클릭
010-8862-1908

벽조목 진품
(벼락맞은 대추나무)

신지기기(神知奇知) 신비의 명물
벽조목으로 제액처방
비법전수,부귀공명,입신출세,빙의,간질,매매
*직접오셔서 진품을 구경하시고 주문하세요 벼락맞은 대추나무 진품을 치시면 구경가능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2길 136 지장선원
054-383-8553 / 010-8585-4908
cafe.daum.net/JJUJUbe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포항)
054-286-1182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515-0664

공부하면서 기도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10-9340-3921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5세 이상)
010-3774-4099

함께 생활하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2515-0664

공양주 보살님 행자스님 모십니다
(경남 김해)
010-6671-588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공주, 계룡산)
042-825-1724

여름에 시원하고 깨끗하고
조용한 산내암자,
기도하며 공양주할 불심
있는 **불자 공양주** 구함
(경북 예천 내원암)
054-653-1180
010-6353-1180

원하는 대로 이루는 기도

• 아주 특수하고 묘한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께 확실하게 전수 합니다
• 인천행 지하철 부천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 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염불,기도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53-474-8228, 010-8582-7034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사단법인 종단 인수하실 분

종단명 : 사단법인 0000조계종
복지사업 병행가능함. (필요시 종단명칭 변경가능)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문의전화 : 070-7717-2276 (영의스님)

기문둔갑 강의안내

기문둔갑은 1세부터 90세까지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기문을 보면 부모, 형제, 부부, 자식 등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운명에 공직자,사업자,직장자가 정해져 있다. 공직 생활할 운명이 사업을 하면 실패하며, 사업자가 왜 실패를 하는가. 왜! 부도가 나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으며 학생이 왜 공부가 안되는지 어떤 장애로 인해 공부가 안되는지 본인과 잘 맞는 학과 선택을 잘 알 수 있으며, 본인이 어떤 질병을 타고 났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게 기문이다. 명리를 모르는 초보자도 5개월이면 완성이 가능합니다. 아는게 힘이다. 성의껏 강의 해 드립니다.
(스님직접 강의, 항상 문의 가능) 010-3544-9777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①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②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③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에너멀 에너지 힐링 세미나

* 반려동물(개,고양이 등)을 가족처럼 기르고 있는 분들에게 희 소식! 반려동물의가벼운 병과 나쁜 버릇을 스스로 치료해주어 마음 고생을 덜으세요. 여기와서 (디바인 하트) 라는 기 에너지를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 교육시간 : 오전11시부터 ~ 오후 4시, 교육은 단 하루에 끝납니다
* 교 육 비 : 20만원, 미리 예약필요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www.Reiki.co.kr 02)720-5682. 010-8392-2557

퇴마 (빙의) 최면, 심리치유 (개인지도 및 상담)

상처받고 풀리지 않는 인연고리를 풀어드립니다.
퇴마, 빙의, 우울증, 불안, 분노, 공포증, 자신감 향상 등
감정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풀지 못하는 현상들 치유가능.
* 퇴마 배우실 분은 (스님 및 무속인에 한함)
(佛)대한불교조계종 만경사 / 부산시 수영구 연수로 401번길 7
전화 051)757-7925. 010-3156-6414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금룡정사
• 주 지 : 대정(박동열)
• 주 소 : 경남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254-3

• 사찰명 : 대성사
• 주 지 : 대산(노홍철)
•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247-3 3층

위 사찰과 위 양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사)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무원장 법하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2set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남편은 아내를 예절로써 대하고 위신을 지키며
항상 의복과 음식을 넉넉히 대주어야 한다

- 육방예경 -

사 찰 안 내

▶ 청정지역 토굴 안내◀
- 위치: 경남 고성
- 총부지: 970평 건물:4동
- 청정지역지정, 자연산 약초 (봉삼, 비비초, 산초, 제피, 엉개, 각종산나물 등등)
- 요양처 최적지(환우 있는분)
- 가액:1억 8천

▶ 관광 사찰 안내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1,900여평
- 건물 : 법당48평 및 요사채 38평, 원주실15평 세계불교박물관 (5,400여년 전 벼락 맞은 대추나무화석등 석물 300여점보유)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650평
- 가액 : 6억 5천 인수(은행 5억 별도)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전국사찰 30년 역사※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김천시 사찰 부지
- 임야, 토지 포함 약 6,500㎡
- 산속이며 도로접 계곡접 최고 요지
- 양도금액 : 3억 5천만(융자가능)
- 위치좋음,청정수계곡토목공사완료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 총평수 800평 건물, 법당
- 요사채 합 50평, 산신각 5평, 용왕당 2평
- 가액 : 3억 2천만원

010-8034-8309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여수,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6억 8천만원, 조절가능

010-3855-7885
010-3604-54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
- 대지 183평, 인법당 20평 요사채 60평 (큰방 4개, 큰거실 2개, 화장실 2개)
- 가액 : 2억 6천만원

010-2060-2790

광진 사찰 안내

◎ 위치:서울 ◎ 위치:수도권
◎ 부지:35평 ◎ 종교용지:1300평
◎ 법당:25평,교통편리 ◎ 목조법당:500평,
◎ 방2.화장실,욕실,공양간 ◎ 요사:100평
◎ 매가:5억2천 ◎ 매가:16억2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석불,골동품,탱화,고서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천안시 사찰 급 양도
* 목조 법당 60㎡, 황토요사채 90㎡, 산신각 등
* 토지 5,000㎡ 접근성 좋은 산쪽 사찰
* 양도가 : 4억 3천만원(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한 옥 주 택

산자락 예쁜한옥 비움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주인께 드립니다
- 위치 : 경남 창녕 부곡 부곡리
- 대지 167평, 건평 30평
- 목조, 기와
- 가액 : 2억 7천 5백만원 (황토방, 정자)

010-3703-58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경주 동국대 15분 거리)
- 대지 : 230평
- 방3개, 공양간, 산신각, 법당
- 집기류 일체 두고 갑니다
- 몸만 오신면 법회 가능합니다
- 가액 : 1억 5천(조절가능)

054-334-6698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법당 24평,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 1동, 산신각
- 사용가능 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 ~ 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6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암 자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인근 옥과설산, 적송림 7부, 사자앙천혈
- 산 : 1만 2천평, 종교부지 650평 : 약사석불 12자
- 건물 : 경량철골 3동, 합 52평
- 특징 : 암자, 연수원, 선원, 별장, 암반수, 초중고 대학교 유
- 가액 : 3억 7천 (장난전화사절)

010-8224-1688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절 앞에 낙동강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음
- 평수 : 120평
- 인법당 27평,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 양도
- 잔디밭 마당에 7미터 지장보살
- 가액 : 1억 2천 5백만원

010-5555-8744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안락동
- 평수 약 50평, 방2, 부엌, 욕실
- 4층 중 3층 삼존불, 소불
- 집기일체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전세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천1백만원(절충가능) 개원한지 1년, 본찰 업무상 관계로

010-4541-1140
051)532-1141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 산과 강구시내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명당터
- 암자 및 별장, 요양지로 적합
- 시골집 한채 방 2개, 부엌 1
- 약100평 땅 평생무료, 토지세 없음
- 2,500만원

010-9670-3678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 3층 건물 3층
- 약사여래불
- 주차 편리한 대로변
- 포교에 최적지이고 완벽한 시설
-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600만원

010-9203-336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리
- 가야산 국립공원, 해발 600m 지점, 청정지역, 경관수려
- 부지 약 360평, 건평 45평, 임법당 준공 1년
- 가액 : 1억 6천만원

010-4564-810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큰도로변 버스정류소 옆 2층
- 약 60평, 큰법당, 삼존불, 신중단
- 칠성단, 산신단, 용왕단, 영가단 큰공양간, 샤워실
- 큰방1개, 작은방 2개
- 위치 환경 특 A급
- 가액 : 보증금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조절불가)

010-7337-172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 부지 : 15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목조, 닷집, 단청)
- 요사채 : 2동 70평
- 기타 : 석등, 공양간, 종무소 등
- 가액 : 7억 5천만원
- 특징 : 도심번화가에 위치한 전통깊은 사찰로 신도구성이 잘 되어있는 사찰임

- 위치 : 제주 서귀포시 소재
- 부지 : 500평(종교용지)
- 법당 : 70평(목조, 3포7포, 단청)
- 요사채 : 2동 150평
- 기타 : 종각, 천불전, 석등
- 가액 : 7억 5천만원
- 특징 : 서귀포바닷가에 위치한 대기업의 사찰로 주변에 민속촌 등 관광명소가 많아 포교가 용이하고 템플스테이로 최고의 적지임

※ 전국소재 사찰 및 절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010-5848-0455

대구광역시 북구 공항로 78 (복현동 1층)

청평 한옥 안내

- 대지 199평, 건평 30평
- 전통한옥에 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 3개(큰방1, 작은방2 중 1개는 구들방임)
- 욕실2, 거실, 주방, 패치카, 석유보일러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가액 : 2억 6천만원(조절가능)

직거래 010-9411-5302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 40평
- 대지총면적 : 450평
- 즉시 법회가능
- 총양도가액 : 4억 7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가격조절가능)

010-4725-5907

사 찰 안 내

- 위치 : 거제시 중심부
- 대지 : 2.103㎡, 건평(법당, 요사) 329.4㎡
- 창고 기타 약 15평 외 25평은 기초공사 완료되어 있음
- 석등 외 조형물 다수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이 좋음
- 가액 : 현장 답사 후 협의

010-7582-0098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 매각(가격 협의)

010-5097-3468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래)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 위치, 양쪽 계곡, 앞쪽으로 전망 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명당사찰및별장터안내

- 위치 : 포천 왕방산 대진대학 우측 중앙 위치
- 군신동조 혈자리 금시발복 거부장자 문무겸전 터
- 대지 300평, 1층 100평 / 2층 100평
- 가액 : 8억 5천

010-9292-3110

토 굴 안 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방리
- 대지 101평, 법당 20평
- 공양간 7평, 화장실 1칸 사무실겸 스님방 욕실 9평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 가액 : 1억 3천만원

010-9183-0654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주거지역 위치
- 내용 : 대지 139평, 건평 140평, 3층건물 법당 30평
- 삼존불, 신중 지장단 영단 법단 단청, 방 6개
- 공양간, 창고, 차고, 다용도실, 화장실 3개
- 시설완벽, 몸만 오시면 됨
- 8m 도로접, 초등학교 100m 버스 전철역 200m
- 가액 : 14억 (학업관계로 급 안내)

051)754-3375

감로수행과 안내

- 위치: 대전시 서구(뒤는 산과 숲 앞은 근린생활권인 조용하고 공기 좋은곳)
- 대상 : 비구니스님 (종파와 무관함)
- 평수와 가액은 추후 연락주시는 분에 한해서 알려드림

010-6468-3067

강 원 영 월

- 위치: 강원 영월 삼방산 부근
- 전 2,417㎡ 전 1,802㎡
- 귀농 주택 8가구
- 약초, 버섯, 가축

주직 010-5705-8865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북한산 근방 포교원
- 2층 건물 중 2층
- 사용면적 60평, 옥상전체 사용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추후 결정
- 시설완벽, 즉시법회

010-8725-3196

시골갤러리, 사찰안내

- 위치 : 영천시 북안면
- 법당 : 10평, 텃밭 : 600평
- 황토방 : 8평 (아궁이 불때는 방)
- 큰방 : 2개(갤러리로 사용중)
- 주지스님방 : 1개, 방사합 : 4개
- 마당 : 주차 4대가능 (소나무 군락으로 공기좋고 수행하기 적합하며 현재 화실겸 갤러리도 운영)
- 가액 : 보증금 없고 월세 없고 전세금 830만원

010-6406-8151

포교원 안내

- 위치 : 춘천시 동부시장 내
- 2층 50평, 삼존불, 산신각
- 살림가능,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

010-9235-7513

사 찰 안 내

- 위치 : 함안군 칠서면 회산리 980번지 (칠서 IC에서 5분거리)
- 대지 330평, 삼신각 5.2평, 대웅전 15평 요사채(가건물) 30평
- 가액 : 4억 5천

010-4819-8690

토 굴 안 내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 총평수 : 1,100평(전) 토목공사 230평
- 방4칸, 인법당 1칸, 욕실, 창고
- 주차시설, 지하수, 일반용전기, 농사용전기 다 사용
- 가액 2억 9천

010-4871-5044

도심 작은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장한평(5호선 5번출구 5분) 자동차시장 끝 쪽
- 건물 : 도시형 오피스텔 170실의 10층 건물에 2층 15평
- 시설 : 아미타불, 관세음, 소불 30불 대세지, 지장보살, 탱화 일체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결정

010-9105-0024

암자 겸 토굴안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현산면 월송리
- 대지 134평, 법당목조 25평
- 요사채 한옥 16평, 방5개 마당까지 자동차 진입
- 수도, 보일러 있음
- 가액 : 5천만원

010-8836-8223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 30평, 삼존불, 법당1, 방 3개, 화장실 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 평수 : 대지 248평, 법당 23평, 요사채 2동
- 텃밭(마당 잔디), 방가루, 조경, 전망 좋음
- 시청, 은행 등 관공소 도보 10분 거리 뒷산 지상공원 확정
- 가액 : 5억 7천만원 (대출 3억 안고 양도금액 2억 7천)

010-5019-5385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영광군
- 대지 500평, 법당 20평, 요사채30평, 산신각 6평
- 연못 차고 유
- 가액 : 1억 5천만원

010-3235-1112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1121, 1121-1, 1125번지
- 종교부지 : 302평, 과수원 390평
- 전기, 토목공사 완료
- 지관이 추천한 명당
- 가액 : 1억 5천만원

010-7156-9687
현장 답사후 연락주세요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용호동(230평)
- 건물 : 5층 건물중 5층, 엘리베이터사용
- 구조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지장단 방 5칸, 공양간, 종무실
- 가액 : 보증금 5,000만원, 월세 400만원
- 시설비: 5천만원(답사 후 절충가능)

010-9688-2254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광진구 구의동
- 2층에 2층, 약 60평
- 법당 30평, 요사 30평
- 방2개, 화장실겸욕실 2개
- 보증금 2000만원, 월120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0-5497-7667

포교원 시설 적합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66-9 명성프라자 205호
- 상가 5층건물 2층
- 실평 34평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
- 주변아파트 밀집지역

010-2880-4455

암자 및 종교부지 안내

- 위치 :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쑥골)
- 지목 : 토지임야(계획관리지역+보존임야)
- 평수 : 약 2200평(진입도로 포장완료)
- 특징 : 서울에서 약1시간대 거리, 평당 10만원
- 위치 :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 지목 : 생산관리지역(토임)
- 평수 : 약 333평 • 향 : 동향 ~ 동남향
- 평당 : 30만원 • 진입도로폭 6M 포장완료

주인직접 010-2215-3657 합장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 평수 : 대지 248평, 법당 23평, 요사채 2동
- 텃밭(마당 잔디), 방가루, 조경, 전망 좋음
- 시청, 은행 등 관공소 도보 10분 거리 뒷산 지상공원 확정
- 가액 : 5억 7천만원 (대출 3억 안고 양도금액 2억 7천)

010-5019-538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 평수 : 총 1,300평
- 법당 약 40평, 산신 용왕, 공양간등 건물 5동
- 노량대교(남해대교)에서 약 6㎞
- 가액 : 1억 3천만원 (비품대 포함)

011-9790-5515

큰사찰및터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
- 높은산 중턱, 자연녹지, 경치 좋은곳
- 1만평(33,330㎡) 평당 10만원
- 답사후 결정, 주인 직접 현재 사찰 운영중 (개인 분할 등기 진행중)
-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조립식건물, 주차장 넓음
- 양산시내 및 고속도로 지하철 20분거리 부산 울산 김해 1시간 거리

010-3879-2544

법당,포교원 안내

- 위치 : 안산IC,서울외곽순환도로 바로진입 위치좋은역세권
- 교통편리,유동인구, 유동차량 많은 대로변에 위치
- 법당, 포교원, 수련원으로 아주 적합
- 상가형성 잘되어 입지조건좋고, 일체 종교행사 민원없음
- 전철, 농수산물시장10분거리
- 4층독채(엘리베이터있음), 실평수 60평, 법당, 주거 겸용 풀완벽 리모델링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 90만원 시설비 4000 가격절충가능

핸드폰 010-5913-7239, 010-3145-8626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부전시장 서면역5분거리 포교원 최고의 위치
- 5층건물에 4층 47평(엘리베이터)
- 법당(20평)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후불탱화 108호신불, 완벽시설,
- 강의실(명리학, 불교대학, 불교의식)겸 공양간(17평), 종무실, 주지실 (10평)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3,500만원(절충가)
- 명리학 공부하신 스님 최고의 조건
- 현재 수강생 30명, 천도재 상담 많음

010-3711-5072

포교원 시설 적합

- 위치 : 원주 치악산 자락
- 종교부지 1,200평 정도
- 목조 전통 법당 28평
- 요사채 2동(각 30평) 창고 60평
- 지장보살 좌불 노천불 모셔져 있음
- 삼성각 4평

010-9476-9800
자세한 것은 전화로 문의

별장 토굴 안내

- 위치: 양산 원동면 화제리 성지골마을 대양산, 물금 IC에서 20분
- 대지 150평, 건평 40평, 2층 양옥 별장주택(2층 : 큰방1, 큰거실, 욕실)
- 정남향에 조용하고 탁트인 시원한 전망 수행하기 좋은 명당터
- 심야전기 보일러 • 가액 : 3억

주인직접 010-6525-3817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토니 버나드

〈2〉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 ㊦

‘무아’를 경험하면 평온이 찾아온다

불안과 우울은 바람처럼 날아간다

불교 스승들은 무상을 번역하기 위해 덧없음, 변화, 예측 불가능성, 불확실성과 같은 다양한 단어를 이용한다. 이것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간에 모든 존재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 중 예측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은 커다란 불안과 고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안전과 확실성이라는 정반대의 것을 열망하기 때문이다. 무상의 이 두 가지 측면을 다루는 명상을 여기서 하나 소개할까 한다. 나는 이것을 ‘날씨 명상’이라고 이름 붙였다. 다른 무엇보다도 2005년에 제작된 영화 〈웨더 맨〉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이 영화에서 주연을 맡은 니콜라스 케이지는 ‘데이브 스프리즈’라는 인물을 연기한다.

데이브는 시카고 텔레비전 방송국의 기상 캐스터로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 사실 그는 기상 예보관이 시키는 대로 ‘날씨를 그대로 읽기만 하는 사람’에 불과했다. 어느 날 기상 예보관이 위아래로 섭씨 10도나 차이가 나는 예보를 주자 데이브는 좀 더 명확한 내용이 필요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자 그 기상 예보관이 말했다.

“데이브, 날씨는 어떻게 될 지 모르는거야.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하자고.”

시청자들은 좀 더 확실한 예보를 원할 것이라고 데이브가 이의를 제기하자 기상 예보관이 말했다. 날씨를 예상하는 건 추측일 뿐이라고.

“이봐, 그건 바람이야. 어디로든 불 수 있다고.”

이 말은 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 인생의 예측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이 나를 혼란에 빠뜨릴 때 나는 토니에게 이렇게 말하길 좋아한다.

“또 왔네, 인생이란 날씨가. 봐, 이건 바람일 뿐이야. 어디로든 불 수 있어.”

그런 다음 도겐 선사의 구절로 돌아가 이런 사실을 나 자신에게 상기시킨다. 그 매서운 추위를 가져온 바람은 그 바람에 뒤이어 올 어떤 즐거움을 준비해 놓고 있다고.

나는 생각과 기분을 마음속으로 불어오고 나가는 바람처럼 대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통제할 수 없다. 우울한 기분은 불청객처럼 일어나고, 두려움이나 불안도 마찬가지다. 바람에 비유한 이 가르침을 연습함으로써 나는 고통스러운 생각과 우울한 기분을 좀 더 가볍게 잡고 있을 수 있었다. 그것들이 곧 날아갈 것임을 아니까. 어쨌든 이것은 그것들이 하는 일이다.

어느 날 밤에는 몸이 너무 아파서 이 책을 위해 해 온 모든 작업을 내던져 버리고 싶었다. 어두운 생각이 떠오르고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하지만 그 눈물을 흐느낌으로 만드는 대신 깊은숨을 쉬고 날씨 명상을 시작했다. 생각은 감정은 어디로든 날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내가 느끼는 이것들이 곧 날아갈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러자 그것들은 실제로 날아갔다.

파리 독감이 만성병으로 자리 잡았음이 분명해졌을 때 토니와 나는 한 가지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토니가 한 달 동안 명상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그것이었다. 긴급 상황일 때 내가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기간에는 토니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정말로 토니를 보내 주고 싶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토니를 보살핀다고 느끼게 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토니는 2005년에 처음으로 그 명상 프로그램에 참가했고 그 후 해마다 2월이 되면 그곳으로 갔다. 매년 참석하는 주요 행사가 된 것이다. 토니가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은 것들은 곧 다가올 허리케인에 대비하는 사람들의 경우와 비슷했다. 그는 한 달 치 식량을 집으로 가져왔다. 그런 다음 음식들을 미리 요리해서 냉장고 속에 한가득 채워 넣었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마을 사람들도 준비시켜 놓았다. 나는 매사에 각별히 조심하겠다고, 필요한 일이 생기면 전화하겠다고 토니에게 약속했다.

2009년 2월 우리 집의 일기 예보는 내 병에도 불구하고 고요한 날씨를 예상했다. 그러나 토니가 떠나고 난 이틀 뒤 아침 9시, 눈 깜짝할 사이에 상황이 바뀌었다. 어느 순간 나는 침실로 이어진 계단의 두 칸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침실 바닥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다.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을 깔고 넘어진 것이다.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하자 나는 침대 위로 몸을 끌어 올려 곧장 노트북 쪽으로 다가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 한 가지 질문을 검색했다. 그 질문은 ‘의사를 만나러 가야 할 것인가?’였다. 발목이 급속도로 붓고 착색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찾아본 내용은 나에게 이런 확신을 주었다. 24시간 후에도 그쪽에 체중을 실을 수 없다면 그때 비로소 의사에게 가면 된다는 결론이었다. 그래서 기다렸다. 그리고 침대에서 나와 어딘가로 가야할 때는 집안을 기어 다녔다.



넘어진 첫날 고통을 느끼며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그 기상 예보관이 데이브에게 한 말을 생각했다.

“데이브, 날씨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하자고.”

토니와 나는 평온한 2월을 준비하기 위해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알아차리게 되듯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그 언제라도.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지 예측하는 것만큼이나 소용없는 일이다.

다음 날에도 여전히 오른발에 체중을 실을 수 없게 되자 우리 부부의 친구인 리처드가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진단 결과는 종아리뼈 골절이었다. 나는 이 상태를 나 혼자 하루 동안 더 참아 보았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원래 있던 병에 보태진 부상은 내가 감당하기엔 과도한 것임이 드러났다. 둘 중 하나라면 나 혼자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둘 다는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토니는 귀중한 한 달간의 명상 프로그램에 들어갔다가 나흘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환자를 보살피는 사람이었던 자신의 역할을 걷지도 못하는 아이 보는 사람으로 바꾸었다. 인생이라는 날씨였다. 한순간 고요했다가 다음 순간 거센 폭풍우가 불어 닥쳤다.

날씨 명상은 경험의 덧없는 본성을 재확인시켜 주는 강력한 도구이다. 즉 어떻게 매 순간이 날씨 변화만큼이나 빠르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지를 상기시켜준다. 넘어지고 난 일주일 뒤에는 정형외과 의사를 만나러 갔다. 검사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수련의가 먼저 들어왔다. 그는 엑스레이 결과를 살펴보며 말했다. 인대에 생긴 파열과 손상으로 미뤄볼 때 그 부위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자신이 알아낸 사항을 정형외과 의사에게 보고하려고 방을 나갔다. 만약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이 내 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는 동안 토니와 나에게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왔다. 정형외과 의사가 동반해 올 폭우가 이 방에 쏟아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의사는 들어와 날 보자마자 말했다.

매서운 바람 뒤엔 행복이 따라와
순간순간 덧없음을 깨달아야
‘나’란 것은 생각 · 감정일 뿐
무아 깨달을 때 평온 머물러

“수술이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부위는 안정적이에요. 통증이 느껴지는 동안 발목을 쓰지 말고, 관절이 예전처럼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물리치료를 받기만 하면 돼요.”

순식간에 해가 구름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토니완 나는 뛸 듯이 기뻤다.

한 시간 남짓 사이에 나는 어두운 먹구름, 폭우의 위협, 폭우 대신 갑자기 나타난 해, 그리고 차가운 짙은 안개를 경험했다. 매 순간의 덧없는 성질을 깨닫게 되자 나는 미소 지을 수 있었다. 마음속에서 《금강경》의 마지막 구절이 떠올랐다.

‘그러므로 덧없는 이 세상을 생각해야 한다.

새벽녘의 별을, 물거품을
한여름 구름 속 번개의 섬광을
깜빡거리는 등불과 환영과 꿈을.’

머지않아 태양이 차가운 짙은 안개를 사라지게 할 것임을 나는 알았다. 그리고 도겐 선사가 말한 매화꽃 향기를 맡게 될 것임을.

아프지 않은 이 ‘나’는 누구인가

아프기 전, 정말 운 좋게도 나는 상좌부 불교(소승불교의 일종. 스리랑카,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등에 퍼져 있음) 수행자인 카말라 마스터스가 다른 교사들과 함께 이끈 ‘영혼의 바위’ 명상 프로그램에 몇 차례 참석한 적이 있었다. 2000년에 열린 명상 프로그램에서 카말라 마스터스는 자신의 근본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그 스승은 인도에 살고 있는 무닌드라지였다.

무닌드라지는 언제나 불교 성지를 보고 싶어 했다. 연로한 상태였으므로 카말라 마스터스는 더 늦기 전에 스승을 몇 군데 성지로 모시고 가기 위해 친구 몇 명과 함께 인도를 여행했다. 어느 날 그들은 기차역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차는 다섯 시간이나 연착한 상태였다. 찌는 듯 더운 날이었는데 먹을 것도 없고 화장실도 없었다. 무닌드라지는 매번 옮겨 간 장소에서 자신의 한쪽 팔위에 머리를 올려놓은 채 앉아 있곤 했다. 그가 너무도 노쇠해 보였기에 카말라 마스터스는 스승이 이 상황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걱정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녀는 스승에게 몸이 괜찮은지 여쭈었다. 스승은 대답했다.

“이곳에 열기가 있지만 나는 덥지 않다. 이곳에 배고픔이 있지만 나는 배고프지 않다. 이곳에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나는 성가시게 느끼지 않는다.”

병에 걸린 후 침대에 누워 있게 되었을 때 어느 날 카말라 마스터스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래서 조용히 되뇌었다.

“이곳에 아픔이 있지만 나는 아프지 않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나는 앞의 이야기에 영감을 얻어 그 말을 자꾸만 반복했다. 몇 분 뒤 나는 깨달았다.

“그래! 내 몸에는 병이 있지만 ‘나’는 아프지 않아!”

이것은 뜻밖에 생겨난 크나큰 위로의 원천이었다. 그러나 잠시 후 그 말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로 했다. 그렇게 하자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올랐다.

‘아프지 않은 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나로 하여금 무아 혹은 ‘고정됨 없고 변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고정됨 없는 자신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은 지금도 그렇지만 가히 혁명적이었다.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우리는 ‘내가’ ‘나를’ ‘나의 것’ 같은 관습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단어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동안에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여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토니 버나드인가? 토니버나드는 본래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확고한 육체적 · 정신적 실체인가, 아니면 토니 버나드는 늘 변화하는 특성들의 무리에 붙여진 표시인가?’

이것은 우리 모두 탐구해 볼 가치가 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존재’에 대해 희미한 느낌을 가지거나 심지어 구체적인 느낌도 가진다. 마음으로 하여금 영구적이고 변하지 않는 자신이나 영혼을 상상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느낌이다. 우리의 전체 인생은 이것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10년 전 자신이 누구였는지 생각해보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인 듯한 성격의 일부는 한 순간부터 다음 순간까지 이어진 어떤 영구적인 실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영구적인 자신을 파악할 수 없다. ‘나’라는 것은 생각이고 감정이다. 그 생각과 감정이 너무도 확고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고정된 개인이 경험하는 것은 실제처럼 보인다. 즉 이전의 원인들에 의해 조건 지어진 육체적 · 정신적 활동의 생성과 소멸로부터 별개로 존재하는 토니버나드는 없다.

무상을 아는 것은 무아를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아’를 경험하는 것을 돕기 위해 나는 ‘하늘 바라보기’라고 부르는 명상을 이용한다. 나는 우리 집 뒤뜰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며 시선을 편안하게 한다. 얼마 후 이 경험은 드넓은 열림이 된다. 몸이나 마음에서 ‘개별적인 자아’라는 관념은 모두 사라진다. 지나가는 산들바람의 감각이나 소리 혹은 일어나는 생각이 있더라도 그것은 모두 흘러가는 에너지일 뿐이다. 이 드넓은 느낌이 몇 초간만 지속된다 할지라도 그 몇 초 동안 토니버나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나 그렇듯이 결국 토니 버나드라는 환영이 확고하고 개별적인 독립체로서 다시 나타날 때에도 그것이 없는 그 몇 초는 커다란 해방감을 준다. 그리하여 평온함이 잠시 동안 나와 함께 머문다. 그러나 이 평온함은 서서히 사라지고 나의 정체성들이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한다. 전직 법대 학생처장이자 교수, 한 사람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 개 키우는 사람 그리고 환자. 그러나 나는 언제나 하늘을 다시 볼 수 있다.

정리=박아름 기자

이 글은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문학의 숲)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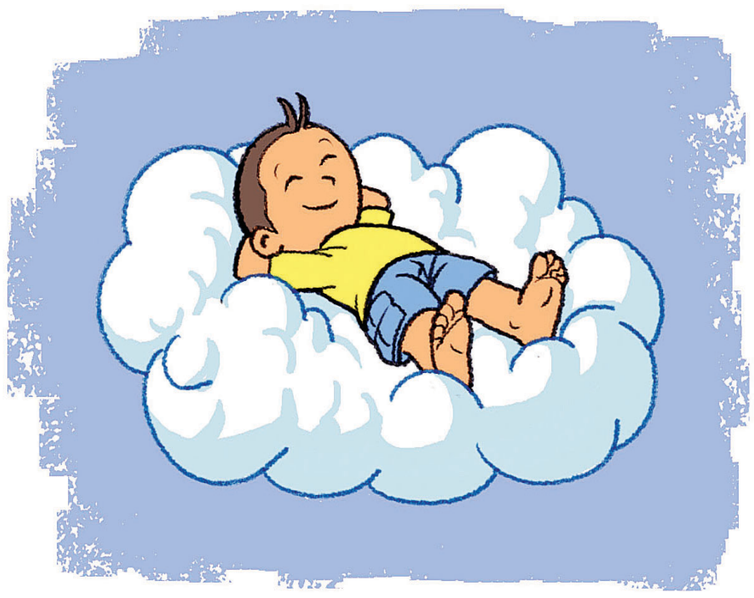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僧家 秘傳 風水學 講義
옛 승가의 비전 풍수학 강의 개설
스님들을 위한 공간 확보
제가 불자를 위한 방편지학
천문과 지리를 알면 운명이 바뀐다.
■ 모 집 : 수시 모집
■ 시 간 : 매주 목, 금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 장 소 : 서울시 서초동 신논현역 교보문고타워 뒤 정통풍수지리학회
■ 교 재 : 유리자(유리자동서), 옥룡자(무감편) 무학대사 (동사심전) 외 등 승가 비전 풍수 중점 강의
전화 ☎ 010-5559-1529
지방 강의 개설 문의 받습니다.

예봉 합장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생각 해야



날마다 행복한 생각을 하겠어요

Every day, I will think of happy things.

기원전 중국의 기(杞) 나라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고 한숨을 쉬는 일이 많았습니다. 걱정이 된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 요즘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

"하늘 때문에 걱정이라네. 저렇게 넓은 하늘이 무너지면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지 그게 걱정이네."

"예끼, 이 사람.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군. 하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그러나 이 사람은 계속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도 땅은 어쩌란 말인가? 땅이 꺼지면 모두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텐데……."

"땅도 꺼질 일이 없어. 여태 아무 일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하늘이 왜 무너지고 땅이 왜 꺼지겠나?"

"그러니까 걱정이지. 이제껏 아무 일 없었으니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은가!"

이 이야기는 사자성어 '기인천우杞人天憂'의 유래입니다. 기인천우란 기나라 사람의 하늘걱정이라는 말로, 줄여서 기우라고 합니다. 앞일에 대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걱정 가운데 당장 해결해야 할 걱정은 아주 조금뿐이라고 합니다.

대개가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걱정이라는 것이지요. 쓸데없는 걱정을 쌓아두고 불행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 기뻤던 일은 무엇인지, 감사한 일은 어떤 게 있었는지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즐거운 상상을 해 보기 바랍니다. 즐거운 생각이 행복을 불러올 테니 말입니다.

* 행복과 관계있는 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요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걱정은 무엇인가요? 지금 꼭 해결해야 할 걱정인가요?

욕심과 고집으로 마음을 괴롭히지 않겠어요

I cause myself problems by being greedy or stubborn.

이솝이 지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는 욕심의 끝을 잘 보여주는 우화입니다.

어느 농부에게 황금 알을 낳는 신기한 거위가 있었습니다. 거위는 날마다 번쩍이는 황금 알을 하나씩 낳아 농부를 기쁘게 했습니다. 농부는 황금 알을 팔아서 생활이 조금씩 나아졌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황금 알을 날마다 낳으니 뱃속에는 황금이 가득할 거야. 그걸 한꺼번에 꺼내서 빨리 부자가 되어야지."

농부가 거위의 배를 갈랐지만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후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날마다 하나씩 황금 알을 낳아 농부를 기쁘게 하던 거위는 이미 죽어버린 뒤였습니다.

어느 위인, 어느 종교든 욕심의 해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경에서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온갖 보석을 비처럼 내려주어도 만족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삶의 자세를 일러주는 중국의 어느 고전은 '욕심 많은 사람은 금을 주어도 옥이 없는 것을 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쓸데없이 피우는 고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남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욕심과 고집을 줄일수록 마음은 더 행복해집니다.



* 여러분은 어떤 일에 욕심을 내는 편인가요?
*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할 때 마음이 어떤가요?
* 욕심이나 고집을 부리면 나쁜 점은 무엇일까요?



화나고 짜증나는 일도 한 번만 참아 보세요

When something makes me angry or frustrated,
I will remember that letting go will make me feel better.

신라시대의 고승인 원효대사(617~686년)는 젊은 시절 의상대사(625~702년)와 함께 중국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경주에서 길을 떠난 두 스님은 어느 날 산속에서 밤을 맞았습니다. 다행히 토굴을 발견하여 잠을 자던 중 목이 말라 깨어난 원효스님은 주변을 더듬었습니다. 마침 바가지에 담긴 물이 있기에 달게 마시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잠에서 깬 원효대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잠결에 마신 물이 해골에 담긴 더러운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원효대사는 속이 불편해 토하기 시작했지만 이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물은 어젯밤에도 해골에 담긴 물이었고 아침에도 해골에 담긴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마실 때는 해골의 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달았고 오늘은 해골의 물인 걸 알기 때문에 토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똑같은 물을 다른 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스님은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신라로 돌아가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불경에는 '모든 일은 마음에 따라 다르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세상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짜증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짜증나는 일뿐이고, 기쁜 마음으로 보면 기쁜 일뿐입니다.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한 번 꾹 참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 원효대사의 깨달음은 무엇이었을까요?
* 여러분은 어떤 일에 짜증내거나 화를 내나요? 그 일은 화를 낼 만한 일이었나요?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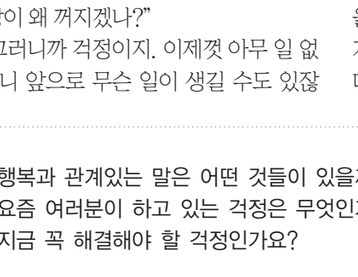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3칸겹집 목조건물 : 11,000㎜×6,000㎜×4,800㎜ ■가격 : 평당 1,500,000원
다그라스목재기둥 180×180×2700 / 다그라스 대들보 180×210
다그라스목재도리 180×180 / 다그라스서까래 100×100 / 목재판재 120×18
전통강판기와 주춧돌 300×300×300 ※황토흙 ALC 블럭 내화벽돌 판넬 자유 선택
원하는 평수 가능 토목공사 부가세별도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조립식 평상 : 1800×1030×400㎜
~~가격 29만원~~ → 할인가 19만원
부가세 운송비 별도
폴리프로필렌 자재 – 기둥 110×90×400 / 도리 80×35 / 중간대 80×35 / 마루판 210×12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지구산업
www.지구산업.com
TEL 063)323-3011~2 / FAX 063)323-3010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불자 세상보기

팬택의 아름다운 퇴장을 그리며



우승택
ST생테크연구소장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

현대 한국 사회는 갈등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도산 절차를 밟고 있는 팬택의 마지막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하면서도 아름다운 뒷모습에 이 시대의 화합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지금부터 16,7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우리나라 각 가정이 모두 단 몇 주만이라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가 나라가 어렵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자식을 줄려고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을 대한민국을 위해 다 팔아버렸다는 것을 그 자녀들이 안다면, 그 후손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지금은 뭐라고 할까?

더구나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도 생활고에 시달리시고 그 자녀들도 덩달아 취업도 안 되고 생활에 속임을 당하고 사는 처지라면 더욱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착한 팬택 노동자들을 보며 1998년 IMF 이후 '금 모으기 운동' 을 하던 한국인들이 생각난다. 도대체 이런 착한 국민들과 착한 종업원을 거느리는 사장들은 왜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들 금을 다 내놓아 지금은 현찰이 없어 고생하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만 보이는 한국의 엘리트들은 지금도 외환위기의 극복을 자기 자랑으로 알지,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을 다 내놓으라고 했던 것과 같은 이치라는 죄책감은 들지 않는 것 같다.

팬택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필자는 꽤 전부터 하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팬택과 작은 인연이 있었기에 그러했다. 그 인연은 이러하다.

작년 12월에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가 '비앳텔' 이라는 베트남 국영 핸드폰 회사의 부탁이라면서 팬택에 아는 사람이 없느냐는 부탁을 받았다. 베트남의 국영 핸드폰회사는 베트남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16개 국가인데, 핸드폰 제조회사를 만들어 팔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전에 일단 한국에서 핸드폰을 사서 '비앳텔' 브랜드로 바꾸어 200만대 정도 수입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접촉을 해보니 팬텍은 물론 채권단의 관리 하에 있어서 그러했지만, 핸드폰이 오직 한국어와 영어로 구동되는 사양만 가지고 있어서, 베트남과 그 외 16개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그냥 채권단과 사장단과 경영진이 적극적인 대책없이 시간 끌기만 하고 세계 무대는 완전히 포기한 기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97년 IMF 쇼크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어떤 업종이던지, 한국에서 3등내에만 들면 대기업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팬택은 핸드폰 업계의 2등과 3등을 하는 국내 굴지의 기업이었고, 외국에 건물을 구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한국에서 3등 이내가 아니라 세계에서 3등 이내 기업만 살게 되고, 지금은 세계에서 1등 기업만 배부르게 돈 버는 부자가 되고, 2등을 하면 직원들 월급은 주며 그런대로 먹고사는 부자가 되고, 3등을 하면 근근히 버티기만 할 뿐 고정비용도 커버하기 힘든 세상으로 바뀌었다. 팬택은 지금 저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세상사의 흐름을 놓쳤던 기업이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었다.

부처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세웠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지켜봤다. 아무런 저항도 없이 자신의 사촌 동생인 왕이 적군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자신이 죽어야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겠다면서 상투를 풀어 연못 속에 자기 머리를 쳐 박고, 머리카락과 연못 속의 풀을 묶은 후 자살하는 대목은 불교를 처음 접할 당시 나를 힘들게 했다. 이제와서 생각하면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하며, 지도자는 전투 후의 뒷 수습도 어떻게 해야하는 지를 부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본다.

채권은행단, 팬택의 경영진들은 팬택의 저 아름다움 품성을 가진 직원들을 키우기 위해 각 가정에서 엄청난 에너지와 희생 속에서 키워낸 인재들인지 모르는 것 같다. 저 훌륭한 직원들을 키우고 가꾸어 팬택이라는 회사에 보시를 했으나, 단지 월급을 받으러 온 '고정비 항목 수성요소' 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나 보다.

마지막으로 팬택의 저 아름다운 직원들도 모두 깨우쳐, 이제는 회사라는 동물원 사파리 속의 사자나 호랑이가 아니라, 먹이를 주는 사육사가 없어도, 사바세계라는 정글과 밀림을 호령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안목을 열어줄 선지식을 만나는 인연이 생기기를 바랄 뿐이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성적 소수자에게 관심을

퀴어 축제 막은 기독교, 불교를 배워라



홍기옥
경찰교육원
감성개발센터 교수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이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원불교, 천도교 등 이웃종교 지도자와 1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하여 5월 25일 개최되었다. 올해 봉축법요식에는 세월호 유가족, 성적 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함께 참석해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다.

매년 6월에는 전국에 있는 성적 소수자들이 서울에 모여 '퀴어축제' 를 개최된다. 올해 정상적으로 실시된다면 15회를 맞는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올해는 '퀴어축제' 를 열 수 없거나 축소를 해야만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경찰이 6월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성적 소수자들의 문화행사 '퀴어문화축제' 의 퍼레이드를 불허하였기 때문이다. 이유는 성적 소수자 조직위에서 노숙까지 해가며 집회의 순번을 받기 위해 경찰서 앞에서 노숙했지만 기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집회 장소를 선점하였기 때문이다. 그것도 당초에 조직위가 6월 13일 대학로에서 퍼레이드를 개최하려 했으나 기독교 단체들과의 선점 경쟁에서 행사 장소를 이미 한 차례 바꾼 상태인 데도 말이다.

축제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보면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를 말한다. 퀴어축제의 시작을 보면 1969년 6월 28일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술집 '스톤월 인(Stonewall Inn)' 에 동성애자들이 모여 교류하던 장소이었다. 당시 미국은 동성애가 합법이 아니어서 경찰의 단속대상이었다. 사건 당일 경찰의 현장 급습에 맞서 동성애자 집단이 스톤월 인에서 자발적으로 데모를 일으켜 며칠간 지속되었다. 1970년 6월 28일, '게이 퍼레이드' 라는 행진이 시카고 로스엔젤레스와 뉴욕에서 열렸으며, 그것은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로 전해 내려온다. 오늘날 이와 비슷한 '게이 퍼레이드' 행사가 매년 6월 세계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축제를 여는 것이다.

2011년 6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7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과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을 기반으로 한 인권 침해를 '우려' 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기독교 집회 신고 선점해 봉쇄

불교, 봉축 법요식 초청 '귀감'

다름을 인정함은 아름다운 행위

을 통과시켰다. 유엔이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성전환자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결의안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세계 39개국 공동제안으로 발의됐으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23개국이 찬성, 19개국이 반대, 중국 등 기권 3개국으로 최종 통과되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인권 이사회 이사국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혐오받고 차별받는 3대 약자는 장애인, 전과자, 성적 소수자라고 말한다.

성적 소수자는 통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5~10%가 있다고 한다. 성적 소수자의 축제는 이러한 억압과 차별을 축제 기간만큼은 적어도 그들만의 축제로서 기쁘고 즐겁게 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의 축제를 방해하는 것은 억눌리고 차별받는 고무풍선과 같아서 언제 폭발할 지도 모르는 것이다. 우리 사회를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한다면 그들의 해방구를 인정해야만 한다.

일부 개신교도들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림으로 규정하고 최소한의 해방구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고 보면 한국불교는 사회 속의 약자들과 함께 하는 생활 속의 종교, 자비의 종교임에 틀림없다. 반대로 일부이긴 하지만 기독교의 하느님도 사랑으로 약자들과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어두운 곳에서 등불은 더욱 빛난다.

社說

교과서 내 불교 왜곡 바로잡아야

한국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사회 교과서 내 불교 왜곡 기술이 심각하다는 소식이 들린다. 탈레반에 의한 바미얀 석불 파괴 원인이 불교라는 기술부터 불교를 우상숭배 종교로 비하하는 등 그 내용도 다양하다고 한다.

이는 불광연구원과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문제를 조사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이중 심각한 것은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이다. 우리나라 일선 고등학교에서 채택률 2위에 달하는 천재교육의 사회교과서를 보면 불교는 우상숭배의 종교이며 이로 인한 갈등을 유발하는 종교로 학생들이 오인하기 쉽다.

천재교육 교과서 내에는 기독교의 예수상이나 십자가 등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불교는 불상 등을 모시는 우상 숭배의 종교처럼 기술하고 있다.

또한 표현에서도 '최장, 최악' 등의 어휘를 사용하여 마치 불교가 심각한 종교 갈등을 유발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교과서 내 불교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 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불광연구원과 불교사회연구소가 각종 교과서에서 불교가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이를 연구해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 하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산하에 '교과서 연구위원회' 를 구성하기도 했다.

초 · 중고등학교 교육은 한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를 가진다. 그만큼 교과서 제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종교 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올바른 종교관을 정립하도록 하는 것도 국민 화합을 유도하는 데 유용하다. 교과서 내 불교 왜곡을 바로잡는 것은 이런 요인에서 발로한다. 이 같은 교과서 모니터링과 연구 작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구인사 창건 70주년에 거는 기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가 6월 20일로 창건 70주년을 맞는다. 중국서 1400여년 전 만들어진 천태종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개창된 것은 고려 숙종 2년 대각국사 의천 스님에 의해서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숭유억불 정책으로 명맥이 끊겼다.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수행하고 귀국한 상월 원각대조사는 광복되던 해인 1945년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소백산의 연화지에 법당을 만들고 음력 5월5일 단오날 신도 8명과 함께 구인사를 창건했다. 창건 당시는 거의 초가삼간이나 다름없는 비좁은 수행공간이었다. 70년이 지난 현재 구인사는 50여동의 크고 작은 법당으로 이뤄진 대도량으로 성장했다. 또한 8명에 불과했던 신도는 250만 명으로 늘었고, 250여개의 사찰에 500여명의 승려가 소속돼 있다. 천태종 불사에는 특징이 숨어져 있다. 가람 배치를 고려하기보다는 신도를 최대한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실용적 공간으로 절을 지어 기와집이 아닌 함석집도 많았다고 한다. 이는 천태종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다. 총무부장 월도 스님에 따르면 상월원각대조사는 철저한 규율과 수행 정신을 강조했다. 그래서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고 낮에는 산과 들에 나가 일하며 수행하고, 밤에는 선방서 불 꺼질 새 없이 경전을 외다 보니 이런 힘든 생활을 못 견디고 나가는 출가자들이 많았다. 이런 '주경야선'의 전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엄격한 규율 속에 수행하는 가운데 오히려 신도들은 늘어나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았다.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 70년간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천태종도 상월원각 대조사의 원력에 의해 무에서 유를 창조해 종단의 기틀을 다져왔다. 이제 그 정신을 다시 되새기며 다가올 새로운 70년을 어떻게 모색할지 그 중요한 몫은 이제 후학들의 숙제가 되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부처님 오신 날”에 또 이런 일이

(불기 2559년 5월 29일)







불법승 정법 실천 도량에서 부처님 오신 날에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 있어 이를 알리고자 합니다.

5월 초 일요법회날 스님이 법회를 마칠 즈음 법당 안에서 바깥 화단을 보며 “저기 흰 꽃만 가득 피어 있는데 내년에는 빨간 꽃도 좀 볼 수 있도록 해요.”라고 하니 시주 하신 분과 신도분들이 바깥을 보며 “그렇게 할께요.”라고 답했다. 참고로 본 도량은 일요법회를 꼭 합니다.

그리고 초파일 준비로 바쁜 가운데 어느 날 우연히 보니 신기하게도 화단 가득 만개해 있던 흰 꽃은 한 송이도 보이지 않고 그 곳에 빨간 꽃이 피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두 송이가 아니고 몇 백 그루가 동시에 빨갛게 피어 있었습니다.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시주한 신도님(토목, 조경사업 하시는 분)이 농원과 관상수 하는 전문가에 알아보았으나 한결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도리어 스님께서 자기들 몰래 그 많은 흰 꽃을 뽑아내고 빨간 꽃으로 심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우기기까지 합니다.

참고로 “부처님 오신 날”에 많은 분들께 공개적으로 또 물어 보았으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인지요? (꽃 사진 첨부)

※ 본 도량에서는 부처님과 조사가 경과 어록에서 한결같이 해서는 안된다고 극구 만류하신 것들 {(사주, 철학, 점, 삼재풀이, 삼재기도, 부적, 성지순례(바깥으로 쫓지 말고 안으로 살펴야 됨), 방생(환우를 위한 인간 방생을 해야 함), 인등기도, 신수기도 등등……}……

이러한 비불교적 행위는 일체 거부하고 오로지 경전과 조사어록만을 지도 원리로 삼고, 공부하며 실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많은 이들이 하나같이 절 운영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고 걱정하는데.....

절이란 크든, 작든 출가한 수행자가 살아가는 처소이지, 공양주를 두고 세속적 이익을 구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백장 회해 선사처럼....)

※ 불교를 믿는다 하면 불.조사님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고 꼭 실천한 후에 “그 말씀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하는 것을 체험하고 난 뒤 그때서야 “불.조사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구나”.... 하고 믿어야 한다.

체험을 한 후에 생긴 믿음은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절대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앉아서 말로 떠드는 언변가를 찾지 말고, 실천수행하는 수행자를 찾아야 한다.

지금 한국 불교는 앵무새를 찾아 전국을 헤매고 있다. 그러니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는 구원이나 기적은 없고 소문만 무성한 조사를 팔고 있고, 신비주의만이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 일전에 JTBC 방송에서 〈10대 점술가를 찾아서〉라는 프로에서 전국에 승.속을 가리지 않고 소문과 명성만이 자자한 이들을 찾아 그들의 능력을 방영한 적이 있다. 그게 어디 남의 일인가? 지금 절집에서 해지는 줄 모르고 하루종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주, 철학, 삼재풀이, 삼재기도, 부적, 천도재, 합격기도, 승진기도, 인등은 종류별로 불 다 밝혀놓고 등등.... (달마어록 참조)

이것 말고 내놓을 만한 것이 있는가?
어느 방송이든 제안을 한다. 지금 전국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성직자와 수행자들이 출연할 수 있도록.....
〈10대 성직자를 찾아서〉라던지..... 〈10대 수행자를 찾아서〉라는 프로를 기획하면 어떨는지요?...

불.조사님들이 하지 말라는 사주, 철학, 점 등등..... 이 아니고 예전 불.조사님들이 신통력을 가졌듯이.....
수행자들이 신통력을 겨룰 수 있는 야단법석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 이미 현대불교 신문을 통해 2013년 12월 18일 (바른 정법을 행할 때만 부처님의 가피는 있다.), 2014년 5월 8일 (우리는 가피받을 일 (행동)을 하고 있는가?), 2014년 6월 11일 (우리는 왜 불.조사님의 권능이 없는가?) 이 지면을 통해 알린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 날” 그 분이 오신 뜻을 다시한번 기리며 그 분과 조사들께서 극구 만류하신 비불교적인 행위는 마땅히 사라져야 할 부산물임을 불자들은 명심하여 수행합시다.



불.법.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선재불교대학)
경남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519-3
(충해공원내)
TEL. 055)633-6555

보훈가족 후원, 교정교화, 극빈층 급식 등…

남순덕 진여원 원장



남순덕 원장은 … 1948년 4월 경남 의령에서 태어났다. 1978년 부산 남포동 대각사에서 어린이법회후원회 회장과 종무업무를 맡아 활동하며 후원회원 600여명을 모집하는 등 포교 활동을 펼쳐왔다. 1996년 진여회를 창립하고 1997년 진여원을 개원했다. 그후 무료급식, 교정교화 활동, 군포교 활동, 호국영령을 위한 천도재 및 유가족 위안잔치 등을 개최하며 포교와 자비실천에 앞장서왔다. 1983년 소년원 감별소(현재의 소년원 대안학교)서 교정교화 활동을 펼치며 1996년 7월 법무부 분류심사원 교정위원회로 위촉됐다. 2000년 9월 법무부 부산구치소 교정 위원으로 임명되며 현재까지 전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6년 12월 김정길 법무부 장관상 표창, 2002년 5월 정형근 국회의원 표창, 2009년 8월 허태열 국회의원 표창, 2006년 12월 김성호 법무부 장관 표창, 2009년 6월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표창, 대한불교 포교원장상 등을 받았다.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달이다. 이들과 함께 잊지 말아야 할 이들이 바로 보훈가족이다. 보훈가족들에게 자비행을 펼치고 있는 주인공이 있다. 부산 구포에서 조계종 직할 포교원 진여원을 운영하고 있는 남순덕(67 · 보타월) 원장이다. 보훈가족 돕기는 물론 극빈층 무료급식, 군법당 지원, 교정교화 등 32년 동안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는 남 원장. '보타낙가산(寶陀洛伽山)의 관세음보살처럼 중생을 비춰라' 는 의미를 가진 '보타월' 이란 불명처럼 이웃을 위해 자비 실천을 행하고 있는 남 원장을 5월 29일 진여원에서 만났다.

무료급식에서 보훈가족과의 만남까지

남 원장이 보훈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17년 전 구포 지역 극빈층을 돕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편의 직장 때문에 부산 구포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집 근처 수월선원에 들러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집에 돌아가려고 구포역을 지나려고 하는데 거지와 노숙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루 이틀, 많게는 나흘씩 굶고 있었어요."

구포역의 노숙자들을 보고 온 날이면 가슴이 아려 잠을 이를 수가 없었다.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리하다가 절에 들어오는 시주쌀이 떠올랐다. "당시 수월선원에 쌀이 많이 들어왔는데 여름이면 벌레도 생기고 시주를 받았지만 다 먹기엔 양이 많을 때도 있었어요. 주지 무정 스님의 허락을 받아 구포 지역의 극빈층을 돕기 시작했죠"

남 원장은 수월선원 신행모임 진여회 회원들과 함께 1996년 2월 '진여봉사단' 을 결성하고 매일 600인분의 주먹밥을 만들어 무료급식에 나섰다. "저를 포함해서 12명 회원이 함께 했죠. 함께 예불도 드리며 매일 주먹밥을 만들어 돌렸어요. 그런데 그 중 회원 한 명이 예불 시간에 부산 북구 지역에서 희생된 428명 호국 영령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바로 대한민국 전몰군경 북구 미망인인 지회장 황정자 회원이었어요."

매일 같이 호국영령을 위해 기도하는 도반의 모습에 남 원장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또한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에 대한 국가의 처우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며 남은 유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도 절감했다.

"부산 북구에는 지금도 보훈 회관이 없습니다. 이는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국가차원에서 지원비가 넉넉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니 생계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가정부, 식당 서빙 같은 일들이 대부분이었기에 자녀들 학비와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들어보였어요. 또한 아버지 아들을 잃고 생계마저 어려우니 심적으로도 위축되어 있어 더욱 안타까웠죠." 한 달에 한번 구포지역 미망인과 유가족들이 모여 마음을 터놓는 시간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사정을 가까이서 듣게 된 남 원장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다들 어려운 형편에 각자의 지갑을 열어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분들이 마음 편히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비라도 챙겨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보훈가족들의 모임에 식사를 제공하며 남 원장과 보훈 가족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해 위령재를

1997년 남 원장은 공무원인 남편의 퇴직금을 담보로 구포역 근처 예식장 건물을 전세로 빌려 포교당인 진여원을 설립하게 된다. 진여 봉사단과 함께하는 진여원은 개원과 함께 군경전몰장병영가 위패 428패를 봉안하고 합동천도재를 지내게 된다. 이렇게 시작된 천도재는 유가족의 상처를 쓸어주며 위로의 시간을 마련해주었다.

이후 구포 3 · 1운동 기념탑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호국영령 위령대재 및 보훈가족위안행사' 를 17년째 이어오고 있다. 또한 '피난음식 함께 나누기 보리밥 시식' 및 '보훈가족위안잔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보훈가족들을 위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캠페인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동시에 장학금 및 지원금도 후원하고 있다.

1996년 2월 진여봉사단 결성
회원 12명과 매일 600인분 무료급식

1997년 남편 퇴직금 담보로 포교당 설립
32년째 재소자 위한 교정 · 교화사업 펼쳐

호국영령 및 보훈가족 후원 17년째 계속
유가족 처우 위한 사회제도 개선 요구도
2002년 구포 현충공원 內 추모비 건립
군법당 '호국 진여사' 불사도 추진중

"국가나 여타 기관에서 후원금 보조를 받은 적은 없어요. 매년 장학금과 지원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다들 궁금해하죠. 공무원의 아내로 오직 부처님 일에 매달려 살아왔고 특별히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제 통장에는 단돈 백만원이 없어요. 후원자가 있다면 바로 불자님들이죠. 봉축 때마다 진여원에 등을 다는 불자님들의 정성으로 보훈 가족들의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02년 7월 29일 구포역 근처 화명 제3근린공원 내 추모비를 건립했고 이후 진여원의 노력으로 근린공원은 현충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쾌거를 이룬다. "진여원이 해체되는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어요. 세들어 있던 건물이 매각이 되면서 나가야 하는 입장이 되었죠. 그 때 남편의 퇴직금을 담보로 있던 진여원의 전세금 5000만원을 돌려받았는데 이 돈을 추모비 건립에 투자했죠. 추모비에는 호국영령의 이름을 하나 하나를 새겼어요. 울어도 추모비 앞에서 울라고 가족들을 다독였죠." 이후 진여원은 다시 남편의 퇴직금을 담보로 해 현재의 자리에 터를 잡게 되었다고.

남 원장은 오늘도 유가족과 미망인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올해는 6월 12일에 '호국영령 위령대재 및 보훈가족위안행사' 를 열어요. 봉축이 끝난 뒤 회향하는 시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의 가피로 진정한 불법을 만나다

남 원장이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36년 전이다. 남편의 불치병 선고에 눈앞이 캄캄해졌던 30대 초반의 남 원장은 부산의 대각사를 찾았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던 그는 네 살, 다섯 살, 여섯 살 연년생의 어린 아이 셋을 법당에 앉혀 놓고 "제발 남편을 살려달라"며 약사여래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지금은 남편의 병명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도 안나요. 십이지장을 7cm 정도 잘라내야 하는 대수술을 해야 하는 병이었죠. 당시 의사 선생님은 그 유명한 장기려 박사님이셨으니 오진은 생각 할 수도 없었어요. 재차 검사를 받아도 같은 결과였어요. 남편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까마득했죠. 생사의 갈림길 앞에 선 남편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병간호를 하며 세 아이를 돌보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낸 지 10년, 남편은 놀랍게도 병마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남 원장은 보시행의 중요성을 깨닫고 바라밀 실천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아이를 키우면서 11명의 대가족을 건사해야 했어요.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행을 하면 되겠다고 마음 먹었죠."

대각사에 기도를 나간지 1년여 시간이 지나자 조실 경우 스님이 남 원장을 불렀다. 한자에 능했던 경우 스님의 법문을 한글로 잘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가 결혼 전에 시골 면사무소에서 전언통신문을 담당했어요. 본청에서 공문을 보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던 시기여서 급한 내용은 전화로 받아 공문을 작성해 보내는 업무였죠. 그때의 경력이 도움이 되었어요. 스님의 법문을 받아 적으며 경우 스님의 법문을 연재하는 주간불교신문에 전달했어요."

이를 계기로 대각사의 종무 소임을 맡게 되었고 어린이 법회 후원회 회장도 역임하게 된다. "어린이 법회를 후원하며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봤죠. 어린이 법회에 필요한 간식과 교구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 마련해 주었어요. 회원모집도 열심이었죠. 제가 구포로 이사를 하기 전까지 대각사 어린이 법회 후원회원이 600여명으로 늘어났어요. 능력을 인정받고 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쁨이 컸어요."

남편의 직장이 구포로 옮겨지면서 이사를 하게 되었고 남 원장은 근처의 수월선원을 나가게 되었는데 이곳은 비가 오면 물이 샐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 "불자들의 신행교육도 전혀 안되어 있었고 종무소도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 못했어요. 차근히 종무소 불사와 기도법 교육, 경전 읽기 등 수월선원을 찾는 불자들을 위해 일했죠. 그리고 10년 후 수월선원 주지

※ 법화경 · 사경 ※



묘법연화경
할인가 28,000원(5권 이상)
정 가 40,000원(1권)

묘법연화경(우리말)
할인가 9,600원(20권 이상)
정 가 16,000원(1권)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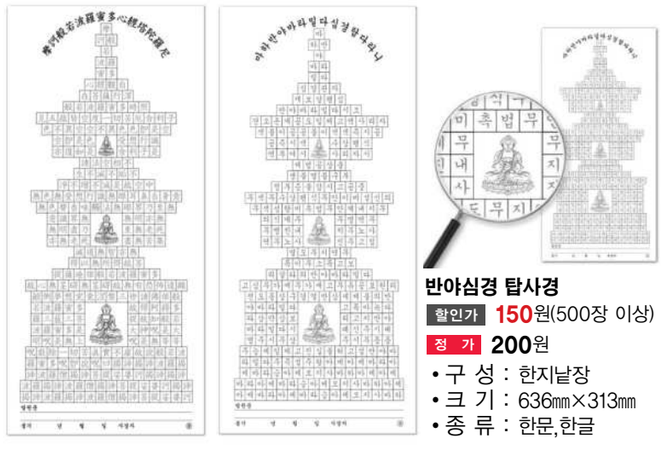
34호~40호 우리말법화경1~7
할인가 2,100원(50권 이상)
정 가 3,500원(1권)

묘법연화경사경공책 〈주문생산〉
정 가 5,000원(1권)
※칸만 그어져 있는 공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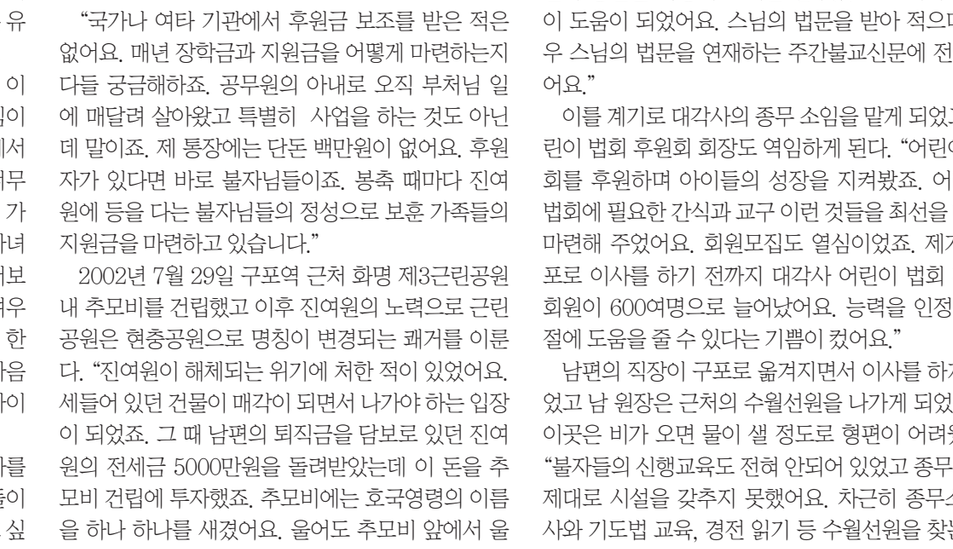
※ 경전사경·사경지 ※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 내 지 : 70장 자연색메트지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크 기 : 220㎜×310㎜



반야심경 탑사경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 종 류 : 한문,한글



영가옷B형-남 정가 1,200원 영가옷B형-여
영가옷C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C형-여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예수재함A (50개 1박스)
동남영가옷 정가 800원
동녀영가옷 정가 1,000원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 가 1,500원

※크기
• 대 6.5×24㎝
• 중 6×22㎝
• 소 5.3×18.3㎝
한지접은 위패(대/중/소)/인쇄접은 위패(대/소)
정 가 30,000원 / 30,000원 (100개)
할인가 @250원 / @250원 (1000개이상)

※크기
• 15.5×19㎝
한지·인쇄접은영가옷(남/여)
정 가 27,000원 (100벌)
할인가 @240원(1000벌이상)

금강호신경
1000조 @160원
대량주문시 전화주세요.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이웃 어루만진 자비행



남순덕 원장은 17년째 보훈가족을 돕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02년 5월 호국영령 추모비 건립 기공식 (가운데가 남순덕 원장)


남순덕 원장은 17년 동안 진여봉사회와 함께 구포에서 무료급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남 원장이 초창기 구포역에서 노숙자에게 주먹밥을 나눠주는 모습.


32년 동안 교정교화 활동에 매진해온 남 원장은 재소자들과 오랜 시간 편지를 주고 받고 있다.



2000년 부산 소년원 감별소에 해수관세음보살 입상 점안식을 봉행한 남순덕 원장(맨 오른쪽)

였던 무정 스님이 경남 양산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수월선원과의 인연도 마무리됐죠."

모두의 가슴 속에 불성을 심어주고자

이후 도반으로 함께 활동하던 수월선원 '진여봉사단'과 함께 진여원이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지금 운영하는 포교당 진여원이 있기까지는 20년 동안 대각사와 수월사의 절 살림을 살면서 배우고 익힌 노하우가 많은 도움이 됐죠. 또한 진여봉사단 도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재가자인 제가 포교원을 운영하는 것이 무모했을지 몰라도 기도하며 얻은 변화와 지혜, 그리고 나눔에 대한 원력을 통해 진여원을 찾는 이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진여원은 무료급식은 물론 동지팥죽 나눔 행사, 재소자들을 위한 교정 교화 사업, 소외 이웃을 위한 이·미용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 반찬도시락 제공, 백미 전달, 군법당 포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재소자들을 위한 교정교화 사업은 남 원장이 진여원을 개원하기 전부터 진행했던 봉사로 올해 32년째다. 현재 그는 부산 구치소 교정위원으로 법무부에서 인가를 받을 정도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취재를 위해 진여원을 찾은 당일 날에도 남 원장의 책상에는 손으로 눌러 쓴 편지가 놓여 있었다. 또한 옆의 박스에는 금강경, 보현행원품, 관세음보살 보문품, 반야심경까지 사경지가 한가득 담겨 있었다. 모두가 재소자들이 보낸 것으로 봉투에 적힌 수신처는 '어머님께'였다. 매월 3째주 월요일과 화요일 부산 구치소와 교도소를 찾아가는 남 원장은 그들에게 어머니와 다름 없었던 것이다.

남 원장이 교정교화에 매진하게 된 계기는 지인의 조카가 폭력으로 감별소에 들어가 있을 당시 매일 면회를 가면서부터다. 감별소는 현재 소년원 내의 대안학교로 형을 받기 전 죄의 유무를 평가하는 기관이다. 심사원 직원들이 '심성순환'을 요청하며 남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남 원장은 한 달에 한번 200여 청소년들을 만나 간식을 전달했고 부처님 법을 전했다.

"감별소에 있던 아이들이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면 형을 받아 소년원에 가게 되는데 그럴 때면 아이들을 지옥에 보내는 심정이었죠. 제발 소년원에는 가지 않기를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 때 지장보살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게 되었고 부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어요. 자비 실천을 통해 부처님이 어떤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셨는지 가슴으로 느끼게 됩니다."

남 원장은 감별소에 법당을 지었고 면회 오는 부모들을 위해서 법당 밖에 해수관세음보살을 봉안했다. "이제는 해수관세음보살의 발이 새까매졌어요. 이곳을 찾는 부모님들이 두 손으로 관음상의 발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하거든요.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렇게 이어온 인연이 32년, 현재는 형을 마치고 세상에 나온 재소자가 남 원장을 찾아 진여원을 방문한다고. "그들이 지금은 진여 봉사단 회원이 되고 또 봉축에는 진여원을 찾아와 연등을 달며 감사한다는 인사를 잊지 않아요. 사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됐다고 말해요."

또한 남 원장은 현재 부산 6339부대, 6대대에 '호국진여사' 불사를 진행 중이다. "7월 중 준공식을 시작해 본격적인 불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부대에는 법당이 없어 군인들이 예불을 드리기 위해 먼 절에 가거나 작은 공터에서 예불을 진행하는 걸 보고 안타까워 시작하게 됐어요. 예산이 넉넉해 시작한 일은 아니에요. 부대에서 요청을 하길래 그냥 '네'라고 대답해버렸죠. 군인들이 2년 동안 부처님 말씀을 듣고 지혜를 깨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남 원장의 최종 목표는 '문턱이 없는 법당'을 만드는 것이다. 법당 중에 최고의 법당은 인(人)법당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부처님 법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마음 속에 불성, 마음자리를 알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많은 주부들이 진여원을 찾습니다. 이곳에서 행을 통해 부처님의 참 마음을 배우게 되죠. 이곳이 그들에게 복을 비는 공간이 아닌 실천 수행을 배울 수 있는 곳이길 바래요. 저희들은 사실 교리적인 부분은 잘 몰라요. 자비실천을 하다보면 가슴 깊이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실천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지혜를 얻고 삶이 나아지기를 기원할 뿐이죠. 법당이 따로 있나요?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 법을 통해 세상과 나눌 수 있으면 그곳이 곧 법당이죠. 저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참 부처님을 찾아 주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끝으로 남 원장은 "20여 년 함께해온 진여봉사단 회원들과 함께여서 오늘의 불사가 가능했다"며 "그들에게 진정 감사하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전법일기

'츰부다라니'와 일대사 인연

필자는 대학 4학년 때 낙산사에 출가하게 되었다. 관음도량인 낙산사에서 염불기도를 할 때 당연히 '관세음보살' 정근을 해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지장보살' 정근이 입에서 절로 나왔다. 지장기도가 필자와 잘 맞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대중들로부터 눈총을 받은 적도 많았다.

군승으로 임관하여 전·후방 부대 주지를 거쳐 1993년에 국방부 법당 호국원광사 주지로 부임한 이후 자연스럽게 지장신앙을 강조하게 됐다. 대부분 주지 스님들이 관음신앙을 강조했는데 신임 주지가 갑자기 지장신앙을 강조하니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가 많았다. 사이비라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다.

국방부법당 원광사 주지로 부임해서, 신도들과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매달 1번씩 성지순례를 가는 것이었다. 이 약속은 6군단 불이사 법당으로, 전근을 갈 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이뤄져 총 40여 회에 달하게 됐다.

그중 세 번은 해외성지순례로 이어졌다. 그중 하나가 1996년에 6월 신도들과 함께 구화산 성지순례를 간 것이었다. 호텔에 도착 후 철야정진을 하기 위해 등신불이 모셔져있는 육신보궁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늦은 시간이라 가이드의 간절한 부탁에도 산문을 열어주지 않자, 허탈해진 신자들은 호텔로 돌아가고 다섯 사람만이 남았다. 이들이 불빛이 흘러나오는 육신보전을 향해 108배라도 하고 갈 요량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지장기도가 철야정진으로 이어졌다. 이들 모두 김지장보살을 바라보며 각자의 소원을 실고 구화산이 떠내려갈 정도로 '지정보살'을 왜 쳤다. 아침 3시경 산문 담 위로 전등불이 보이더니, 육신보전을 지키던 스님들이, 우리들의 간절한 지장보살 정근소리에 감응했는지, 문을 열어 주면서 자신들보다 먼저 김교각 지장보살님께 아침예불을 올리라고 하였다. 각자의 발원을 바탕으로 1,200여년 전에 이 땅을 떠나 타국 만리에서 부처님의 원력을 펼쳐 김지장보살이 되신 교각스님의 육신을 보면서 아침예불을 하니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이어 북지장사로 성지순례를 갔다. 여기서 한 노스님이 말했다.

"지장수행자들은 츰부다라니 기도를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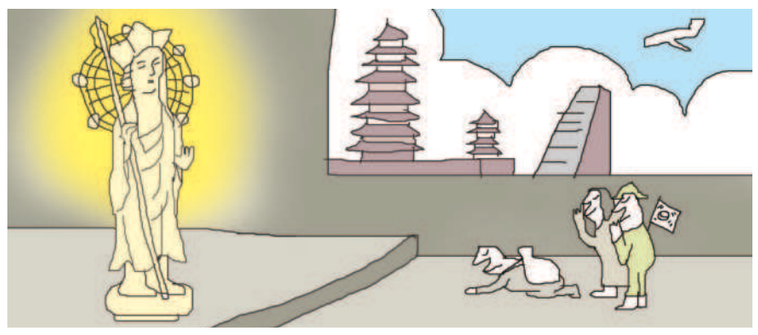
김교각 보살의 기도에 이어 노스님의 말에 이거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하다가 츰부다라니 기도를 하려니 신도들이 웃음을 터트렸다. '츰부 츰부 츰츰부' 하는 발음 때문이었다.

한 신도는 이렇게 말했다.

"스님 굳이 '츰부다라니'를 해야 하나요? 다른 진언보다 가볍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다라니 수행을 하면 안될까요?"

지금 시대에서 보면 지장신앙과 다라니 독송이 보편화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필자는 이상하게도 이 '츰부다라니'를 포기할 생각없이 계속 강조했다. 츰부다라니 수행을 하다보니 장점이 상당했다. 먼저 신묘장구대다라니보다 짧고 광명진언보다는 긴 것이었다. 이 정도 길이는 처음 진언기도에 발을 들이는 신도들에게 매우 적당하다고 생각이 됐다.

귀국 후 치악산 매봉자락 중턱에 터를 구하고 김교각 지장보살상을 모신 명주사를 건립한 이후 지장기도를 중점적으로 했다. 여기에는 성지순례에서 한 츰부다라니가 주력 수행으로 자리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하던 신도들이 이제는 수행의 트레이드 마크로 '츰부다라니' 정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지장기도가 자리잡은 것은 성지순례에서 김교각 지장보살의 불법을 다시 펴겠다는 원력의 가피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우리의 모든 전법 활동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일어나는 일대사 인연인 것 같아, 부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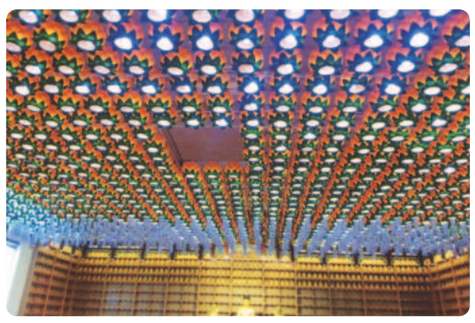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한선학 고판화박물관 관장(명주사 주지)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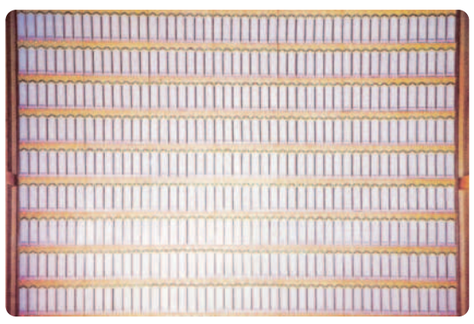
정성, 리성, 자인, 제성 모 면에서만족실 있니다


원주 보문 대법


제주 월성 위


제주 월성 인


월산무위 대법


장보 위


종인 본


대나무 부
(불, 불, 종불상)


진 가


만 월

전화 010 0 .0199 10
기 시 동 은 로100

온 곳이 없기에 갈 곳도 없어서 영원한 부처님 오신 날일세!


그림 · 최주현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2(남) 질문드리려고 했던 것을 지금 큰스님 법문을 듣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질문드려야 될 내용들을 미리 다 법문 중에 말씀해 주셔서, 자비로우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감정을 정리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당황되고 흥분되고 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 법형제님들께서 공부를 참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법형제님들이 정말 큰스님 말씀과 같이 정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경우에는 늘상 그 자리고 늘상 제자리인 것만 같아 답답하여 어떻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질문드릴 것이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습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찰나찰나 돌아가기 때문에 습이 붙을 자리도, 업이 붙을 자리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중생은 몇억 겁을 거치면서 습이 쌓이고 쌓여 가지고 그 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체가 없다고 그러는데 체가 없는 마음에 어떻게 습이 붙어 가지고 이 생에 와서 중생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큰 깨침을 얻으셨다는 어른들께서도 끝까지 그 습이 남아 가지고 가끔은 부지불식간에 그 습의 행동이 나타나는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지 가르침 받고자 합니다.

큰스님 그 얘기 하는데 뭐가 그렇게 깁니까? 하하하. 첫째는, 무조건 "네가 있다는 것을 네가 증명하는 거다." 하고서 관하는 거고, 둘째는 가정살이 돌아가는 것 전부 '그놈이 하는 거니까.' 하고 관하는 거죠. 그 놈이 하는 건데 뭣이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습니까, 네? 이거 보세요. 내가 말하는 건 잘되고 못되고 그걸 떠나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답답한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잘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잘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거를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것이 다 내 속에서 나오는 건데 진짜 우주간 법계와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일체제불이 한 골수에 들어서 한자리를 할 수 있다면…. 아까 그 소리 한 겁니다. 내일 죽는다, 이따 죽는다, 우리 식구가 다 멸망한다 이러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결사적인, 나를 버린 그 마음이 정통으로만 들어간다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뭐가 답답합니까? 그게 다 욕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늠름하게 넘어가면서 진짜 칼을 악으로다 뺄 때는 그냥…. 이거 보세요, 악으로 사는 사람은 진짜 칼을 썩 뺐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됩니다. 그러나 살리는 칼을 썩 뺐을 때는 수많은 중생들을 다 살릴 수 있고 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고,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체를 다 한 칼로다가 부릴 수도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답답합니까? 내일 죽으면 어떻고 이따 죽으면 어떻고 식구가 다 죽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그 말을 하는데 너무 잔인하고 너무 안됐다고 생각합니까? 아휴 참! 이 세상 이 길, 그냥 걸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냥 살 뿐이에요. 왜 사나?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와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가는지 알아야 답답하지 않다 이 소립니다. '야! 이거 뭐 캠핑 와서 잠시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이러는 것이 우주간 법계에 다 통신이 되는구나. 이럴지언대 내가 뭘 그렇게 걱정하랴.'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소 한 마리를 잡는다 해도 걱정이 없고, 소 한 마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고, 이 세상이 다 없어진대도 걱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거지 아니, 그놈의 거 하나하나 걱정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건지고 살릴 수 있겠습니까? 가정도 그래요. 이판사판이에요. 하하하. 두 가지뿐이야. 죽느냐 사느냐 요거뿐이지 거기에 또 뭐가 붙습니까?

어떤 스님이 날더러 이렇게 말하더군요. "스님, 이 토굴의 문에 못 좀 박아 주십시오."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난 그런 것도 모르고요, 생각을 안 했으니까. "못 좀 박아 주십시오." 그래서 "못은 왜?" 그러니까 "들어간 뒤에 바깥에서 못을 박아서 못 나오면, 죽지 않으면 얻을 거 아닙니까? 죽지 않으면 얻고 얻지 못하면 죽고, 이거 둘뿐 아닙니까?" 이거야.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알면요, 정말 아주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고 너그럽게 두루 할 수 있고, 항상 싱그레 웃고, 남이 갓 미쳤다고 할 정도로 싱그레 웃고 길을 지나갈 수 있고, 소 둥구리를 봐도 싱그레 웃을 수 있어요. 저거 가엾다, 저거 죽으러 가지, 뭐 이런 생각조차 없습니다. 왜? 아주 곧바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소 만 마리를 아니, 어떤 거든지 만 마리가 모두 죽었다 그럴 때 그것을 빗물 방울로 친다면 한 골짜기에 다 모였다 해도 한 골짜기에서 한 바다로 들어가는 물일 뿐이지, 한 그릇이지 그게 두 그릇입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은 체가 없고 무량해. 그래서 무량심이에요. 일심(一心)이자 무량심이고, 무량심이자 그 묘법이라. 무심도법(無心道法)은 그렇게 무량해서, 지금 수만 마리가 죽으러 간다 하는데 불쌍해서 염불을 해 주고 그런다면 그건 벌써 공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수십, 수백 마리가 죽으러 가는데 무슨 염불이 필요합니까? 염불하다 보면 벌써 다 늦는데, 하하하….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냥 모조리 이 한 그릇 자기 마음에다 탁, 거기다가 만 마리고 천 마리고 넣으면 그냥 자기 한 그릇이 돼 버리고 말아요, 네? 그러니 그대로 그냥 인간으로 환토가 되는 거죠. 자기가 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자기만 만들어 놓는다면 자동적으로 그냥 나가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돼도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을 거쳐서 나가는 인간은 나와서도 정말 사람 노릇을 하고 이 세상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지략과 아량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뭐가 답답해?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아들을 두면 그 아들이 장관도 못 하겠다! 장관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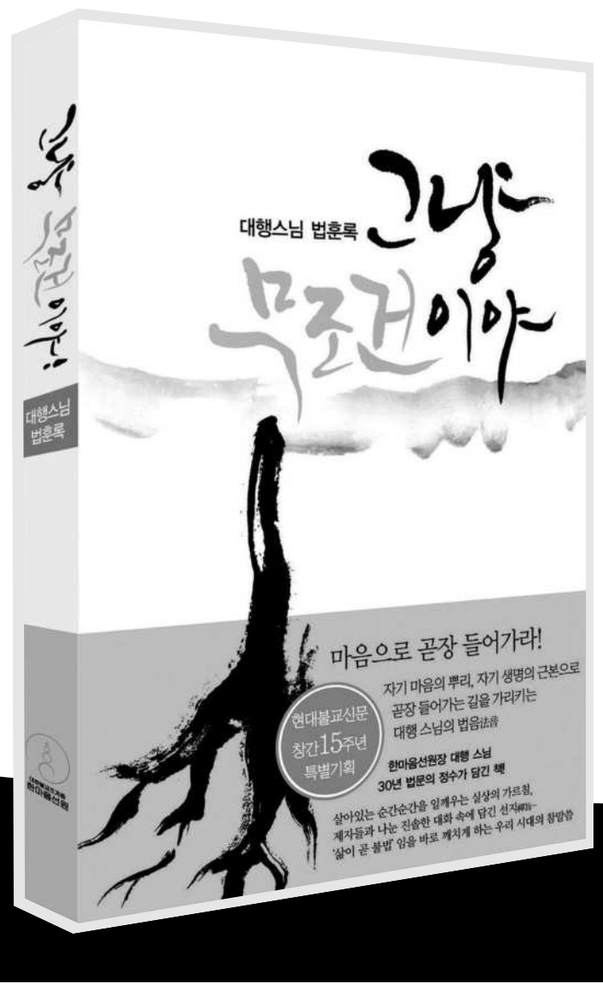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질문자2(남) 그런데 큰스님 앞에서 이렇게 법문을 들을 때는 금방 제가 부처가 될 것만 같고 하늘을 날 것 같고….

큰스님 이것 봐. 부처가 되려고 하지도 마라. 이 세상에 부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답답한 마음이 또 생길 테니까, 응? 그러니까 그대로, 못났든 잘났든 그대로 그냥 수순히 걸어가. 그냥 딱 세우곤 입 딱 다물고 그냥 걸어가다가 딱 닥칠 때 '네가 하는 거지.' '너!' 하고선 말 안 해도 '너!' 할 때 그건 그냥 그대로 깜짝할 사이야. 그러니 재생이 돼서 체가 나올 때는 거쳐서 나오는 그 시간이 있겠지만 자동적으로 불이 확 붙어서 끓는 쇠가 돼 가지고 직접 바로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약한 마음으로 이 도리를 어떻게 공부하겠나?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거야. 그러니 앞으로 살기 위한 욕심으로, 가난 때문에, 병고 때문에, '잘 살아야지. 위대하게 돼야지.' 이런 것 때문에 이 공부 하지 마라. 진짜! 진짜! "안 돼!" "이거는 어떠한 억겁에 처해 있

☞ 29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여러분이 있는 이 장소에서 그대로 4월 8일 입니다!

☞ 30면에서 계속

다 하더라도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하란 말이야. "안 돼!" 하면 그냥 안 되는 거지. 이게 이렇기 때문에 왁 소리를 지르고 그랬어. 그러곤 그냥, 손을 번쩍 쳐들어서 그냥 쳤단 말이야. 이게 진짜 깊은 물이 되기 때문에 큰 배가 뜰 수 있고, 큰 배가 뜰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중생들을 다 태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첫째 일요일은 항상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 쓰리고 아픈 상처를 아물리고, 내 몸에 들어 있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해서 천백억 화신으로 들락거리면서 나와 남을 위해서 일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전 세계를 융화시킬 수 있어야겠지. 전 세계를 융화시키고 건지려면 또 우리가 집을 잘 지켜야 하지. 지구집을 잘 지켜야 하는 것도 우리의 소임이다 이거야. 우리의 집이니까. 내 몸도 그래. 여러분이 부모에게 뼈를 받고 살을 받았는데 인간이 돼 가지고 진짜 사람이 못 된다면 어떻게 효가 될 수가 있겠느냐? 부모에게 잘 해 드리고 잘 입혀 드리고 그래서가 아니다 이거야. 내 몸을 잘 간직해서 건강하고 진짜 인간이 됨으로써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거다 이거야.

부모는 자식한테 효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아니, 오늘 그런 말도 나오게 생겼지. 봐요. 오늘 뭐, 어린이날이라면서? 난 그것도 모르고 오늘 "애들 오면은 뭘 좀 줘야지." 그랬더니 "오늘 어린이날이 돼서 다 싸 놨는데요." 그래서 "아휴, 너희들이 나보다 천 배 만 배 낫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얘기만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부모든지 자식이 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어디가 병 들었다 그런다면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거는 자식들 입장에선 생각조차도 못 할 겁니다. 나가서 다녀도 좋은 게 없고 아무리 우스운 일이 있어도 웃음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모가 돼 버리고 맙니다. 이게 효도입니까, 어디? 그러니까 막 굴리지 말라 이거죠, 젊은이들도. 자기 몸 막 굴리면, 자기 생각대로 막 굴리면 그건 효도도 못 할 뿐만 아니라 충성도 못하죠. 또,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이라고 그랬잖아. 자기 몸에 들어 있는 자기 중생을 제도 못할 땐 자기 집이 있으나 마나지, 그거. 제도 못하면 자기 집도 망가지지, 자기 집 속에서 사는 자기의 의식들도 다, 인연들도 다 그냥 끊어지는 거야.

미래의 정신세계가…, 미래라고 그러니까 미래지 여러분이 정신세계를 지금 이 자리에 가지고 있고, 과거 자리도 이 자리에 가지고 있어요. 현재의 자리가 미래, 과거 자리가 현재로 돼 가지곤 돌아가니까, 불바퀴처럼 돌아가니까, 바로 법바퀴가, 여러분이 공(空)해서 자꾸 돌아가니까, 끊임없이 돌아가니까,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에 끄달리지 않고 그런다면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요, 오늘이 바로 영원한 그날이죠.

이번에 "사월초파일 메시지를 쓰세요." 그래서 "그걸 왜 벌써 쓰냐? 4월 8일은 아직도 멀었는데." 그러니까 "먼저 모두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원에." 그러니까 먼저 써야 된대요. 그 소리를 듣고 "그럼 받아 써."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 또 자기가 해 놓은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장님더러 읽어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그거 누가 했는지 3단계로 곧잘 했구나."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4월 8일은 여러분이 있는 이 장소에서 그대로 4월 8일입니다. 왜냐? 4월은 바로 동서남북 전체를 말하고 8일은 유(有)·무(無), 즉 말하자면 사무 사유(四無四有)가 한데 합쳐져서 돌아간다는 거를 뜻해서 4월 8일입니다. 그 '오신 날'이 얼마나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뜻을 깊게 깊게 새겨야 합니다. 바로 영원한 오늘이죠. "온 곳이 없기에 갈 곳도 없어서 영원한 부처님 오신 날일세." 했단 말입니다. 이 못난이가 잘했죠? 어때요? 허허허…. 그러니 여러분도 못난이죠? 나도 못났고요. 부처님도 전부 못났어요, 아주.

못났으면서도 가섭(迦葉)에게 다보탑(다자탑, 多子塔)의 반을 탁 내주면서 앉았단 말입니다. 야 참! 그것은 이 세상에 조금도 버림이 없는 한자리였습니다, 한자리.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반 자리를 내주신 그 뜻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항상 읽고 돌아가기만 하지 그 뜻을 한 번도 새겨 본 예가 없어요. 알기야 뭐 불자라면 아마 열 살만 넘었다 하면 다 알 겁니다, 그 소릴 들어서. 그런데 행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그 깊은 속을 모른다 이겁니다.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거야.
> 그러니 앞으로 살기 위한 욕심으로,
> 가난 때문에, 병고 때문에,
> '잘 살아야지. 위대하게 돼야지.'
> 이런 것 때문에 이 공부 하지 마라.

질문자3(남) 스님! 스님도 못났고 저희들도 못났다고 그래서, 못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저희들을 공부시키면서 몰락 놓으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때로는 무조건 맡기라고도 하시고. 그런데 그 몰락 놓으라, 무조건 맡기라는 데 생각이 미치는 그놈하고, 맡기는 놈은 누구이며 맡는 놈은 또 누구냐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결국은 맡기는 자와 맡는 자가 모두 나 자신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놓고 맡기는 거기에 아무런 경계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놓는 것도 맡기는 것도 없는 셈이 되는데, 큰스님께서는 "놓아라 놓아라" 하시니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지 궁금합니다.

큰스님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죠. 큰 솥에다 팥죽을 쑤는데 말입니다, 팥죽 방울이 너무 많거든. 수도 없이 그냥 막 끓어오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배 속에서도 수없는 생명의 의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놓는 데도 한군데, 나오는 데도 한군데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 방울 조 방울, 요 방울 조 방울이 연방 나오는데 한군데서 나와서 한 가지로 고정되게만 한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마는 천차만별로 다른 방울이 그냥 솟아 나와요, 그 죽솥에서 죽방울이 말입니다. 방울은 작고 크고 달라도 죽솥에서 나오는 거니까 죽솥에다가 놔라, 이런 건데, 즉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요놈도 문수! 요놈도 문수!" 하고 죽방울이 나오는 대로 주걱으로 쳤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것이 다 용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살림하면서 별게 다 나오는데, 병고로 인해서 걱정, 가난해서 걱정, 회사에 가서 상사들한테 꾸중을 들어서 걱정, 또 애들이 속을 썩여서 걱정, 또 부부지간에 싸워서 걱정, 돈이 없어서 걱정 뭐, 걱정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죽방울은 죽방울인데 그렇게 다른 죽방울이니 그것들이 다 한 죽솥에서 나온다 하는 것만 믿고 알아라. 그러면 거기에 다 놓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솥의 죽방울이니 걱정을 하지 말고, 당장 애가 나가서 죽는다 이러더라도 걱정을 안 하고 "거기에서 나온다." 하는 거를 안다면 그애는 나가서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것이 벌써 전체 통신이 되기 때문이죠. 가설이라고 그러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내 형이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가설이고, 아들이라는 거 마누라라는 거 알지, 어머니라는 거 알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그러니까 급하면 급한 대로 절친하면 절친한 대로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가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한생각을 그렇게 하는 동시에 바로 식구들까지도 다 통화가 돼요. 거짓말 아니에요. 통신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벌써 '난 집으로 들어가고 싶구나.' 이러곤 저절로 들어오죠. 자동적이에요, 그거. 이렇게 자동적으로 사람을 다뤄야 그게 이심전심이에요.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애들이 잘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난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다면 어른이 생각할 때 천부당만부당할지라도 "그래, 네가 하고 싶으니까 해 봐라." 그러고선 아주 좋게 그냥 받아 주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만 경험하고 딱 돌아서게끔 마음에다 관해 놓으면,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나가서 다 해 보고는 "아이, 아버지, 나 그거 고만두겠어요."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고만두니?" 외려 그러거든. 그러면은 "아, 이만저만해서 그러니까 저 다른 걸로 하겠어요." 한단 말입니다. 요렇게 해서 사랑과 자비, 의리, 이심전심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관심, 이것이 진짜 사랑이죠.

그런데 그냥, 나가서 조금만 잘못됐다 하면 그쪽 이유는 듣지도 않고 "야이, 이놈의 새끼야. 너 어디 갔다가 이제 들어왔어? 공부하라니까! 이 아비는 땀 흘리고 벌어다가 너희들 공부시키는데…." 이럽니다. 누가 아니라나요? 하하하…. "그렇게 공부시키는데 요놈 새끼, 뭐 어디 가서 자고 들어와?" 그쪽 사정은 알아보지도 않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먼저 내 얘기를 하기 이전에 상대방 얘기부터 듣고, 잘못됐으면 "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하고 주인공에 맡기는 거, 또 그렇지 않으면 "얘, 그렇게 해서 못 들어왔구나. 그건 참 잘했구나. 네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참 잘했다. 사나이가 그런 의리도 없이 어떻게 살아나가겠느냐." 아, 이렇게 좀 북돋아 주면 나가서 잘못하래도 안 해요.

이것이 부모가 삼분의 일 가르치는 일이고, 삼분의 일은 자기가 자작하며 이끌고 다니는, 바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잡아서 나가는 거, 삼분의 일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이렇게 3단계가 한데 합쳐지게 되면요, 이랬어 저랬어도 안 합니다. "아버지." 그러곤 좋아서, 말할 땐 무릎 꿇고 앉아서 정중하게 말하고, 또 재밌게 얘기하고 그럴 때도 이랬어 저랬어, 마구 말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존경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스무 살, 스물하나 둘, 요 정도가 예전 서른 살하고 맞먹는단 얘기죠. 지금 시대가 그만큼 됐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들은 좀 더 생각을 깊이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나는 항상 그럽니다. 사소한 일 같더라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겁니다. 자녀들을 못 보고 그냥 나갈 때는 반드시 몇 자 써서 "얘, 아무개야! 냉장고에 반찬을 넣어 놨으니 그걸 데워서 먹어라. 그리고 언제 들어오는지는 몰라도 좀 일찍 들어와서 배고프지 않도록 해라. 너무 피곤하면 안 되지 않니?" 요렇게 아주 간단하게 써서 상에 놓아두고 나가면 자식들이 그걸 볼 때 차마 그 자비를 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자기 부모를 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입니다, 이건.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오늘 내가 이런 말 하는 것은 지금 외국이나 한국이나 너무들 삭막하게 사는 것 같아서입니다. 외국 가면 자녀들이 그냥 그, 마약중독 뭐 이런 것이 돼 가지고요, 부모네들이 상당히 고생합니다, 지금.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사회자 큰스님의 높은 법문을 받들다 보니까 어느덧 오늘도 또 예정 시간보다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많은 질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요다음 법회 날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저희들을 놓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스님 아니 회장님, 내가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나를 붙들고 있나?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과 내가 다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한데 합쳐져서 우리가 서로 웃고 서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한 말씀도 안 했다는 뜻과 같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아유, 질문하는 게 밀렸다니 언제까지 밀릴까요? (대중 웃음)

※위 법문은 91년 5월 5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